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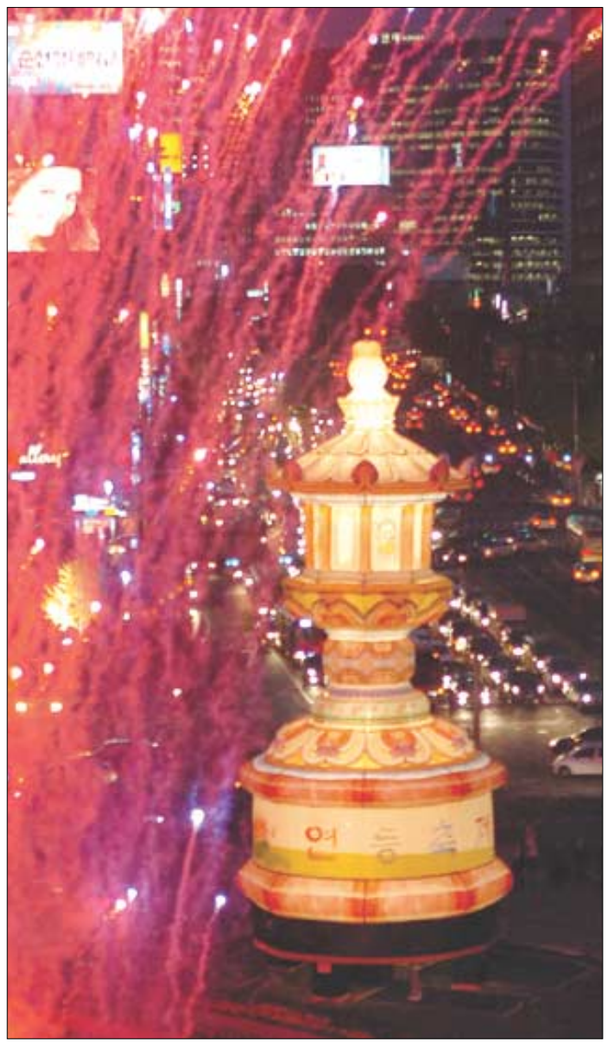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4월 26일(음력 3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 575 호

교육 · 봉사 · 국제교류 화두로

신개념 청년회 뜬다

능인선원 YBA 창립 … '글로벌 호프' 등 해외활동 주력



기초교리과정 이수 · 템플스테이 의무

청년 불교 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다.

서울 강남 능인선원(원장 지광)이 차세대 한국불교를 이끌 '젊은 붓다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움켜쥔 화두는 '청년교육'과 '국제교류'. 청년불교 층을 두텁게 하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다.

능인선원은 4월 23일 선원 대법당에서 YBA(Young Buddha Association)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 준비경과 보고 및 향후 활동 사업을 확정하는 등 봉사활동과 국제교류 활동가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능인선원의 이날 YBA 결성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에서도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YBA 고문을 맡은 조계종림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후원 분야에 장경작 롯데호텔 대표이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교육 분야에 양태식 서울교대 교수, 이종원 중앙대 교수, 자원봉사 분야에 중앙승가대 교수 승원 스님 등 10명의 이사진에 포진해있다.

4월 8일 창립공청회를 거쳐 활동 중심축을 '국제교류'와 '청년불자 활동지원'에 맞춘 YBA는 우선 조직을 'YBA 청년단'과 청년교육을 담당할 법사단, 국제교류를 맡을 'Global Hope' 등으로 구성했다.

YBA는 무엇보다도 'Global Hope'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05년부터 해온 초청 문화행사 '한국-티베트 청년 한마당' 등의 국내거주 티베트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동남아 이주노동자로 확대 · 실시한다. 또 4월부터 선재마을의료회와 연계해 월 1회 능인복지관 건강관리실에서 '무료 진료봉사'를 한다.

파키스탄 지진피해 구호활동의 후속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현지에서 구호단 활동을 벌인 YBA는 올 2월 파키스탄 국가인간개발 위원회(N.C.H.D)와 체결한 'Global Hope 학교' 2곳 설립 · 운영과 여름 캠프 사업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YBA는 지진 피해 지역 카와이 글로버 학교에 1만3천 달러를 지원, 150여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1곳의 설립을 끝냈다.

YBA는 이와 함께 출범 모태였던 능인선원 청년부의 신행활동도 강화한다. 회원은 능인청년불교대학에서 불교기초교리를 이수하고, 국녕사 템플스테이를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또 군입영자 신행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 실시해 지속적인 신행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코드에 발 맞춰 영어 경전 강독반, 밸리 댄스 등의 동아리 활성화에도 사업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광 스님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청년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법을 불교에서 찾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YBA 결성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청년불교 실천가를 키우고 국제교류사업을 전문화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진리와 화합… 서울 시청앞 봉축燈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4월 18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진리와 화합의 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우리도 부처님같이-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봉축 연등축제의 첫 번째 공식행사인 이날 점등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한 불자 및 시민 2000여명이 동참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다. 올해 봉축 상징물인 "진리와 화합의 등"은 폭 8m, 높이 18m 규모로, 사찰의 법당 앞에서 어둠을 밝히며 진리를 찾는 이들을 안내하고 있는 '석등' 모양을 소재로 제작됐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군불교협' 설립 추진

조 · 천 · 진 종단 실무협의중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범종단 기구인 (가칭)군불교협의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는 4월 19일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가칭)군불교 협의회를 구성해 군포교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칭)군불교협의회는 조계종과 종립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천태종과 진각종이 군승 파견 등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범종단적 기구로 현재 3개 종단 실무자들이 협의회 구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는 이미 군목을 파송하고 있는 12개 교단이 군선교 연합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지관 스님 정 추기경 만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7일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서울 성북동 성가정입양원을 찾아 위문한다. 지관 스님은 이날 정진석 추기경과 처음 만나 환담을 나눈다. 또 추기경 서임을 축하하고 두 종교 간의 화합을 과시할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문수사 주지 혜정 스님


시방세계 9면
장애인불자들 금강산행

율원 활성화 돼야 한다 4면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 28면


도반의 향기 17면
결혼 60주년 주영운 장기옥 부부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전문분야 포교인력 양성한다

조계종 자격자 선발 · 관리 규정 · 입법예고

조계종이 특정분야에서 전문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들을 핵심 포교인력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조계종은 4월 18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종단자격자선발및관리에관한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현재 종단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자 대상 자격제도인 일반포교사와 국제포교사 제도 외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특정 분야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을 종단 핵심 포교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범위는 어린이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심리사, 선지도사 등으로 우선 설정한다. 또 각 자격직을 관리하는 단체를 둬 어린이지도사는 대한불교교사대학이, 청소년지도사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상담심리사는 불교상담개발원이, 선지도사는 동국대학교 선학과가 이를 담당한다.

동국대 선학과가 마련 중인 선지도사의 경우 3급(학사학위 취득자), 2급(석사학위 취득자), 1급(박사학위 취득자)으로 구분된다.

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부 및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안거수행을 거쳐야 한다. 3급은 간화선 수행 2안거와 위빠사나 수행 3개월 이상, 2급과 1급은 별도의 간화선 수행 각 1안거와 년 1회 이상(최소 1주일)의 위빠사나(여타 명상수행도 가능) 수행 과정이 있어야 한다.

선지도사가 간화선을 지도할 경우 방장스님이나 조실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이거나 방장 · 조실스님을 법주로 모신 경우에 한한다.

선지도사를 비롯해 자격직 선발에 지원하기 위해선 종단 신도등록 및 5계 수지자에 한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전문성이 인정돼 관리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연수)과정을 졸업(이수)한 자 △포교원장이 해당분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등의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2006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 역사 · 문화체험

본사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제 3회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현지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 7월 27일~8월 17일(21박 22일)
- **참가비** : 28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 3월 25일~5월 15일
- **장소** :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 현대불교신문
- **협찬** :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문의 / 현대불교신문 사업2팀 (02)2004-8295

성 명 서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를 아끼는 사부대중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재적승 일동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근자에 통도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련의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드리고져 합니다.

청정한 도량에서 올곧은 신심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총림의 다수 대중은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산중의 반목과 질시를 종식시키고 나아가 실추 되려는 영축총림 통도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저 합니다.

- 아 래 -

1. 초우 방장 후보스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방장후보사퇴 의사를 밝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산중총회에서 다수의 결의로 방장후로로 추대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종단 종법상의 결격사유가 우리 대중의 우기는 것만으로 달라질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깨끗하게 사퇴하는 길이 본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본분납자다운 모습이며 그나마 실추되는 본인과 영축총림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2.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허울뿐인 임의 단체는 즉각 자진 해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이나 교계신문, 말사(암)등에 유인물을 배포하여 파생시킨 초법적인 결의사항(주지불신임, 방장사퇴조작 조사, 총무원장 사과요구, 산중총회철회 등)에 대하여는 어불성설이며 주제파악이 되지 않은 점을 깊이 사과하고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든 분파적 활동에 대해서는 깊은 참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3. 총림의 절대 다수대중은 현재 통도사가 비상사태가 아님을 거듭 확인합니다.

현재의 통도사는 선원, 율원, 강원, 종무소, 박물관 등 어느 한곳도 흔들림 없이 여법히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 수행정진을 잘 하고 있으며 가람수호에 한 치의 차질이나 멈춤이 없습니다.

차후 방장 후보추대 및 중앙종회의 인준이 종결 될 때까지 현 주지 직무대행 현문스님이 종무집행을 비롯한 총림운영 전반을 소신있게 이끌어 나가길 기대하고 적극지지 할 것을 다짐합니다.

4. 아울러 앞으로의 모든 현안은 산중 최고의결기구인 산중총회에서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마땅하다는 점 재차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미 공고 되어진 산중총회마저 취소하라고 요하는 소위「비대위」의 결정은 무슨 억지소리이며, 이를 결정한 스님들의 의식속에는 어떤 야욕이나 음모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성찰속에서 이루어지는 반성과 참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불기 2550년 4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 지	직무대행	이산 현문	총무국장	문 성	포교국장	매 물
율 원	전 계 사	혜남 중산	기획국장	무 영	사회국장	명 현
보광선원	유 나	천진 보탑	교무국장	보 화	호법국장	원 진
강 원	강 주	혜엄 우진	재무국장	지 수	박물관장	범 하

이번엔 '뿌리' 캘까?

국방부 10·27법난 진상조사

과거사진상규명위, 조계종에 자료요청 등 움직임 활발

이르면 이달 말부터 10 · 27법난에 대한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0 · 27 법난은 국회 5공특위에서 개괄적인 조사를 벌인 적인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10 · 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이하 법난진상규명위)는 4월 18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현재 자료수집 등의 예비조사가 진행중이며, 이달 말부터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14일 법난진상규명위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 · 27법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자원봉사로라도 적극적으로 동참 또는 협조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법난진상규명위는 요구서한을 통해 "10 · 27법난은 국가권력을 찬탈한 역사적 범죄를 호도하기 위해 군부가 자행한 인권탄압이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 반민족적 · 반민주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0 · 27법난을 최초 입안한 당사자와 배경, 피해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물론, 종교계 가운데 유독 불교계만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10 · 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만여 군경합동수사대가 대검과 실탄을 장전하고 전국 사찰에 난입, 스님들을 폭행하고 수백명을 연행한 사건이다.

이 때 조계종 · 천태종 주요 지도자와 사찰 주지 등 스님들이 불법감금, 고문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0 · 27법난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배경과 원인, 피해상황 등은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울산에 불교방송 생긴다

방송위 허가추천키로, 추진위 6월 주파수 신청

울산에 불교방송이 생긴다.

방송위원회는 4월 18일 제18차 임시회의를 통해 불교방송이 신청한 불교 울산 FM 방송국에 대해 허가 추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울산은 통도사를 중심으로 2004년 7월부터 울산불교방송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방송국 설립을 추진해왔다. 불교방송에서는 이를 근거로 2004년 10월 6일, 2005년 2월 21일, 2005년 12월 1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방송위원회에 허가 추천을 신청했으며, 18일 방송위원회 18차 임시회의에서 불교 울산 방송국의 허가 추천이 최종 결정됐다.

불교방송은 울산불교방송 설립추진위원회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정보통신부에 방송 주파수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며, 정보통신부의 방송국 허가를 얻는 대로 울산방송의 개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종교인구 가운데 불교인구 비중이 76.2%로 전국 최고인 울산에는 현재 KBS, MBC, CBS, 극동 방송 등 4개사 만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윤 국방 지관 스님 예방

윤광웅 국방부장관(사진 왼쪽)이 4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윤 장관은 군종장교 파견과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조계종은 군종장교 운영의 효율성 재고방안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에는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 부주지 계성 스님 등이 배석했다. 지관 스님은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모형)을 선물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서울절들 '손 잡아요'

서울사암련 준비위 가동

조계종 직할교구종회가 서울지역 사암연합회 결성이 추진한다.

4월 19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550년 제1차 교구종회(의장 지관)에서 사암련 결성을 만장일치로 결의 했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사찰의 민원과 사회적 요구를 종단이 모두 대응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다"며 "일년에 두번밖에 열리지 않는 교구종회 보다는 현안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암련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과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서울 소재 비구니 사찰 주지스님 1인 등 3인을 준비위원장으로 사암련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열린우리당 "관람료 폐지 추진"

'5·31 선거용' 비난여론

최근 당론으로 국립공원입장료와 사찰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주장하던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바꿔 사찰문화재 관람료만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4월 21일 열린우리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공원입장료는 그대로 두고 문화재 관람료만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문병호 의원은 16일 "기획예산처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국립공원 입장료 조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5 · 31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입장료와 관람료를 일괄적으로 폐지 할 경우 연간 400~500억 원이, 문화재 관람료만 폐지할 경우 약 200억 원 정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조용수 기자

'불지종가' 통도사 깊어가는 갈등

주지 "비대위 해산해야" - 비대위 "주지 불신임"

통도사 방장문제와 관련해 4월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비상대책위(대표 목산)'가 주지 불신임이 발표한데 이어, 주지 직무대행인 현문 스님이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대책위의 해체를 요구해 통도사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문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초우 스님의 방장후보 사퇴가 주지 개인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비상대책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초법적 임의기구인 비상대책위는 당장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지의 독선적 사찰운영으로 통도사 대중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상대책위의 비난에 대해서도 "3월 24일 목산 스님과 원명 스님 등 각 문중의 어른들과 주지를 포함한 총림의 선원, 율원, 강원 대표 등 35인이 참여하는 확대 비상대책위를 제안해 사중이 화합된 모습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바 있다"며 "이미 24일 산중총회가 예정된 만큼 대중공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문 스님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비상대책위 간사 범해 스님은 "현문 스님이 초법적 임의기구라는 비상대책위는 자신이 직접 참여해 만든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통도사 대중들은 더 이상 현문 스님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조용수 기자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실무자 회의

종합안내·예약정보체계 구축이 활성화 열쇠

템플스테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종합 안내 · 예약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이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한 '2006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실무자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1967명(내국인 1607명, 외국인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템플스테이를 인지했고 실제 방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잠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종합 안내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적이 나왔다.

또 수요자들에게 템플스테이 정보를 전달하고 간편하게 예약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존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관광안내체계 및 예약시스템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외에도 템플스테이를 진행 · 안내할 가칭 '템플스테이 안내원' 제도를 각 사찰별로 도입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 템플스테이 이용객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스님과의 대화, 참선 등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짧고 촉박한 일정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았다. 따라서 기존 1박 2일 프로그램을 2박 3일, 3박 4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나 가족 대상 등 참가자별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찰별 차별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각 사찰 템플스테이 핵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높았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가장 불편했던 사항과 관련해 내국인들은 '개인 휴식시간 부족'을 들었고, 외국인들은 '이용객들의 낮은 의식수준'을 꼽았다. 또 내국인들은 '스님과의 대화'를, 외국인들은 '참선'을 가장 만족스러워 했다. 향후 가장 즐기고 싶은 템플스테이 유형으로 내국인들은 '한국 역사문화와 관련된 템플스테이'를, 외국인들은 '한국의 자연경관과 관련된 템플스테이'를 선호했다.

남동우 기자

'치유의 손길' 10만부 배포

병원법당 지원 포교활성화

조계종 포교원이 병원법당지원과 환우포교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손길〉 10만부를 발행해 배포한다.

책자 발간은 지난 3월 3일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서울경기지역 병원법당 지도법사스님들과의 간담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1차로 국립경찰병원, 강남삼성의료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및 국립서울병원불자회 등 17곳에 무료 배포된다. 병원불자연합회에서 추후 배포하며, 책자를 필요로 하는 병원 법당 및 불자회는 포교원으로 요청하면 된다.

〈치유의 손길〉은 '병은 어디서 왔는가'를 비롯해 '병의 종류' '치유를 위한 마음의 자세' '치유를 위한 기도와 염불' '간병의 마음' '쾌유 발원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02)2011-1904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중앙승가대 이사 전원 연임

조계종 종립 중앙승가대 이사 전원이 연임됐다.

중앙승가대는 4월 18일 교내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총무부장 자승,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등 당연직 이사 3명과 종하 · 지하 · 범산 스님, 박완일 교수 등 추천직 이사 4명 등 이사 7명 전원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이사회 감사로 적인 · 혜초 스님을 선임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계율에 입각한 실천행'을 주제로 특강했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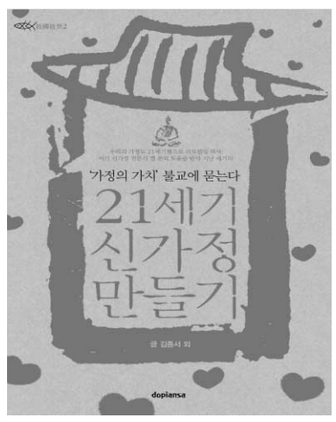
5월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고마운 분들께 선물할 책!

救國救世-더불어 살아야 할 삶[共同體]을 위한 불교적 패러다임[緣起와 中道]을 찾아서 1

-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

21세기
신가정 만들기

우리의 가정도 21세기형으로 리모델링 하자.
여기 신가정 전문가 열 분의 도움을 받아
지난 세기의 낡은 가정을 확 뜯어 고쳐 행복을 찾자.



글 김종서外 신국판360쪽
값12000원 도서출판 도피안사

불기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강연
'노동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국가발전과 불교의 역할

우리는 '일[勞動:家事노동과직업노동]'을 통해 성불한다

- 집안 일과 직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성불하는 지름길이다 -

⊙강 사 : 박세일 / 서울대 교수 / 前국회의원
⊙일 시 : 2550(2006)년 5월 5일 10시 30분
⊙장 소 : 안성 도솔산 도피안사 대웅전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우456-893)
전 화 | (031) 676-8700 전 송 | (031) 676-8704
홈페이지 | http://www.dopiansa.or.kr
E-mail | dopiansa@kornet.net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주지 송암지원 謹白

불교유치원 설립 안된다?

운문사 1998년 부터 준비… 올 1월 공사 착수

지역유치원연합회 "시장 포화"이유 결사반대

신도시 포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불교유치원 설립이 지역 이익집단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쳤다. 청도 운문사(주지 흥륜)는 내년 개원을 목표로 대구 배후 도시인 경산시 사동 655-2번지에 유치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지역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수개월째 갈등을 겪고 있다.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논리는 유아교육기관의 수급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 매년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신생 유치원이 들어서면 기존 유치원들의 운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운문사 부설 유치원이 들어설 사동과 인근 동부동의 2005년 12월 인구통계를 보면 만 3~5세 아동의 수가 1269명이 불과하지만 시설은 33곳(유치원5 · 어린이집28)에 인가된 정원이 3190명이어서 유아교육기관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시작한 불사인만큼 운문사의 의지는 확고하다. 운문사는 경산 신도시가 계획되던 1998년, 유치원 설립을 목표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 부지 500여 평을 매입했다. 국내 최대의 비구니승가대학으로 오래전부터 새싹포교를 위한 유치원 설립을 준비해왔지만 사중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올해 1월 28일 겨우 기공법회를 치르고 본격적인 유치원 건립불사를 시작했다. 총공사비 20억원 가량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유치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아교육 시설업체인 이성건축이 설계를 담당한다.

운문사측은 △경산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불교 유치원의 특성상 인근 유치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기존 유치원들도 우수한 시설과 교육의 질로 경쟁한다면 운문사 부설유치원이 개원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운문사 총무 정호 스님도 "일부 반대하는 이들이 조계종과 운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문사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3월 24일 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의 주장이나 명분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교육청의 관계자는 "올해 초 운문사가 유치원 설립을 신고해왔지만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 민원이 워낙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행정적 미비점이 없는 만큼 5월초에 열리는 '유아교육심의위원회'가 설립인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유치원들을 의식해 운문사가 원하는 것(12학급 · 240명) 보다 규모가 작은 6개 학급 수준으로 인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경산시에는 사립 28곳, 초등학교병설 27곳 등이 있으며, 사동 택지지구 내에는 개신교 유치원 1곳을 포함한 3곳의 유치원이 이미 개원한 상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원용선씨 만장일치 추대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원용선 수석부회장(59학번, 영문 · 사진)이 4월18일 열린 임시이사회 및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원용선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동문회관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임기 내 5억원을 모금하겠다"고 밝혔다. 또 "4월 10일 선출된 류근창 회장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4월10일 류근창 고문을 회장으로 추대한 동국포럼 한 관계자는 "총동창회가 화합하는 분위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 되었다.

앞서 총동창회는 회장 후보자 등록시 발전기금 5억원(보궐선거 2억원) 이상의 기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규칙을 제정했다. **남동우 기자**

'이웃위한 등' 많아졌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생명나눔등'을 비롯한 이웃을 위한 등이 늘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불광사는 '이웃을 위한 등'을 위해 모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등은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나 쪽방 등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거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불이 켜진다.

부산 대원정사(상임법사 양재형)도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생명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등 수익금 전액은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종교적 소신 독인가, 약인가

조계종 종평위 공개포럼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종교적 소신은 독인가, 약인가.'

5 ·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사회 공직자의 정교분리 준수와 종교편향에 대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5월 10일 오전 10시 한국일보사 12층 송현클럽에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가 발제하고, 윤원철 서울대 교수와 박희택 위덕대 교수, 유근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02)732-7272 **박봉영 기자**



제1차 세계불교포럼이 4월16일 중국 보타낙가산 남해 관음성지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중국 종교자유의 희망 시사

▮세계불교포럼 의의와 전망

제1차 세계불교포럼이 4월 16일 저우산(보타낙가산) 남해관음대불 앞 특설법회장에서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됐다.

이날 행사에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쟈무양 스님은 제1차 세계불교포럼 결과보고를 통해 "이번 3박4일간의 일정에 대만 홍콩 한국 일본 등 세계 34개국에서 1000여 불교지도자가 참여해 이 구동성으로 세계의 화합을 엄숙하게 노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1차 세계불교포럼 보타산 선언문 채택과 낭독이 있었다. 이 선언은 △선한 마음을 키우고 선행을 행하면 인간의 마음이 선해진다 △가족간에 사랑이 굳건하고 충만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협력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존중하면 문명간의 화합이 이루어진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원한이나 미움을 우정으로 바꾸면 세상이 평화로워 진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만여명 운집 성황리 개최
격년개최 약속 등 의욕 과시

이번 대회는 세계 100여 언론사가 열띤 취재경쟁을 하는 등 세계의 이목이 쏠린 행사였다. 1949년 공산당 정부수립 이후 중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제종교행사라는 점이 바로 이유다.

600억원이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배불균형과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중국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은 불교를 활용하겠다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 가치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불교를 확대함으로써 급속도로 교세가 확산되고 있는 서방종교에 대항하겠다는 의미도 크다는게 참가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랭카스터 미국 서부대 총장은 "이번 포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중국 종교 자유의 희망적인 미래를 시사하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대회의 실질적인 행사 추진 실무자였던 중국중앙종교국 엽소문 국장도 "이번 포럼은 비록 종파는 다르지만 세계의 불교를 하나로 화합시키는 큰 계기가 됐다"며 "2년마다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세계각국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제1차 세계불교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켜본 한중일 3국 불교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한중일 나라를 돌아가며 열려 3국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오던 한중일 불교대회의 존재가 이번 대회로 인해 축소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글 · 사진/중국 저우산=김주일 기자

조지아대 학생들 참선 실수

혜선 스님 초청 질의응답도

한국 스님과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만났다.

조지아대 2006년도 봄학기 '영화와 문학을 통한 불교'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16명 학생들이 한마음선원 혜선 스님 지도로 4월 10일 캠퍼스 내에서 참선실수를 했다.

'영화와 문학을 통한 불교'는 2003년과 2005년 운문사와 송광사 및 대흥사 템플스테이를 다녀 온 조지아대 장학재단 소속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개설된 과목.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은 좌선과 차문화, 출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혜선 스님은 참선에 담긴 의미와 불교의 수행법,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했다. 학생들은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인들이었지만 참선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다. 종교적인 이유라면 참선수업에 불참해도 무방하다고 사전에 통보가 돼 있었지만 수업에 불참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한명우 기자

"타국살이에 지친 이들 쉬어가세요"

조계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개원

조계사(주지 원담)에 외국인노동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조계사는 4월 16일 교육관 1층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마이트리'를 개원했다. 마이트리는 '진실한 우정'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조계사는 마이트리를 통해 안과와 내과, 치과 등의 진료는 물론 무료 법률 상담, 한글과 컴퓨터 교육, 불교교리 공부,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 자원봉사는 병원불자연합회와 연세대 봉사동아리 '해우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포교사회 등이 맡을 예정.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이날 개원법회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많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마이트리 개원을 계기로 한국민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트리를 찾은 스리랑카 노동자 니산트(30)씨는 "심한 두통을 자주 느껴 의사선생님께 몇 가지 여쭈어봤다"며 "앞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마이트리에 오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목탁소리

불교상식에 어두운 청소년불자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봉은사가 4월 16일 서울 시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를 열었다.

10개 학교에서 100여 학생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 1등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참가자들에게 도서상품권과 롯데월드 · 아쿠아리움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푸짐한 부상이 눈길을 끌었다. 기출문제는 종립학교 교법사단이 중 · 고교 종교 교과서, 역사 교과서, 봉은사지 등에서 출제해 2주 전 일괄 배포했다.

주최측은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야심찬 출발이었다.

그런데 당일 행사를 시작한지 30여 분 만에 퀴즈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 네 명을 제외한 전원이 탈락한 것이다. 주최 측은 부랴부랴 '패자부활전'을 열었지만 학생들은 연거푸 탈락했다. 결국 '패자부활전'은 5번도 넘게 열렸다.

물론 중간고사 기간에 이 같은 대회가 열려서 학생들이 예상 문제를 꼼꼼히 보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반을 다니면서도 불교상식조차 모르는 청소년들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현 청소년 포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종립학교 청소년 포교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불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포교정책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 이벤트였다.

■이은비(취재부 기자)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연합법회 및 산사음악회

삼보에 귀의 하옵고
금번 행사는 성남의 모든 사암이 일심으로 마련한 작지만 소중한 축제의 장입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의 탄신을 기념하는 봉축연합법회 및 가수 남진 및 스리랑카 국립무용단을 초청한 산사음악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성남 시민들에게 건전한 문화마당을 펼쳐서 부처님 오신 날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장 효관 손모음

1. 봉축연합법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남의 모든 사암이 봉국사에 모여서 일심으로 연합하여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수희 동참 바랍니다.
장 소 : 봉국사 특별무대 일 시 : 불기2550년 5월 5일 오후 6시 30분

2. 산사음악회
가수 남진 및 스리랑카국립무용단과 국악연주단을 초청하고 봉국사 내 찬불단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불교를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 소 : 봉국사 특별무대 일 시 : 불기2550년 5월 5일 오후 7시 10분 ~ 9시 30분

◆ 주 최 : 성남시 불교 사암총연합회 ◆ 주 관 : 대한불교 조계종 봉국사(성남 불교역사 문화 연구소)
◆ 후 원 : 불교TV, 불교방송, 아름방송,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국민상조

제1회 성남불교 만해축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만해스님 시 목우 서예전



삼보에 귀의 하옵고
만해 선사의 법통을 잇고 있는 저희 봉국사는 불기255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친견하고 또한 만해스님의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성남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주인 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 영장산 봉국사 주지 효관 손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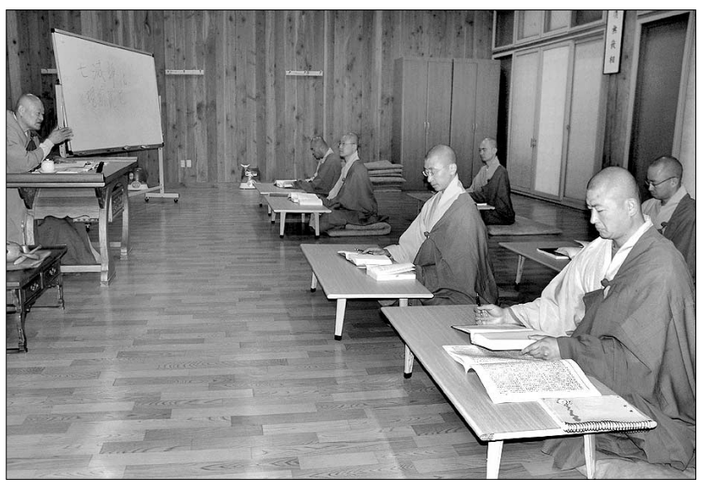
1.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부처님께서 생전에 스리랑카를 방문하였을 때 주석하셨던 네가디파 라즈마하 비하리 사원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 진신 사리를 스리랑카 총리(스님)께서 직접 이운해 오셔서 친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 소 : 봉국사 심검당 일 시 : 불기2550년 4월 28일 오전 10시 ~ 5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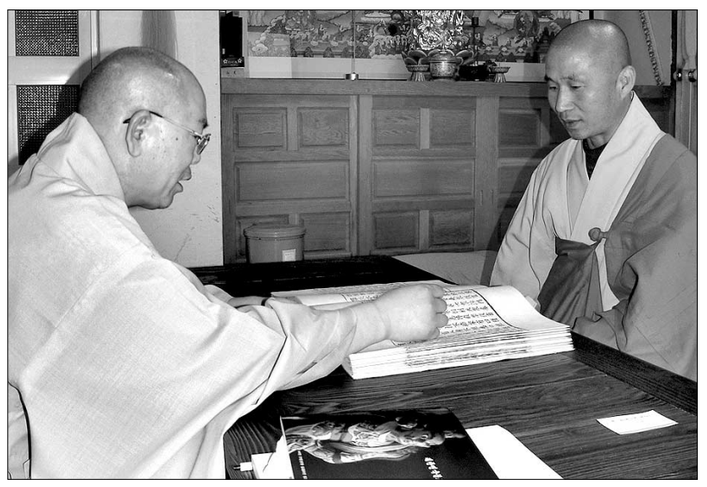
2. 만해스님 시 목우 서예전
만해 선사의 유일 상좌이신 춘성 스님, 그 상좌이신 봉국사 회주 혜성 스님에 이은 목우 스님이 쓰신 만해 선사의 선시 작품전입니다.
장 소 : 봉국사 심검당 일 시 : 불기2550년 4월 28일 ~ 5월 5일

대한불교 조계종 영장산 봉국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216-2 문의 : 031)755-0329, 010-2711-0639

‘先 율장교육 後 선수행’으로 율풍 진작을

한국 율원의 활성화 방안





최근 고불총림 백양사에 율원이 개설되면서 율원 활성화의 목소리가 불교계에서 일고 있다. 사진은 4월 12일, 13일 탐방한 해인율원(왼쪽)과 파계사 영산율원의 교육 현장. 이들 율원은 ‘1:다’, ‘1:1’ 등의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율장을 가르치고 있다.

‘깨달음 지상주의’ 팽배, 강원 학인들 율원 진학 기피

지계 정신 부족이 원인 … “전체 학인들 율장 배워야”

올 봄, 법주사 강원을 졸업한 도천 스님. 최근 쉽지 않은 진로 선택을 했다. 선원 대신 율원에 방부를 들였다. 강원을 마친 학인 대부분이 곧장 선원으로 몰려가는 현실에서 ‘선원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고민도 했지만, 스님은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에 입학했다. 율장을 모르고서는 평생 수행자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같은 율원생의 입학 사연은 ‘한국불교 율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의 진단과 무관하지 않다. 율원 입학을 망설였던 학인스님과 율장을 가르치는 율사가 율원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 왜 율원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 율원생 꾸준히 늘고 있다지만…

1968년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이후, 총림으로는 처음 개원된 해인율원(율주 종진).

4월 12일 합천 해인총림 율원의 오전 시간대는 바쁘게 돌아간다. 38년동안 100여 명의 율원생과 16명의 율사를 배출시킨 해인율원은 어김없이 예불과 108배 새벽정진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정진이 끝나자, 곧바로 오전 7~9시에 1학년 ‘사분율반’과 2학년 ‘범망경반’ 율장 강의가 진행된다.

좀처럼 서두르는 기색은 없다. 착착 맞아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16명의 학인스님들은 움직인다. 수업은 철저한 문답식으로 이뤄진다. 율장해석을 놓고 일어나는 논쟁이 흥미롭다. 율장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율원장 무관 스님과 학인들 간의 치열하게 오가는 문답에서 생동감이 묻어 난다.

해인율원의 이같은 분위기처럼, 최근 율원에 입학하는 학인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밝힌 ‘연도별 율원(종단인가) 수와 학인 수 증감’에 따르면, 2003년(율원 4곳) 26명→04년(4곳) 34명→05년(영축총림 율원 개원 5곳) 47명→06년(5곳) 54명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 4월 7일 고불총림(백양사) 청류암에 개원된 율원이 종단인가를 받게 되면, 전국의 율원 수도 기존 해인총림, 조계총림(1988년), 영축총림(2005년), 파계사 영산율원(1996년), 봉녕사 금강율원(1999년) 등과 함께 6곳으로 늘게 된다.

일단 통계상으로는 율원과 율원생이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해인율원 2년차 선공 스님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다시 해인율원에 들어오는 진학률이 높다”고 귀띔했다. 매년 20여 명의 해인강원 졸업자 중 해인율원 입학률이 20%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인율원과 달리, 대부분의 강원 학인들 사이에서는 율원 진학을 꺼려하는 풍토가 지배적이다.

서울 지역 모사찰 강원의 한 학인스님은 “강원 교과과정에 율장과목은 있지만 비전문가 강사스님이 강의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율사스님의 대우도 강사(교수)가 아닌 중강(부교수) 정도로 대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인들 사이에 서둘러 선원에 가서 선 수행부터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 기본교육 졸업자 5%만 율원 입학

율원 기피는 ‘승려 교육기관’ 통계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2004년 기본교육기관(강원, 기초선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졸업자 424명 가운데, 율원 입학률은 4.95%(21명)에 불과하다. 매년 승려기본교육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학인 100명 중 5명 정도가 율원에 진학하고 있는 셈이다. 율원 교직자 수도 미미하다. 교직자 1명당 학인 수가 7.9명인 강원과 달리, 율원은 11.8명이나 된다.

율원을 졸업해도 더이상 공부할 데가 없다. 율장을 연구하고 싶어도 관련 전문기관이 부족하다. 4년 전부터 송광율원을 비롯해 해인율원, 영산율원 등에서 3년 과정의 ‘율원 연구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매년 20여 명씩 배출되는 율원 졸업생을 수용하기에는 벅찬 실정이다. 일반 학제로 치면, 2년 과정의 석사(율원)를 마친 대학원생이 3년 과정의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해인율원장 무관 스님은 “화합승가의 유지와 존속 근거인 율장공부는 수행자의 존재이유를 일러주는 기초임에도 선 수행 중심의 수행풍토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율원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 율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율원 운영과 율원생 교육에 잔뼈가 굳은 해인율원장 무관 스님과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은 “문제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곧 대안”이라고 단언했다. 현실에서 방법을 찾자는 주문이다.

 # 종단차원의 ‘율장연구원’을

이들 스님들은 율원 정체 현상의 원인으로, 한국승가의 확고한 지계정신 부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율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비단 율원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원 중심의 승가교육 풍토 ▲이로 인한 율학의 중요성 간과 ▲강원 학인들의 율원 진학 기피 현상 지속 ▲율원 졸업자의 진로 불확실성 ▲율사의 미양성과 율풍의 정체 등으로, 율원 정체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깨닫는 과정, 즉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길인 율장연구를 강조했다.

무관 스님은 우선 종단 · 총림 · 율원 등의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스님은 이를 위해 ▲단위 사찰의 포살법회 의무 등 승가 차원의 지계의식 확립 ▲승려기본교육기관 내 율장교육 강화 ▲율사 중심의 계단위원회 및 법계위원회 구성 ▲종단차원의 율장연구원 개원 ▲기존 율원연합체 ‘비니법석’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스님은 해인율원 율사들이 직접 강원에서 율장을 교육하고 있는 점을 실례로 들며, 강원의 율장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先 율장교육 後 선수행’이 율원활성화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무관 스님은 “현재 율원이 개설된 총림에서는 율주나 율원장 스님이 총림 강원에서 율장을 가르치고 있는 반면, 일반 강원에서는 율장에 대한 과목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며 “율사를 의무적으로 강사로 섭외해 율장교육의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율장연구원’ 개설도 제시했다. 율원 졸업생들의 율장연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의견이다. 새로 배출된 소장 율학 연구가들에게 종단 차원의 율학 연구 프로젝트 부여, 율장과 현대사회문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간극과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지계 가이드안’을 마련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지계 가이드안을 중진 및 원로 율사들로 구성된 계단위원회나 법계위원회에서 심의, 현대적 의미에 걸맞는 율장해설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종단 지정 ‘기초율원’ 설립 시급

1996년 조계종 단위사찰로서는 최초로 율원을 개원한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도 종단이 청정수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총림에서 구색 맞추기 형식으로 율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총림율원의 활성화와 단위 사찰의 율원 개원을 위한 방안으로 ▲종단 지정 기초율원 설치 ▲강원 및 선원의 율장 교육 기회 확대 ▲교구본사별 계율 자문역으로 기존 율사의 활용 ▲강사 수준의 율사 대우 등을 제안했다.

특히 스님은 “율장에서는 ‘선원이든 강원이든 먼저 율장을 5년 이상 배우고, 구족계를 받고 선원이나 강원에 입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조계종의 승가교육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미(니) 시절부터 기초율원에서 율장을 먼저 배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기존 총림율원이 전체 학인 스님들에게 정례화 된 율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방안으로 송광율원이 광주 · 전라권 학인을, 파계사 영산율원이 대구 · 경북권 학인을, 해인율원과 통도율원이 부산 · 경남권 학인 스님들에게 <사분비구계본>을 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전계를 받고 활동 중인 31명의 율사들을 활용해 각 교구본사별 계율 자문역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계 율사는 총 31명. 송광율원 15명, 해인율원의 자운율사 율맥을 이은 율사 16명 등이다. 원로 율사로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송광율원 율주 원명, 총무원장 지관, 법주사 율주 혜정, 쌍계사 조실 고산, 계단위원 범어사 정관, 해인율원 율주 종진, 범어사 전계사 흥교 스님, 중진 율사로는 파계사 주지 성우, 영산율원 율주 철우, 해인율원장 무관, 통도율원장 혜남, 송광율원장 지현, 고불율원 율주 혜권 스님 등이 있다.

조계총림 송광율원장 지현 스님은 기초교육기관인 행자교육원, 승려기본교육기관인 강원 등에서부터 율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승려전문교육기관을 필수적으로 마친 학인에게 3급 승가고시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법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글 · 사진=김철우 기자



제3회 마곡사 신록축제 꽃이여! 바람이여!

봄이 아름다운 백제의 천년고찰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도량에서 펼쳐지는 봄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래

- 일 시 : 2550년 4월 29일 ~ 30일
- 장 소 : 마곡사 일원
- 주요내용
  - ▷ 제 1부 - 총무원장 큰스님 초청 법회 (29일 토요일 오후 2 ~ 4시)
  - ▷ 제 2부 - 산사음악회 및 유 등 제 (29일 오후 6 ~ 9시)
    (심진스님, 도신스님, 방실이, 부부듀엣.....)
  - ▷ 제 3부 - 마곡사의 밤은 아름다워..... (29일 오후 9시 ~)
  - ▷ 제 4부 - 태화산 맨발 걷기명상(30일 오후 2시 ~ 4시, 마가스님진행)
  - ▷ 체험관운영 - Temple Stay, 정현스님과 함께 달마그리기 퍼포먼스, 풍선날리기, 솟대만들기, 먹그림 교실, 탁본교실, 국악교실, 즉석 디카촬영대회, 페이스 페인팅

※ 경찰병원불자회와 함께 하는 농어촌무료 진료 (30일)

- 문의전화 : 041)841-6221 홈페이지 www.mago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진각 합장

부산 찬불가 수준 UP!

부산서 처음 열린 '찬불가합창경연대회'



부산불교연합회장 대성 스님이 대상을 차지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4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찬불가 합창 경연대회가 열렸다. 18개 사찰의 합창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열기는 첫 대회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다. 1, 2층의 객석도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졌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 주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귀련) 주관으로 열린 첫 찬불가 경연대회의 막이 오르고, 맨 먼저 관음사 환희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찬불가 한곡, 자유곡 한곡을 선보여야 하는 대회 규정상 18개 팀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찬불가와 일반에 친숙한 민요, 외국곡, 가곡 등을 불렀다.

선암사, 여여선원, 범어사, 영주암, 혜원정사, 한마음선원, 황정사 등 사찰명이 호명되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응원 나온 신도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합창경연대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상

"음성 포교 중요성 인식 계기"

가 합창단만의 축제가 아니라 일반 신도들이 다함께 참여한 가운데 누가 대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1, 2부 나눠 진행된 경연이 끝나고 초대가수 함중아, 문성재의 축하공연에 이어 시상식이 열렸다.

대상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미룡사, 옥련선원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관음사와 황정사 합창단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모든 참가팀에는 참가상이 주어졌다.

저녁 6시 30분에 시작된 대회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네 시간에 걸쳐 부산시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된 이번 대회는 부산 찬불가 합창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도 자체가 신선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고 회향됐다.

심사평에서도 언급되었듯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한 팀들 중 발성, 발음, 가사 전달, 대회 규정 준수 등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부족한 팀이 아주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대회가 단순히 우열을 가리는데서 그치지 않고 부산 사찰 합창단 수준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 진단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회 운영 미숙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예선 없이 18개 팀이나 본선에 오르다 보니 수준 높은 경연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대 후반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참가 자격, 대회 규정, 심사방법, 접수 방법 등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대회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는 것도 남겨진 과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팀들은 "경연대회를 위해 맹연습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찬불가를 수도 없이 부르고 또 부르며 부처님 말씀을 더욱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찬불가를 통한 음성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울산 노인전문요양원 '도솔천' 개원

기초수급자 무료로 이용
지역민에 시설 개방 예정

칠보로 된 궁전에 한량없는 하늘사람이 사는 곳 도솔천. 언양에 치매, 중풍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노인전문요양원 도솔천(원장 오세걸)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이 2002년 복지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후 5년 만에 문을 연 도솔천노인요양원은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일반 요양원보다 앞선 시설과 우수한 인력으로 노인들을 보살피게 된다.

특히 울산남구노인복지관 부장, 남구노인주간보호센터 소장 등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14년 여 동안 활동해온 복지 전문가가 관장을 맡으면서 노인복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가겠다는 포부가 크다.

1500여 평의 부지에 연면적 543평의 도솔천노인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양, 한방 진료, 물리 치료, 작업치료, 운동 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명상, 야외 나들이, 목욕 등의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절차를 거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의 이용료로 일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입소 희망자를 받고 있는 도솔천노인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뿐 아니라 한 때 민원을 제기했던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시설내 목욕탕을 개방하고 요양원의 각종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늘여나감으로써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052)263-3080

천미희 기자

약사여래불 점안 및 만다라展

울산 영축사(주지 각문)가 5월 1일 약사전 약사여래불 점안 의식과 함께 티베트 만다라 200여점을 일반에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는다.

4년 전 창건된 영축사는 티베트 만다라, 탱화 등을 선보이는 상설 전시장을 열어 진리의 세계를 구현해놓은 만다라의 세계를 일반에 알리고 생활과 수행이 분리되지 않는 티베트의 불교문화를 한국불교에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055)381-6631

천미희 기자



혜총 스님 <새벽처럼…> 출판기념법회 성황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의 저서 <새벽처럼 깨어있으라>의 출판기념법회가 4월 17일 열린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렸다(사진). 감로사 신도회가 주최하고 <새벽처럼 깨어있으라>를 펴낸 도서출판 부다가야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뭇 인연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스님 1백여명, 기관장 불교계 단체장 등 이날 참석한 1천여 불자들에게 혜총 스님은 저서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새벽처럼 깨어있으라>를 보시하고 저녁 공양을 대접했다. 이 자리에서 법어에 나선 고산 스님은 "자운 스님을 40여년 시봉한 혜총 스님의 정진력은 이시대 수행자들의 귀감이 된다"고 찬탄했다.

혜총 스님은 "<새벽처럼 깨어있으라>를 읽는 불자들이 무상한 삶에서 무상치 않음의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을 따라 수행 정진하는 불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부처님 아래 모두가 하나

부산 홍법사에서 만난 대만 · 한국 불자들

4월 18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공양간이 시끌벅적하다. 중국어로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와 함께 기름진 음식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대만 불광산사에서 온 승만서원 회원 25명이 중국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홍법사 대중들에게 저녁 공양을 대접하겠다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현지에서 가져온 재료들에 보태 한국시장에서 장을 봐 온 먹거리로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승만서원은 35세 이상 50세 이하의 미혼 여성들로만 구성된 불광산사 내 교육과정으로 승만부인처럼 불법을 널리 펴겠다는 서원을 가진 모임이다.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서 첫 달과 마지막 달을 불광산사에서 보내고 둘째, 셋째 달은 해외를 돌며 각국의 불교문화를 익히고 대만의 불교를 전하며 공부를 이어간다.



대만 불광산사 승만서원 회원들이 중국 소수민족 춤을 선보이고 있다.

승만서원, 교육 일환으로 홍법사서 불법 홍포
양국 음식 나누고 공연 즐기며 마음 공유

해외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불광회 부산지부인 홍법사를 방문해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동안 머물게 되는 승만서원 회원들이 한국 불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홍법사에 머물며 다도, 발우공양, 천연 염색 등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한편, 평범한 한국 사찰의 일상을 접하고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등 삼보사찰을 순례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내는 중이었다.

승만서원이 대만 음식을 접대하겠다고 나서자 홍법사의 보살들도 오색칠절판, 수삼냉채, 감자크로켓, 나물 등을 대접하겠다고 나서 저녁공양은 법당 앞에 뷔페식으로 한상 가득 차려졌다. 승만서원이 만든 쌀국수와 대나무잎밥은 눈 깜빡할 사이 동이 났다.

저녁공양 후에는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홍법사 어린이들의 사물놀이로 흥을 돋우며 시작된 문화 공연은 승만서원의 중국 소수민족 춤, 홍법사 신도의 가야금 연주, 승만서원 회원의 독무, 김진홍 전통춤연구회 회원인 수월심보살의 대금과 한량무 등이 번갈아 이어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날 공연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각사 스님과 승만서원을 인솔하고 온 묘가 스님 등이 참석해 양국의 문화 공연에 박수를 보냈다.

승만서원의 황려옥 씨는 "한국 불자들의 친절함과 밝은 모습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전통춤과 아이들의 공연이 신났고, 음식 맛도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홍법사 법혜심 보살은 "대만 불자들이 한국 불자들에 비해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것 같다"며 "서로 다른 나라에 살지만 부처님 제자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음식도 함께 만들고 나눠 먹고 문화 공연도 함께 하니 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대만, 나라는 달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낀 이날 행사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무리됐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은 환성영각을 복원 중창하고, 300년전에 조성했던 환성지안 스님에서 근대 혜봉스님에 이르는 21조사의 진영을 새로 재현해 봉안했다.

최초 비구니 강원에 국내 최대 영각 복원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불사회향 …21조사 진영 봉안, 봄·가을에 다례

상주 남장사(주지 종호)의 산내암자인 관음선원(감원 정원)은 4월 15일 환성영각 복원중창불사 회향 및 21조사의 진영 봉안식을 봉행했다. 관음선원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이 들어섰던 곳으로 이날 복원된 영각은 24평 2층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다.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과 전 조계종 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정각사 주지)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하는 가운데 명종과 테이프 컷팅식에 이어 영각에서 진영봉안식이 관음전에서 불공, 조사 영반이 각각 봉행됐다.

환성영각은 환성지안(1664~1729)선사로부터 혜봉(1874~1956)선사까지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온 21명의 역대조사 진영을 모셔온 진영각으로 1704(숙종30)년에 신축됐으나 원형 보존에 장애가 있어 前 남장사 주지였던 성웅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복원불사를 회향하게 됐다. 또, 21조사의 진영 역시 도난 · 훼손되는 아픔을 겪으며 사진으로만 모셔왔던 것을 관음선원이 출가사찰인 광우 스님의 원력으로 재현 봉안하게 됐다.

정면4칸 측면2칸의 환성영각은 24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일반적인 진영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21조사의 진영은 석명룡(국가문화재수리기술자 제377호)단청장에 의해 자료수집과 복원조성방법 연구 등의 과정을 거쳐 2년여의 시간동안 복원 조성됐다.

관음선원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불교의 초석을 다진 혜봉 선사가 조실로 있으며 20여 년간 납자를 지도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관음선원에 설치됐던 최초의 비구니 강원은 비록 일제 정신대 징집의 압박으로 4년만에 문을 닫았지만 1943년 화산 수옥 스님 아래 최초의 비구니 강원졸업식이 거행됐었다.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이날 "후학들이 환성영각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큰스님들의 가풍을 이어받아 정진해야 하는데 다소간의 장애가 있었으나 광우 스님의 각별한 외호원력과 정원 스님의 원력으로 오늘을 맞게 되었다"고 치사했다.

남장사 주지 종호 스님은 "환성지안 선사를 비롯해 조선 영 정조 이래 이름 없이 불법을 이어온 21분의 역대 조사 스님을 모시는 이 의식이야 말로 후손으로서 뜻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관음선원이 출가사찰인 광우 스님의 소회는 특히 남다르다. 부친인 혜봉 스님 옆에서 공부를 하러 왔다가 출가인연을 맺고, 첫 비구니 강원이 열렸을 때 수옥 스님으로부터 모든 경전을 두루 수학했다.

"옛날에는 2층 영각의 진영 밑으로 난창을 활짝 열고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 진영의 조사스님처럼 되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지요" 과거를 회상하던 스님은 이제 많은 후학들이 이곳에서 다시 성불의 원력을 키워갈 것이라며 기뻐했다.

정원 스님이 부임한 이후 발족한 영재회원 50여명도 새롭게 중창 복원된 영각에서 21조사를 모시며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은 매년 음력 3월 18일과 10월 18일 21조사의 진영을 모시고 다례를 올리며 수행정진 원력을 이어나간다. 글 · 사진/상주=배지선 기자

대구 봉축탑 점등…축제 시작!

4월 15일 오후 7시, 1000여 명의 대구시민과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이 지혜와 광명의 불을 밝혔다(사진).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천태종 대성사 주지 직무대행 보광 스님,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장 법운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진산 정사 등 불교계 인사들이 13명의 동자승과 점등을 하는 순간 가림막이 내려지고 석가탑과 같은 크기로 조성된 봉축탑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사회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발원하는 찬란한 빛을 발했다.

봉축위 주최로 오후 4시부터 열린 봉축탑 점등식은 컵등시연과 페이스페인팅, 소원지 달기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사물놀이, 그룹사운드, 난타, 중창단, 영산재 등의 식전 공연으로 대구시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됐다.



배지선 기자

금오복지관 자선음악회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은 개관7주년을 기념해 4월 28일 오후 7시 30분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LG와 함께하는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복지사업의 파트너 LG경북협의회와 함께 여는 자선음악회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의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펼쳐온 사업을 점검해 더욱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불교방송 부처님오신 날 특집공개방송으로 꾸며지는 이번 음악회에는 국악인 김영임, 인기가수 김범룡과 크라잉넛, 모듬북 공연으로 유명한 품바 김규형, 지연스님 등이 출연해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054)458-0230 배지선 기자

대구 경북 봉축음악회 풍성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음악회가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서 열려 불자들이 연일 풍성한 불교음악과 문화의 향연에 젖어들었다.

4월 17일에는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대구경북불교음악협회(회장 이달철) 주관으로 '불기 2550년 불교음악대축제 찬불가 합창의 밤'이 개최됐고, 18일 저녁에는 관오사(주지 지도) 선정합창단과 함께하는 바리톤 임익선 독창회가 열렸다. 또, 22일에는 성주 선석사(주지 선문)에서 가수 이용과 도신 스님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펼쳐졌다.

지역 불교합창단의 음악적 교류와 수준향상을 위해 열린 '찬불가 합창의 밤'은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지역의 불자와 시민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대구불교대학 합창단, 송림사 법희선열 합창단, 죽림사 포항불교대학 합창단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8개 합창단이 참가해 주옥같은 찬불가를 소개했고, 불로사 룸비니 소년소녀 합창단과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이 특별 출연해 멋진 공연을 펼쳤다.

배지선 기자

대경불교언론인회 정기법회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회장 송병국)는 4월 16일 대구 가창 운흥사에서 2006년 첫 가족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장적 스님과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불자,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운흥사 주지 종운 스님은 "지역의 언론에 종사하는 불자들이다 보니 밖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입력해왔을 것이라며, 절에 와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면서 자신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법문했다.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는 언론인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기 위해 연 4회의 정기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개관 5주년 기념 체육대회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4월 30일 황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불국다보회와 공동주최로 '개관 5주년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동화사 아미타후불탱 등 시문화재 지정

향후 예산 투입 정비 계획

대구시는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팔공산 동화사의 아미타후불탱 3폭과 보조국사진영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52호와 53호로 각각 지정하는 등 16건의 중요문화유산을 대구광역시문화재로 4월 20일자로 지정했다.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대구광역시문화재에는 불교문화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팔공산 동화사의 대웅전 삼장탱과 부도암 신중탱, 죽암당대선사 선찰진영이 시 문화재자료 제37, 38, 39호로 지정됐으며, 달성군 유가면 소재사 대웅전과 목조지장보살좌상이 문화재자료 제43호와 제44호로 각각 지정됐다. 또, 지난 99년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지석묘 하부구조 38기, 관련 유구 3기 등 총41기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된 상동 지석묘군과 달성군 화원읍 소재 화장사와 사찰인근에 소재하는 천내리 지석묘군 8기 등은 대구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이번 지정으로 모두 178건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지정된 문화재들중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투입해 정비를 실시하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부처님오신날, 나눔잔치 펼쳐요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 및 대구광역시 신도회(회장 장영관)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대구 반월당 보현사 옆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연다. 자비의 전화(회장 고경순)는 28일 오전 11시 지산복지관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맑고 향기롭게는 5월 3일 동대구 지하철역에서 자비의 떡 나누기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현문스님 불신임 결의서

1) 영축산문의 수행가풍을 사자상승하지 못하였다.

2003년 12월 영축총림 방장이시던 월하대종사께서 입적하시고, 영축총림은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총림방장이 유고되었으면 산중총회를 통해 방장을 추대하고, 그 위엄을 사자상승하여 영축산문의 수행가풍을 진작하고 총림설치의 목적을 다하여야 했다. 또한 총림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임회를 중심으로 총림발전에 진력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문스님은 주지임기와 직무연장에 급급하여 방장을 추대하지 않았고, 스스로 어른으로 자칭하며, 종단과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큰스님의 위업과 그 자취마저 없애버리는 중대 결과를 가져왔기에 축산문도로서, 노천상좌로서의 제자 됨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총림주지로서 중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2) 총림대중이 추천한 방장후보를 사퇴시키고, 방장추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지난해 8월 22일 영축총림 산중총회에서 추천한 총림방장후보를 11월 종회에서 추대하지 못하고, 3월 종회에서는 종회에 계류 중인 방장추대 건마저 철회하여, 2년여 간의 총림현안이던 방장추대는 그로써 종결되고 말았다. 따라서 그간의 방장추대는 주지직대의 직무연장을 위한 허언장담이였고, 더욱이 방장 서간문을 사퇴서로 발표하고, 영축총림 혼란과 총림존립 위기를 야기하였음으로, 이 또한 명백한 주지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3) 방장후보 사퇴발표에 관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3월 9일 오전 방장후보사퇴가 언론에 발표되고, 통도사 종무소로 기자들의 확인전화가 오자, 총무국장이 방장실로 찾아가 후보사퇴를 문의하였으나, 방장스님은 "후보사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주지직무대행과 통도사 종무소가 후보사퇴 정정보도를 위한 대책수립을 했어야 하나, 종무소도 그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았고, 주지직무대행은 사퇴발표 후 태국으로 잠적하여, 총림 중요 현안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4) 종단원로의 명예와 통도사 위상을 실추하였다.

방장후보사퇴 조작발표와 방장후보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통도사는 대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는 양대문중 원로와 중진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지직대까지 추천했던 방장의 신의를 배신 폄하하고, 종단원로로서의 명예를 실추케 한 것이고, 영축총림 위상과 통도사 재적대중의 명예를 손상한 중대한 사실이기에, 종법상의 주지직무유기이자 바라이죄에 해당할 것이다.

위와 같이 현문스님은 주지직무대행으로서의 소임을 방기하고, 종단원로이자 방장후보자이신 초우스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희생시키면서, 통도사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한편 장기 집권구도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종단과 종도를 호도하면서, 총림 정진대중과 재적대중의 공의를 무시하였고, 영축총림 존립위기마저 가져왔다. 또한 총림중진들을 차기 직무대행자로 추천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중진들마저 희생시키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제 모든 것이 위계에 의한 방장후보사퇴 조작과 주지 직무연장을 위한 음모로 밝혀졌기에 현문스님의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불신임」을 결의하고, 새로운 주지직무대행을 추천하여, 영축총림 통도사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불기 2550년 4월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비상대책위원회 의장 목 산

백양사 대웅전 삼존불 봉안

"신라-섬세, 백제-아름다움, 고려-당당함 표현"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 대웅전에 새로운 부처님이 오셨다.

4월 20일, 사부대중 1000여명이 석가모니불과 문수, 보현보살을 좌우보처로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한 것이다.

이날은 백양사 대중들이 모여 불, 보살과 제대조사에게 햇 차를 공양하는 곡우날이었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과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이 증명법사가 되어 삼존불을 점안하고 다례의식을 가졌다.

이어 열린 삼존불 봉안불사 회향법회에서 주지 두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부처님 조성으로 총림위상과 가풍을 일신하고 불자는 물론 만인의 귀의처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불 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법어에서 "불, 보살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면목을 나타내는 것이다"며 "지난밤 곡우비에 세속의 때가 씻기듯이 부처님 봉안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 본래자성을 찾자"고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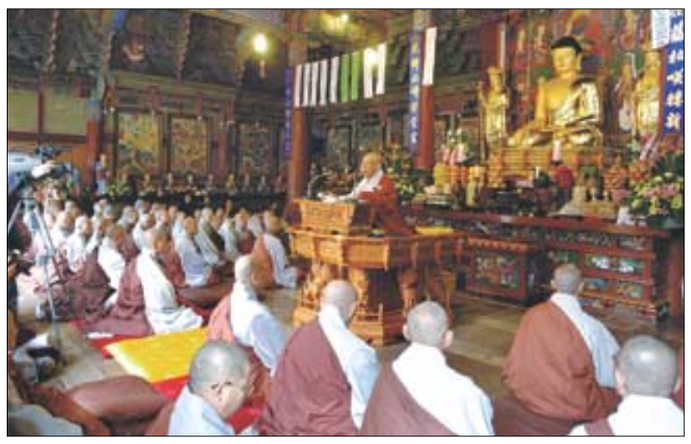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도 발원문에서 "영원한 중생의 복전이 될 삼존불 봉안으로 사회대중이 화목하며, 모두가 보리심을 발하여 불국토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백양사 대웅전에 봉안된 본존불은 금, 은을 합금한 청동불로 높이 6자(180cm), 폭 4자(120cm) 크기이며 협시보살은 높이 5자(150cm) 크기이다. 삼존불에는 사리, 경전 등 전통양식의 복장물과 이 시대를 반영하는 대표적 물품으로 복장하여 후대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도록 했다.

또한 백양사는 삼존불 봉안과 함께 수미단, 닫집, 탁자 등을 법당과 불상 크기에 맞춰 새롭게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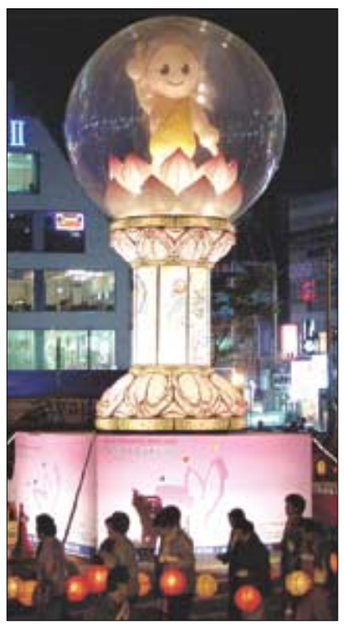
삼존불을 조성한 불모 이진형(무형문화재 6호)씨는 "석가모니불은 신라불상의 섬세함과 백제불상의 아름다움, 고려불상의 당당함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했으며, 협시불은 백제보살상의 역동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백양사는 1982년 조성한 대웅전 좌불이 법당 규모에 비해 너무 크고 부식으로 예경하기가 어렵게 되자, 2005년 6월부터 삼존불 불사를 시작해 이날 회향했다.



4월20일 봉행된 백양사 삼존불 봉안법회에서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이 법어를 내리고 있다.

글 · 사진/백양사=이준엽 기자



불 밝힌 '빛고을 아기부처님'

광주사암련, 28일 연등축제

광주불교 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지난 4월 15일 옛 도청앞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등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광주전남 봉축위원 몽산 스님(대흥사 주지)을 비롯한 사암 스님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광태 광주시장 등 지역기관장, 시민, 불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엽 기자



청주엔 '코끼리 탄 부처님'

청주청원 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각의)는 불기2550년 봉축탑 점등식을 4월 13일 청주 사직동 조형물공원에서 봉행했다(사진).

지역 스님과 불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불을 밝힌 이 지역 봉축탑은 구름 위에 아기코끼리를 탄 동자의 모습으로 구성됐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감성 울리는 꽃과 신록의 향연

마곡사 4월 29~30일 축제 '꽃이여 바람이여'

꽃과 신록,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제 3회 마곡사 신록축제'가 4월 29~30일 양일간 충남 공주 마곡사 및 입구상가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다.

'꽃이여 바람이여'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산사음악회외에 걷기명상,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먹그림 교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4월 29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초청법회로 시작되는 신록축제는 심진 · 도신 스님과 방실이, 부부듀엣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로 고즈넉한 산사의 밤을 수놓게 된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하유스님과 임원식, 이영빈씨가 출연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인 30일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민속놀이 한마당과 경로잔치를 연다. 또 오후에는 마가 포교국장 스님의 지도로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태화산 걷기명상 등이 펼쳐진다. 이번 축제동안에는 경찰병원의 의료봉사와 함께 희망의 솟대만들기, 먹그림 교실, 즉석 디카 촬영대회, 페이스 페인팅 그려주기 등 이색 이벤트도 마련된다. (041)841-6221

김주일 기자



강진 무위사 성보박물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불교벽화 전문박물관 문열어

강진 무위사, 불보살 벽화 29점 전시

강진 무위사(주지 종범)는 지난 4월 15일 국내 유일의 벽화전문 성보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 등 사암 스님과 이영호 국회의원, 황주홍 강진군수 등 지역기관장, 주민, 신도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주지 종범 스님은 인사말에서 "30년전 해체된 벽화를 보존각에 보관했으나 낡고 협소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첨단시설을 갖춘 벽화전문 박물관을 마련해 성보를 보전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벽화 성보박물관은 연건평 218평, 2층(지하 1층 수장고, 지상 1층 벽화전시실) 구조로 총 사업비 3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착공 4년만에 준공됐다.

박물관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목조기와 구조로 외형은 산이 겹쳐진 모양을 본떠 형상화했다. 벽화 성보박물관에는 1974년 극락보전 보수 과정에서 나온 아미타불후불벽화(보물 제1313호), 아미타래영도(보물 제1315호), 석가여래설법도, 해수관음좌상도 등 불보살 벽화 29점과 상량보 1점이 전시되고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천천마한클럽 장학금 전달

청소년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천천 마한클럽(대표 혜산)은 4월 15일 익산 용화사 큰법당에서 '2006학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중고생 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올해로 5회째 맞은 이날 천천클럽 장학금 수여식에서 혜산 스님은 "학창시절 힘든 생활도 공부이다"며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꿋꿋이 살아가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천천 마한클럽은 한달에 1000원을 후원하는 1000명의 모임으로 매년 지역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선행학생들에게 월 5만원씩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방, 개국 11주년 축하공연



광주 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개국 11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0일 광주 시민회관에서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을 개최했다(사진).

공연에 앞서 이상진 사장은 인사말에서 "불교계는 물론 서민들의 고충을 살피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4·19 민주영령추모 영산재

4 · 19혁명 희생자 영령추모 영산재가 지난 4월 18일 광주공원에서 열렸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와 4 · 19문화원이 마련한 이번 영산재에서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은 추모 법어를 통해 "민주혁명 열사가 정토세계에 나기위해서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불교사암연 회장 혜향 스님도 추모사에서 "4 · 19는 시민들이 부패한 정권을 물러나게한 민족 최초의 시민혁명이다"며 "민주주의를 지킨 영령들을 추모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광주영산보존회(회장 혜령 스님)가 민주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작법을 시연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청주 화장사, 가침박달꽃 축제

충북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침박달나무 숲에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다.

청주시 상당구 화장사(주지 무진)는 제4회 가침박달꽃 축제를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봉행한다. 이번 축제는 29일 오후3시 '제4회 가침박달 가요제'를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5월 1일 오전 11시에는 '꽃과 차와 전국 다인의 아름다운 인연'이 2일 오전 11시에는 '환경미화원과 함께하는 위안잔치'가 펼쳐지며 부처님 오신 날인 5일 오전 10시에는 봉축법요식이 봉행된다. (043)255-5758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간화선을 말한다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禪,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스님이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간화선의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간화선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실참을 지향하는 수행자의 삶이 선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看話正路
간화정로

글 월암月庵 | 양장본 512쪽 | 18,000원

월암月庵
· 도문화상을 은사로 중생사 출가
· 북경대학에서 〈돈오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취득
· 중국 진여선사, 백림선사, 남화선사, 천동선사 등 선원에서 선칠禪七 안거
· 백양사, 화엄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
· 동국대학 선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지도
· 現.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

현대불스 (02)2198-5151 (051)244-1251
좋은기획 좋은디자인 좋은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회 구성

교육·포교·복지 대폭 손질

北에 온실지원 작업 착수
통리원 안에 문화센터 건립

진각종이 5월초 창종6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해 교육과 포교 및 복지분야 등 종단의 전방위 분야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기념사업회는 우선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김인수 기획행정처장, 조남일 전국신도회 총무 등으로 구성된 준비모임을 통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한 뒤 4월 26일 열리는 진각종 스승총회에서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 기념사업회는 대략 실무간사를 포함해 6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가 추진할 계획중 눈에 띄는 것은 대북사업의 일환인 북한 협영농장 운영건이다. 진각종은 연내로 협영농장의 전단계인 온실지원 작업에 착수한다. 북한 만경대 건너편 두루섬 부지 10만여평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온실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진각종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 비닐하우스 공사에 필요한 파이프와 비닐 등 공사 자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통리원안에 불교문화센터도 건립된다. 종도들이 통리원을 찾아와 불공이외에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기족과 이웃 포교의 해'로 정한 종단의 포교방침과 맞물려 경주에 있는 산내 연수원을 재정비해 주말수행센터로 탈바꿈시키는데도 진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념사업회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진언, 찬불가 등 진각종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리의 통일화 작업을 올해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각종의 한 관계자는 "기념사업회의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은 5월중순쯤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기획국의 예산에 기념사업회의 예산도 편성해 놓아 별도로 예산편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법륜종 5대 총무원장 고산 스님 취임법회

한국불교법륜종은 4월 20일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제5대 총무원장 고산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정각 스님, 사정원장 혜우 스님을 비롯하여 종단임원 및 종도, 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전 종도가 화합해 한국불교의 중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일붕선교종 8대 총무원장 법우 스님 취임법회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4월 19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제 8대 총무원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종단임원 및 종도와 불자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8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법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 창종주인 일붕 큰스님의 가르침을 한시라도 잊지않고 계승 발전시켜 전종들의 단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삼룡사 합창단 4월26일 창단 연주회

천태종 삼룡사는 4월 26일 오후 7시 중랑구민회관에서 합창단 창단연주회를 봉행한다.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도 참석할 이번 음악회에서 삼룡사 합창단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경사로다' 등 9곡을 음성공양 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삼룡사 풍물단과 국악인 이주희씨가 찬조 출연한다.

정종해 단장은 "10년전부터 합창단이 결성돼 사찰내 법회 행사에만 참여해 왔는데 이번 정식 창단을 계기로 외부 행사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496-3839 김주일 기자

천태종 결식아동 릴레이 후원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은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후원자 3명이 1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결식아동 3:1 릴레이 후원 사업'을 진행한다.

후원금액은 1만원~3만원이며, 후원금은 사찰 인근 학교 빈곤지역의 초중고교 결식학생들에게 급식비로 전달된다. (02)575-3467 김주일 기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군포교 보시금 전달

통합병원 주지법사 위촉 앞장서기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왼쪽)이 4월19일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에게 보시금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모금을 통해 모은 보시금 1,260만원을 군포교에 써달라며 4월 19일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1260만원은 명성 스님이 군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며 500만원을 희사하자 스님의 뜻을 이어 운문사 대중이 500만원, 운문사 삼직 스님과 중강 스님이 140만원, 운문사 학인스님들이 100만원, 운문사 문수선원 혜은 스님과 용운문 주지 성호 스님이 각각 10만원을 기탁해 모아졌다.

명성 스님은 "군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작은 돈이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마음이 모아진 소중한 보시금"이라며 "향후 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군포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성 스님은 "비구니회 회장 스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니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서는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에게 전국 15개 통합 병원에 비구니 스님을 주지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 15개 통합 병원에는 의무사령부 의왕사에 유일하게 군법사가 배치되어 있을뿐 나머지 통합 병원 군법당은 군종병조차 없는 실정이다.

명성 스님은 "이미 각 사찰에 공문을 보내 군병원 주지 법사를 모집하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몸이 아파 군생활을 못하는 장병들의 약사보살이 되어 군포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금강경으로 마음에 평온을"

송강 스님 금강경 테이프·책 기증



장수 봉화산 도성암 주지 송강 스님(사진)은 4월 20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지가 펼치는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이 제작한 금강경 염불테이프 2,000개와 선문출판사에서 출간한 <금강경> 400부를 보내왔다.

송강 스님은 "포교에 첫 발을 내딛을 때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는자는 현세에서 일체 번뇌망상과 괴로움을 여의고 내생에서 극락왕생케 해달라고 서원했다"며 "금강경을 듣고 군 장병들이 마음의 평온을 얻고 군생활 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강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 이후 예불과 천수경 등의 염불 테이프를 제작해 군법당에 보시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한편 스님은 또 금강경 테이프 1만개를 제작해 염불을 듣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테이프를 무상 보시하고 있으며 <금강경>(선문출판사 刊)도 자비로 500권, 한소리레코드사 유병직 사장의 보시로 500권 등 총 1000권을 구매해 염불테이프와 함께 법보시하고 있다. 011-362-9912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스님이 만든 군가는 어떨까

설봉 스님 현역 장병과 CD출반



도예가로 명성이 자자한 설봉 스님(사진)이 20년간 해병대 포교를 하며 느꼈던 삭막한(?) 군가를 대체할 군가를 작사 · 작곡했다.

5월 음반 발표를 목표로 작업과 연습을 병행하고 있는 설봉 스님은 국방 역사상 처음으로 12면의 현역장병들과 함께 그룹 '설봉 스님과 빨간 명찰들'을 결성해 군가를 노래한다.

설봉 스님의 신곡 군가는 타이틀곡 '길 없는 길을 따라 해병은 간다'를 비롯해 '조국에 바치는 해병의 노래' '해병 혼' '해병은 만들어진다' '해병대 입대할 때' '해병대여 영원하라' '해병 기질가' 등 7곡이다.

"이번에 제작한 군가는 일반 행진곡에서 진일보한 나만의 개성을 담았어요. 신세대 해병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부를 수 있도록 라틴계열의 경쾌한 리듬으로 작업했지요."

12명의 노래실력이 출중한 현역장병들을 뽑아 6개월 전부터 신곡 군가를 연습 해왔다. "20~23세 젊은 아이들 속에 불교의 힘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 작업을 했다"는 설봉 스님은 "불교를 내세워 포교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불교를 느끼게 할 때, 불교의 힘을 느끼게 할 때 포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의 포교론을 펼친다.

도예로 유명한 스님이 작사 작곡 했다는 것이 신선하다는 질문에 스님은 "어렸을 때 출가하려고 하니 재주가 너무 많아 안 된다고 어른 스님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면 안되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재주를 대중들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매달려서 간신히 출가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음반을 내기위해 군부대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설봉 스님은 "음반이 나오면 신병훈련소와 백령도 등 해병대가 있는 부대에 직접 다니면서 공연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제료:銅) 문의:02-2004-8291

한국불교 근 · 현대사의 산증인 석주큰스님 학술세미나

석주스님 학술세미나 초청장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석주당정일대종사께서 육신의 탈을 벗으신지 어언 2개 성상에 접어듭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셨고 역경불사와 불교발전 그리고 포교활동에 평생을 헌신하신 큰스님의 업적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후학들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뒤늦게나마 18년간 조실로 주석하셨기에 봉은사에서 그 장을 만들었습니다.
종단의 원로 · 대덕 큰스님과 평소 큰스님을 흠모하셨던 각계의 여러분을 모시고 뜻 깊게 봉행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0년 4월

석주스님 문도대표 월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혜 拜上



■ 주제 : 근 · 현대 한국불교의 산증인 석주큰스님
■ 일시 : 2006년 5월 1일(월요일) 오후 1시
■ 장소 : 봉은사 법왕루
■ 주최 : 봉은사, 불교신문사
■ 후원 : 중앙승가대학교, 석주스님 문도회

세미나 주제 및 내용

- 법 어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 발표 1 :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기조발제
- 발표 2 : 석주스님과 근현대 한국불교
  * 발표 = 김광식 박사
  * 토론 = 김선근 (동국대 교수)
- 발표 3 : 포교와 사회복지에 끼친 석주스님의 영향
  * 발표 =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 토론 = 능인스님(중앙승가대)

봉은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문의:02-3218-4801~5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안 왔으면 평생 후회할 뻔~ 했네”


‘장애인 세상나들이’ 참가자들이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각자의 발원이 담긴 연등을 밝혀,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정신을 실천했다.

‘장애인의 날’ 금강산 나들이 나선 불자 장애인들

유엔이 제정한 제26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불자 장애인들이 민족의 영산 금강산에 오르는 특별한 나들이를 다녀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장애인 세상 나들이’에 참가한 불자 장애인과 가족 40명은 4월 18~20일 북한 신계사와 금강산 구룡연, 만물상 등을 밟으며, 남북한이 하나 되기와 장애와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발원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와 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금강산 구룡연에 올랐다.

장애인, 세상 밖으로 나서다

“너무 설레요. 이렇게 멀리 나들이 가는 것은 난생 처음이거든요. 버스타고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질까봐 어젯밤부터 물도 안 마셨어요.”

4월 18일 아침 9시 서울 조계사 앞에 모인 불자 장애인들은 가족의 손을 잡고 버스를 오르며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경주, 영주, 제천, 강릉 등지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구로, 옥수, 신길 종합사회복지관 등 12개 복지관의 1~3급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날의 주인공이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무려 50만 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에 5번 이상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 날의 외출은 더욱 달디 달지 않았을까.

전날 밤잠을 설쳤을 것이 분명한 얼굴들이었지만,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을 향하는 7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잠을 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참가자들은 함께 여행에 나선 어머니, 부인, 남편, 자식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임동균씨(간질장애4급 · 경주시 황성동)는 “정말로 꿈은 이뤄지는 모양”이라며 “다음번에는 가족 모두와 함께 꼭 다시 오자고 하고 싶다”며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다.

이들이 북측 출입국사무소를 넘은 시간은 오후 6시였다. 첫날을 꼬박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보낸 참가자들은 해금강호텔에서 여정을 풀고 내일을 기약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등불 꺼지지 않고 온 누리에 비추길

20일 오전, 드디어 금강산을 본격적으로 관광하는 첫 날이 밝았다. 참가자들은 첫 일정으로 복원 불사가 한창인 신계사부터 찾았다. 아직 단청으로 장엄되진 않았지만 요사채와 대웅전이 들어서서 사격을 갖추기 시작한 역사적인 현장을 두 눈으로 본 참가자들은 연신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참가자들이 일반인의 보폭으로는 스무 걸음 남짓한 거리를 걸어 대웅전에 오르기까지는 30분이 족히 걸렸다.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는 계단 아래에서부터 장애인을 업고, 안고, 들어 올린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목덜미에 땀방울이 맺혔다. 목발을 짚고, 다른 사람의 손과 어깨에 의지해 오른 대웅전.

편마비로 인해 좀처럼 모아지지 않는 두 손으로 힘겹게 합장 삼배를 올린 전용언씨(뇌병변 2급 · 충북 제천시)는 “드디어 신계사 부처님을 뵙게 되니 정말 좋아요”라며 감격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화목’ ‘남북통일’ ‘언제나 건강하게’ 등의 기원과 가족이름을 적은 꼬리표를 연등에 걸며 발원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부인의 도움으로 연등을 밝힌 이계돈씨(시각장애1급 · 서울시 구로구)는 “비록 몸은 떠나도 신계사에 올린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올라 북녘의 부처님오신날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힘겨운 몸 이끌며 세상 위에 우뚝

셋째 날, 금강산 만물상에 오르기 위해 숙소를 나선 참가자들이 탄성을 질렀다. 전날 밤부터 내린 비가 밤새 눈으로 변해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우리마다 내려앉아있었기 때문이다.

“앞이 떨어져 바위가 드러난 금강산을 개골산(皆骨山), 눈을 이고 있는 금강산을 상악산(霜岳山)이라고 부른다는데, 저는 한번만 오고도 두 가지 모습을 다 봤으니 행운아인가 봅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쉽지 않을 텐데, 김용철씨(지체장애3급 · 서울시 구로구)는 긍정적으로 답하며 목발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다.

경주 영주 등 12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 40명의 희망 나들이 불사중인 신계사에서 등 밝히고 남북통일·차별 없는 세상 발원

직접 금강산에 오르고 싶었던 노옥선씨(뇌병변2급 · 서울시 성북구)도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등산길에 올랐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사찰도 많이 찾고 산에도 자주 올랐다는 노씨는 “이곳까지 와서 금강산을 구경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딸을 간곡하게 설득했다. 어머니가 다칠까봐 반대하던 딸은 이윽고 그 손을 꼬옥 잡고 좁디좁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때는 앞에서 끌고, 어느 때는 뒤에서 밀며 마침내 만물상에 오른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환히 웃었다.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행사 일정 내내 참가자 옆을 떠나지 않고 동고동락했던 지현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 이사)은 참가자들의 이런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세상과 만나는 기회는 장애인에게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소중한 것이지요. 그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재활의지를 북돋고자 매년 이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내년에는 모금을 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북한을 나서는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 희망과 용기를 심고 있었다. 장애인의 날도 어느덧 지났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켜진 희망의 등불이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고 타오르길 기원해본다.

글 · 사진/금강산=이은비 기자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두 발로 북한땅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장애인 세상나들이’ 참가자들이 북한 삼일포 흔들다리를 건너고 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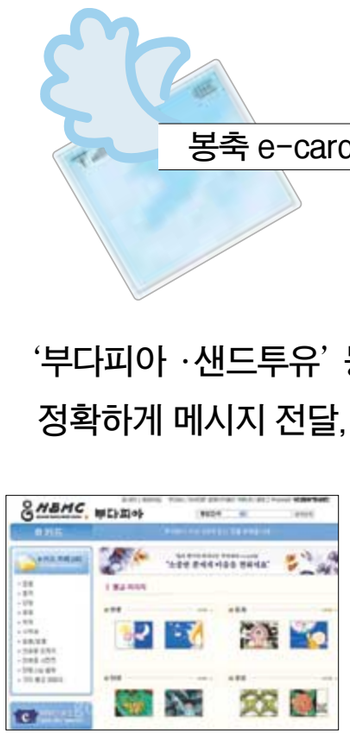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봉축 e-card로

부처님오신 뜻 함께 나눠요

‘부다피아 ·샌드투유’ 등서 다양한 카드 선봬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 새로운 신행수단 평가



부다피아 e-card 메인화면(사진 위)와 샌드 투유에서 서비스중인 봉축 e-card.

서울 양평동에 거주하는 주부 문경의(37)씨는 부처님오신날이면 어김없이 봉축 e-card를 보낸다.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는 것처럼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주변사람들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어서다.

평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때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백승호(32 · 경북 구미)씨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 이모티콘 문자메시지를 학생회 동문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여러명에게 동시에 보낼 수도 있고 부처님오신날을 도반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이 생활화 되면서 e-card, 문자메시지 등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았다. 특히 e-card와 문자메시지는 부처님오신날 등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어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e-card는 연하장과 같은 카드 형태로 발송되며 이메일만 알면 전세계 누구에게도 보낼 수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포탈 부다피아(www.buddhapia.com)는 자료 코너에서 e-card 서비스를 1995년 불교계 최초로 서비스해오고 있다. 연꽃, 동자, 단청, 꽃문, 부처, 수막새 등 10여개로 분류되어 100여종의 카드를 선보이며 봉축 등 불교 기념일과 생일 등 불자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카드 밑에 부처님과 역대 고승들의 법어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불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e-card를 전문적으로 보낼수 있는 샌드투유(www.send2u.net)도 봉축 e-card를 서비스하고 있다. 플래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4~5종의 카드가 부처님 등의 불교 이미지와 경전의 내용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종류는 많지 않지만 불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그 외에도 네이버 카페 허공을 걷는 길(http://blog.naver.com/jms5126?Redirect=Log&logNo=40013050161)에서 한마음선원이 2005년 서비스한 봉축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싸이월드 등의 불교 카페에서도 간간히 서비스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40자 내외의 짧은 문장을 주고 받는 문자메시지도 휴대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신행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 자판의 문자 · 기호 · 숫자 등을 조합해 감정이나 의사를 나타내는 표현법인 이미티콘을 응용한 문자메시지도 늘고 있다.

한통당 40원 내외의 경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신도회나 학생회의 소식이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도반들끼리 주고 받는 모습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winc77(web.winc7788.co.kr)은 문자나라 코너의 일반문자 내에 불교문자를 통해 다양한 이미티콘 문자메시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지데이(sms.ezday.co.kr)에서도 문자메시지 검색창에 불교 또는 부처님으로 검색해 보면 법구경 등의 법구 등과 봉축 메시지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낼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대부속여자중학교 김남일 교법사는 “최근 학생회원들 사이에 이미티콘 문자메시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부처님오신날 등 불교 기념일이나 학생회 소식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것이 지금은 보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오프라인엔 이런 봉축카드도 있어요

대구에서 기획사를 운영하는 불자가 입체 봉축카드를 만들어 봉축카드 보내기 운동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입체 봉축카드 앞 뒷면에는 만생명의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연꽃 속에서 튀어나온 동자승 캐릭터가 삶에 지친 팍팍한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다. 카드를 펼치자 끙끙대며 탑을 옮기는 스님, 노래하는 스님, 낮잠 자는 동자스님 등이 다양한 포즈로 겹겹이 펼쳐진다. 수많은 연꽃과 관세음보살님이 은은한 자태를 드러내며 다가오는 입체카드(사진)도 마음 밝히기에 충분하다. www.bulta.co.kr 배지선 기자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6

수동모드로 불확실한 초점 극복

카메라 기본 작동법 2

영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영상 촬영시 캠코더를 자동으로 설정해 놓고 촬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자동 촬영으로는 내가 원하는 영상을 촬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초점이 안맞아 영상을 쓸수 없다든지 하는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보다는 수동모드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촬영한다.

PD-150의 뒤편에 붙어 있는 AUTO LOCK 버튼을 수동모드로 조절하면 조리개, 셔터속도, ND필터, 화이트밸런스 등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

□ **조리개**

먼저 빛의 양에 따라 영상의 밝기를 조정하는 조리개는 초점심도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한다. 초점심도란 초점이 맞는 범위를 말하는데 피사체 뒤쪽의 어떤 지점에서 앞쪽의 어떤 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측정한다. 초점 심도는 조리개와 초점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리개를 열면 초점 심도가 작아지고, 조리개를 닫으면 초점심도가 커진다. AUTO LOCK 버튼 아래에 있는 IRIS 다이얼을 돌려 조리개를 조절한다.

□ **셔터속도**

셔터속도도 AUTO LOCK 버튼 아래에 있는 SHUTTER SPEED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속도를 선택한다. 셔터 속도를 높이려면 작은 값을 선택하면 된다. 셔터 속도가 낮을 때는 초점이 잘 안 맞을 수 있고 형광등 또는 백열등 아래서 촬영할 경우 셔터 속도에 따라 스크린이 밝게 빛나는 플릭커 현상이 간혹 나타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 **ND 필터**

ND 필터는 장면의 밝기를 낮게 조절할 때 쓰는 렌즈다. 렌즈의 입사광량을 전파장 대역에 걸쳐서 균등하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피사체가 너무 밝으며 조리개 만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하는데 초점 심도를 가능한한 변화시키지 않고 촬영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한다.

또한 피사체의 배경을 뭉그러뜨려 입체감을 강조하고 싶을 경우, 조리개를 약간 넓게 개방하고 ND 필터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LCD 스크린이나 뷰파인더에 ND1 또는 ND2 사인이 들어올때 캠코더 좌측 랜즈부분에 붙어 있는 ND FILTER 버튼을 해당 지시에 따라 조정하면 된다.

□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밸런스는 하얀 피사체를 하얗게 보이도록 해주며 캠코더 녹화의 컬러 밸런스를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 주로 자동으로 조정되나 실외에서 녹화하거나 광도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 수동으로 조정하는 편이 더 낫다.

AUTO LOCK 버튼 아래에 있는 WHT BAL 버튼을 누르고 캠코더 앞에 흰색 종이를 대고 화이트를 조정한다. 한번 조정된 화이트 밸런스는 어떤 조명하에서도 동일한 컬러로 녹화됨으로 수동일 경우 조명에 따라 항상 조절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 전체가 붉은색이나 푸른색으로 촬영되어 녹화된 영상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범주스님 친필 달마도액자

40여년동안 참선과 달마도 선묵화에 정진해 온 범주 스님의 축원을 담은 친필 달마도.
소장하기 좋게 표구한 것으로 선의 정신을 전달하여 정서적 갈등과 불안을 치유한다.
구성: 범주 스님 친필 달마도 액자
전신 달마도 접시
순금 카드 4종
가격: 190,000원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의 품위! 만사형통의 영험!


높이88cm 가로58cm

점안불공과 축원불공 카필라 용어해설!
점안불공은 불교의식으로 부처님, 불상, 불화, 법구, 공양구등에 영험을 넣어 영험이 나타나게하는 불교의식이며, 축원불공은 법구 또는 공양구등을 사용하는 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는 의식이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하고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명칭이다.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점안불공의 영험 축원 불공의 소원성취!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패하기만 하던 재판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틀린 왁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돌출표구로 거실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배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 195,000
문의: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관세음보살 영험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놀라운 영험!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밤색)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점안불공을 마친 평생 부자지갑

쌍춘절이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섬세하게 꾸며져있고 색상도 은나노 진보라색이라 세련된 최고급 지갑으로 안되
던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돈을 버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용어해설!
점안불공은 불교의식으로 부처님 불상, 불화, 법구, 공양구등에 영험을 넣어 영험이 나타나게 하는 불교의식이며 축원불공은 법구 또는 공양구등을 사용하는 분의 소원이 성취되게하는 의식이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실전구성학
단기 속성 완성
- 운명 운세 방위학(개운 비법)
- 특별한 암기법
- 알기쉽게 풀이한 명강의
- 3인 이상이면 지방 출장 가능

백도현 구성학
011-9735-1742(서울)

천도재, 사찰행사, 불공, 전통의식 여법하게 집전
(밀양 강정사 음성공양회)
055)391-3274
011-869-8560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49재	륙	시		물	전
식		재	식		춤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네팔 히말라야 석청
효과확실 100%보장
효과없을시 100%보상
치료나 장사하실분 모십니다
010-6541-0309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종무소에서 일하실 사무직보살구합니다
(PC가능자, 법당에서 일해본 경험자)
보수 : 100-150만원
031)559-0891

법력 20년이상된 부전스님과 총무스님으로 20년이상 근무하신 스님 모십니다
종무원 및 사무원(女)구합니다 (각1명) (절에서 3년이상 근무하신분, 숙소제공 가능)
사찰 백련사
031)559-0892

4월 초파일 봉축 행사해 드립니다
암자나, 사찰 연락부탁드립니다
비구승
017-571-5599

사찰女사무원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45세이하)
041)673-1888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52)243-3881

화주보살님모십니다
활동력있는 사무장 구함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화주보살님모십니다
포교원 개원 및 운영을 함께 하실 처사님,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조계종스님
051)621-0530

기도정진하실 비구 및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공양주 보살님 및 처사님도 찾습니다
011-9803-6301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053)632-4844
053)641-4844

산세 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실 처사님 보살님들은 연락바랍니다
052)254-5125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경기도 여주
011-259-5989

비구부전스님
불심돈독하고
pc(엑셀)가능한 50세이하
女종무원 구합니다
061)352-8097
019-320-9926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연등 국제 선원
내외국인 참선 수행 도량
032)937-7033
011-9554-356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행자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행 자 모 집
(남녀불문,50세미만)
출가에 뜻이 있는 분 모십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종정큰스님 추석사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대인사
전화055)375-2076/7
011-565-664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0~50대)
단정하고 깔끔하신분
011-828-3618

법랍12년 된 착실한 기도스님(비구)입니다
기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 포교당은 연락주십시오
010-3999-0075

부산지역의 불교전문 도우미와 출퇴근 가능한 공양주 모십니다
- 불교도우미 자격: 신심이 깊은 40~50대 신도이면 누구나 가능함. (월 200이상)

010-4742-5848 주지스님

화주보살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010-9479-831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지리산 법화선원
055)883-7257
011-838-7257

산사에서 함께 생활하실 불자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011-9571-6479

비구니 되시고 싶은분을 기다립니다
40세 미만
011-727-151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지역
055)854-5205

공 고

삼화불교신문 2006년 4월 7일자 제25호 3면 입종사찰안내란에 **"오봉사-효란스님"**의 입종기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으므로 입종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제1기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중앙회관)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지방분 환영 ●포교활동 하실분 ●스님동참환영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립 ●전국만행 ●맨발등산 하실분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신행단체 특강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공, 생일불공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서울739-5008 부산635-7008 마산245-2662 상담은 중요합니다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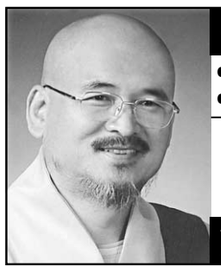


"고급" 1자 지장보살(청자 · 백자) 1,000불 저렴하게 드립니다
※ 한정판매 300불 이상 선착순
- 높이: (좌대포함) 약 34cm ● 넓이: (가로) 약 14cm
- 가격: 1불당 12,000원
- 요장: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 판매 연락처: 042)282-2334 016-606-5658

수강회원모집
◆ 周易原典講座 개강 ○ (수) 오후 7시~9시 – 4월5일개강(주역 계사전) ○ (수) 오전 11시~1시 – 5월3일 개강(주역입문)
◆ 중용(中庸) 개강 ○ 매주 (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 4월5일 개강
◆ 논어(論語) 개강 ○ 매주 (목) 오후 7시~9시 – 5월 4일 개강
◆ 월 수강회비: 주역 7만원, 기타 6만원
(사)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www.dongbang.or.kr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반,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학인(염불)스님. 행자승 모집
재(齋)의식. 염불(각단불공)을 배우고저 하시는 스님. 전법사, 천도재의식. 상단불공. 관음불공. 지장불공. 신중불공. 조왕. 산신불공. 용왕불공. 칠성불공. 삼재풀이불공. 시식. 목탁. 법고. 태징. 사물 다루는법을 성심 성의껏 기초부터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특히 스님이 되고싶어 출가를 결심하고 망설이고 계시는분 환영합니다. 문의 하십시요!
(원하시면 득도후 행자 기간을 거쳐 순천 선암사 강원이나 동방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보사 주지 석경보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문의전화 051)364-4889 / 0502)364-4889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악간명

원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안에 모든것 원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명당(부귀복덕)적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지하철 1호선 7호선 7-10분 거리
- 대지 184평, 건평184평
- 2Km이내 중산층(아)5만세대 중,고교18 · 초등13곳
- 포교당 최적, 시가 17억원

연락처: 011-9646-1990

자비정토타운 안내
- 부처님과 늘 함께 살고 싶다.
- 물과 공기좋은 자연속에서 살고 싶다.
- 나만의 수행 공간을 갖고 싶다.
- 웰빙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다.
- 봉사와 자비행을 실천하고 싶다.
-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 여생을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다.
- 취미생활과 여가를 즐기고 싶다.

위 모두를 충족시켜드릴 웰빙 문화생활 공간과 열린 수행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연화세계로 오실분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010-7159-4108
경기도 장흥 성법 합장
(직작인은 서울 수도권 출퇴근 가능)

(주)천성건설
공 사 개 요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석재, 부품 일체
- ◆석, 조각, 석물 일체
- ◆석, 불상, 좌상, 미륵
- ◆석, 탑, 마애불상조각
- ◆건설부문
- ◆석굴, 납골당 공사
- ◆석굴, 법당 조성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석 공사 일체
-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 사 완 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 이 재 갑

(株)天星建設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사찰 터 -

● 위치 : 부산 ● 위치 : 포항 ● 위치 : 경남사천
● 법당 : 25평 ● 법당 : 20평 ● 총평수 : 16000평 ● 가액 : 4억1천
● 요사 : 50평 ● 요사 : 25평 ● 위치 : 경북포항
● 부지 : 80평 ● 부지 : 760평 ● 총평수 : 700평 ● 가액 : 3천만원
● 가액 : 2억5천 ● 가액 : 6억 ● 위치 : 경남사천
● 총평수 : 7000평 ● 가액 : 1억6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남한강사찰 1000평-3억
2.서울종로산중사찰-30억
3.경기광주현대식사찰-12억
4.퇴촌절터27000평-5억4천
5.여주사찰120평-전세2억
6.수유포교당15평-월40만원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시내요지
● 대지 230평
법당25평
요사2채, 방4칸
주차장
● 가액 : 7억(절충가능)
018-554-6198

포교당 구합니다

● 위치: 경북 경주 지역
● 평수: 30평 이상
011-269-4168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사찰,토굴 급히 구함

양도하실분은 지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청옆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일체시설완벽, 부처님 5불, 아미타불, 호신불 300불, 불단 옥탑에 산신각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0-6244-9111
032)684-3894

사 찰 안 내

● 위치: 동김해 아파트 상가 밀집 최요지
● 평수 : 4층 45평
● 시설 : 집기완벽. 주차A급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2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명리,대체의학 최적합
055)332-6738
010-6840-8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에서 위치 최고
● 총평수 : 47평 5층 중 4층
● 가액 : 보증금 2천 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235-9318

제주도안내

● 사찰 및 사찰터 농가주택, 과수원, 전원주택
● 시내근교땅
064)711-1447
011-9773-4414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종교부지 : 약 100평 ● 대지 : 약 240평
● 법당 : 35평 ● 법당 : 25평
● 요사 : 9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3억 ● 가액 : 11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500평, 건물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총평수 : 2,312평
자지각 5평, 대웅전 22평,
요사채 30평, 행랑채, 차고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5천만원(융자8천)
(전세는 1억에 가능)
● 산세수려하고 솟을 용궁
033)562-7053
011-9793-705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235호
● 3층 건물중 2,3층 2층법당 34평 3층 공양간 방 3개 부엌있음 30평
● 가액: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없음 (현재 법당이 비어있음)
● 포교당 최적지
010-5710-1732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서초구 5층 건물중 5층
● 평수 : 5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2천5백만원 월 18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4807-5913

포교원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1동 2호선 5호선 2분거리
● 8층건물 중 7층 실내평수 50평
● 도시가스와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 시설비 2400만원
02)2699-9358
011-622-4299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표 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천군 시천면 (지리산 방면)
● 건물: 대웅전, 산신각(목조), 용왕각, 나한전, 요사채
● 가액: 5억
011-863-0622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보령시 주고면 신대전리
● 건물: 611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27평
● 가액: 2억5천만원
041)932-0533
016-236-007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 건물: 53평 4층건물에 4층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010-4601-1255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1-599-8476

불자를 위한 전원주택

● 위치 : 경기 양주 감악산
● 건평 32평 단독신축건물 (방4 거실 주방등)
● 즉시입주가능 ● 전세 3500만원
● 전원생활을 원하는 부부 또는 예술활동중인 불자환영
016-703-6648
031)867-1801~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서울대 전철역 2분거리
● 2층 약 30평, 탱화 2점, 삼존불, 방2개, 주방 베란다
● 보증금 2,000원 월 10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755-5266
02)872-3387

사찰안내

● 위치: 부산
● 건물: 대웅전 25평, 종각 2평, 산신각 5평, 용왕전 3평 요사방 6개, 주방 10평
● 실평수 900평정도, 사용평수 2000평
● 주차 30대, 사찰연혁 70년
● 가액: 5억
010-4877-5900

포교원안내

포교원을 양도 또는 같이 잘 운영하실 비구, 비구니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위치: 부산 중구
● 평수 : 총 60평
● 가액: 전세 8,000만원 (월세도 可) 시설비 협의
010-9250-2358
010-8678-544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 안내

● 위치: 경남김해시소재
● 대지 86평
건평 114평
● 3층 건물, 각 30평씩
● 가액: 4억
동진불사
016-689-0455
018-536-4064

포교당 선원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1700만원
011-9393-4965

사찰 안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내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공양간 주지실 시설완비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상담후 절충
011-635-9225

포교원임대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 건물: 4층건물에 2층, 법당 25평, 요사채 13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900만원
016-9599-0108 소원사

사찰(토굴)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 신북면
● 포천시내 5분거리
● 평수 : 등기 200평 (총 400평 하천부지 사용)
● 조립식 법당 20평, 요사 60평 방2개,사랑채15평,방1개,상담실1개
● 서울에서 40분거리. 차량진입가능
● 집기일체 양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9천만원
010-4510-0108
011-9126-8959

아름다운 사찰부지

● 위치: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청평IC)5분거리
● 672평 중 대지 350평
● 건평:1층50평,주방한옥15평 2층25평(서재)
정원:야생화축제장, 텃밭250평
● 가액 : 4억2500만원
017-313-2161 주인직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 평수 30평. 2층건물 2층
● 법당, 방2
● 가액 : 보증금 2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없음
010-5573-2626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IC 5분거리 대전역20분
● 대지: 250평중 100평대지 법당: 25평 산신각5평(목조) 부속건물18평 11평 주차장
● 가액: 1억2천. 시설및 집기완비
043)733-8186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불로동 부근
● 65평, 주방, 방3칸, 삼존불, 소불(지장불 100불, 관음불 100불)
●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 / 시설비500만원
011-509-1525

임야안내

● 위치: 마산 내서읍 원계리 산 내서읍에서 5분거리 위치
● 평수: 15790평
● 무학 산줄기 산세 수려한 임야
● 가액: 4,500만원
011-570-1317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화성군
● 특징: 산세수려하고 양쪽으로 계곡이 흐르며 큰 호수 있음
● 평수: 1200평
● 일법당, 요사채, 차고, 창고 있음
● 주지스님 건강 상태로 매우급함
● 가액: 1억2천만원(가격절충)
010-4604-9255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사천읍 구암3동
● 평수:1,000평
● 조립식건물 2동
● 심야보일러, 130m 암반수
● 가액: 시가1억 5천만원
016-9559-8889
055)854-340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소재 (교통편리함)
● 법당: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권리금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황토기와집 55평
● 가액: 5억5천(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 길안면
● 대지 98평,건물 28평
● 창고, 심야보일러, 텃밭있음
● 가액 : 6천8백만원 (절충가능)
054)823-33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천7백만원에 월 35만원
010-8419-8004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235호
● 3층 건물중 2,3층 2층법당 34평 3층 공양간 방 3개 부엌있음 30평
● 가액: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없음 (현재 법당이 비어있음)
● 포교당 최적지
010-5710-1732

사찰 안내(토굴)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33 미타사
● 대지 : 270평 ● 등기건평 : 30평(기와슬라브) (가건물2동,본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텃밭,경관수려,지하수 2)
● 가액: 1억3천500만원
041)834-0206
011-9408-0055
011-9344-9718

사찰안내

● 위치: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252번지
● 대지: 문화재급 목조건물 대웅전 36평 요사채 30평
● 삼성각 6평, 종 누각 2층 10평
● 미륵부처님, 부처님 다 모셔져있음
● 물좋고 산세 수려함 기도도량으로 최적
● 가액: 15억
031)674-1117
011-250-7279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연신내우체국옆 3, 6호 연신내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층건물중 2층 약40평, 방2칸, 부엌1칸 삼존불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 월 50만
시설비, 보증금 답사후 좋은조건 의논
016-542-105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다향 예술원)
● 총평수: 2500평(대지 450평)
● 법당, 황토방(2칸)
● 건물: 총 150평
● 특징: 황토집, 사찰 윗편 석류굴 바다와 시내 10분거리
● 가액: 3억(전세가능) 답사후가액절충可
054)783-8265
011-9572-244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정토사)
● 대지: 임야 5,700평
● 건물(시설): 요사채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
● 법당: 50평 산신각 10평 지장보살 조성
● 특징: 충주 중앙탑 건너편
● 가액: 13억5천만원
053)763-9881
011-9375-0108
011-866-790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앞
● 평수: 40평
● 시설 일체완비 각단탱화 삼존불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0-4846-5194

사찰 안내

● 위치:미아전철역 1분, 대로변
● 2층건물중2층 17평
● 법당, 상담실, 방1칸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700만원(조절가능)
● 시장주택등 밀집, 대형고찰 인접, 강북최고요지
● 포교스님, 법사, 보살님 상담사무실로 적합(철학원)
● 불공,염불,사주명리,작명등 무료전수
010-6283-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2억1천만원
033)766-0057
011-471-1996

“백제 성왕은 일본 왕 겸했다”

외국어대 홍윤기 교수 논문서 주장

일본고문서 ‘대초자’ ‘성예초’ 근거로 제시

교토대 교수 우에다마 “日 사학자들도 인정”



백제 성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부분 개정해야 할까? 6세기 무렵 백제를 삼국 최고의 문명국으로 중흥시키고 일본에 불교문화를 전파한 성왕(523~554 재위). 그동안 역사학계는 <일본서기> 중 흠명천황 15년조 내용과 <삼국유사> 중 성왕 32년조에 기록된 ‘성왕은 죄지촌(지금의 충남 옥천 또는 보은)에서 신라의 복병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정설로 여겨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설을 뒤엎는 ‘백제 성왕은 일본 왕까지도 겸임했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일본문화담당 홍윤기 교수(사진)가 발표해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교수가 이 같이 주장하는 고증적 근거는 <대초자>와 <성예초>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발표한 연구논문 등이다.

일본사학자 후지와라노 키요스케(藤原清輔)의 저서 <대초자, 1156~1158>는 고대 일본 왕실과 귀족들이 즐겨 부르던 일본 정형시가 ‘와카’ 모음집으로 일본 시가 연구의 중요한 고전으로 평가되는 자료다. 이 고문서의 내용 중 ‘코우닌천황(770~781 재위)의 어자(칸무천황)의 어조되시는 조부야 말로 히라노신(백제 성왕)의 증손자이노라’라는 대목이 홍 교수가 주장하는 ‘백제 성왕이 일본 왕을 겸했다’는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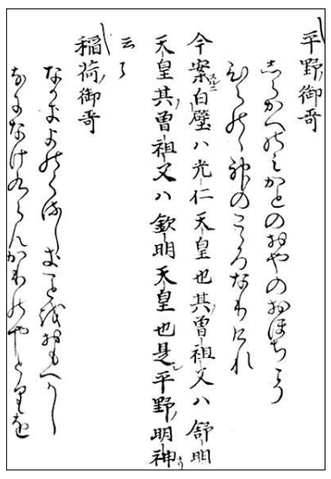
일본 법륭사에 대한 모든 정보와 비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예초, 1394~1427>의 내용도 홍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증자료로 신빙성을 더 하고 있다. 이 문서는 ‘백제 성왕의 전신은 지금의 성덕태자이시다. 따라서 이 구세관음상은 백제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기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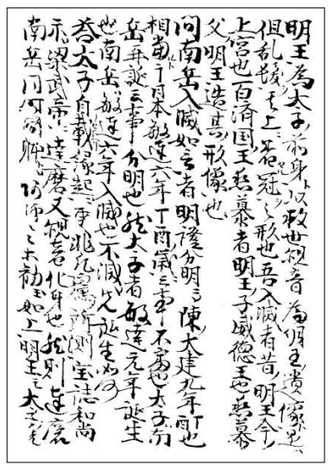
또 나라대학 나카가와 토모요시(中川友義) 교수의 논문 <일본에 도래한 신들>에서는 ‘제1신전은 성왕, 제2신전은 구도왕(온조), 제3신전은 고개신(비류왕과 근초고왕)이 모셔져 있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저명한 사학자 고바야시 야스코(小林惠子)가 1991년 저술한 <두 개의 얼굴의 대왕>에서 ‘백제 성왕은 일본에 건너와 흠명천왕이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교토산업대 역사학과 이노우에 미쯔오(井上滿郎) 교수의 논문 <헤이안의 풍경, 1994>에서 ‘히라노신사에 모셔진 제신은 백제에서 건너 온 금래신(今來神)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교토에 소재한 히라노신사(平野神社)는 서기 794년 칸무천왕이 수도를 교토로 천도한 기념으로 세운 사당이며 금래신 또는 흠명천왕, 히라노신이란 명칭은 이미 일본사학자들에 의해 백제 성왕으로 판명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본 교토대 사학과 우에다마 사아끼(上田正昭) 명예교수는 “‘백제 성왕은 일본 왕을 겸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홍 교수의 연구논문은 일본 고문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고증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일본 사학자들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의 진위여부는 양국의 역사 교과서를 수정할 정도로 중요한 대목인 만큼 한 · 일 불교사학자들의 충분한 연구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모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대초자>(사진 위)와 법륭사 비밀고문서인 <성예초>는 ‘백제 성왕이 일본왕을 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홍 교수는 200년 전 에도막부 말기에 쓰여진 고문서<일본시사>를 바탕으로 ‘일본 정형시조인 와카의 창시자 또한 왕인 박사였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1970년대에 발표한 바 있다. 왕인 박사는 4세기 백제 근초고왕(재위 346~375) 집권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 한자 보급은 물론 백제의 우수한 문화와 기술을 전수한 학자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불자-기독자 교수 학술대회

‘붓다와 예수의 만남’ 주제로

한국불자교수연합회(회장 김용표)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이종오) 공동주최로 ‘제1회 불자-기독자 교수 공동 종교간 대화 학술회의’가 5월 19일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붓다와 예수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양대 종단에 속한 교수들이 학술적 교류를 통해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날 발표되는 논문으로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불자가 본 예수’ 한신대 김경재 교수의 ‘기독교에서 본 붓다’ 등 총 4편이다.

특히 우희종 교수는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교적 해석으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

‘건학정신과…’ 학술대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은 ‘건학정신과 불교 교육의 근대화’라는 주제로 4월 21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대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해 보고 창조적인 비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대회는 부천대 김광식 교수의 ‘명진학교의 건학정신과 근대 민족 불교관의 형성과정’과 동국대 고영섭 교수의 ‘동국교육 100년과 불교연구’ 조계종 불학연구소 박희승 팀장의 ‘불교 교육의 근대화와 승가 교육 체계’ 등 총 4편의 논문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광식 교수는 논문을 통해 “1906년 설립된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는 불교계 교육 분야에 혁신을 가한 추진제 역할을 해왔다”며 “명진학교의 건학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불교천양의식, 대승 보살행, 민족 현실에 다가가려는 적극성 등을 통해 앞으로도 인재불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통 강원에 집중된 승려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박희승 팀장은 “동국대 불교대학과 불교학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병철 기자

조선왕조실록 반환 촉구

“5월 10일까지 입장 밝혀라”

“5월 10일까지 도쿄대 총장이 직접 조선왕조실록 반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동의장 월정사 주지 정념 ·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이하 환수위)는 4월 17일 일본 도쿄대학 도서관 2층 소회의실에서 도쿄대측 관계자와 조선왕조실록 환수를 위한 2차 협상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3월 15일 1차 협상에서 도쿄대측이 4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해 그 결과를 듣기 위한 자리. 그러나 도쿄대측 대표로 참석한 도쿄대학 부속 도서관 사사카와 사무부장은 3월 15일 조선왕조실록 반환요청서를 받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지만 도쿄대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재산 처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못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환수위 김원웅 의원은 “한국으로부터 가져갈 때 무슨 규칙과 절차에 의해 가져간 것이 아니고 강탈한 것을 기억하라”며 “5월 10일까지 조사 중간발표를 총장이 직접 나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수위는 이날 협상을 마치고 도쿄대 학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김두식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8>

봄

자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간적으로 꽃을 피워내고 또 그것을 사라지게 한다.

이와 같이 자연 현상의 과학은 선형적이지 않고 지수함수적이다. 오늘과 내일의 변화가 같은 정도만큼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와 오늘의 변화보다 오늘과 내일의 변화는 수배가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를 수학에서는 지수함수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한다. 시간에 따라서 지수함수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선형적인 증가가 아니라, 갈수록 더욱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매우 조금씩 증가해서 느낄 수 없으나, 갈수록 더욱 증가폭이 커져서 나중에는 한 그래프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벚꽃이 피는 정도를 매일 관찰하면 지수함수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지수함수적인 변화는 과학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디지털과 같은 신호를 처리하는 반도체 트랜지스터나, 20세기 빛의 혁명을 일으킨 레이저의 동작에서 역시 지수함수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디지털 신호처리에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는 높은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 전류를 흘리고, 낮은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 전류를 흘리지 않는 스위칭 특성을 가짐으로써, 1과 0신호를 처리하게 된다. 실제로 입력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트랜지스터 전류를 측정하면 전류 증가는 지수함수적이다. 마치 벚꽃이 지수함수적으로 피듯이 말이다. 실제로 회로에서는 0전압과 1전압에서 흐르는 매우 작은 전류와 매우 큰 전류를 이용 하지만. 이러한 지수함수적 증가의 특징은 언젠가는 증가가 멈추게 된다는 점이다.

만개한 꽃이 지고 나면 5월의 신록이 시작할 것이다. 신록의 시작 역시 지수함수적이 될 것이다. 옛 중국 명필 왕희지는 불후의 명작 ‘난정서’에서 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인생의 유한함을 노래하기도 했다. 지나가는 것에 아쉬움, 그리고 기약 없는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벚꽃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피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지겹고 피곤하게 느낄 것이다. 아마도 그 다음 변화를 기다릴 것이다. 마치 유한한 인생을 아쉬워 하지만, 영원히 이대로 죽지 않고 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야 말고 빛과 그림자와 같은 존재의 모습일지 모른다.

꽃이 피고 지는 모습 인생사와 흡사

삶이 영원하다면 그 역시 두렵지 않을까

아름다운 봄, 곧 부처님 오신 날을 맞게 된다. 아름다운 계절, 불자들뿐만 아니고 종교와 관계없이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부터, 공의 원리를 체득하는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비어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꽃이 필수 있겠는가. 꽃이 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피어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만물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러한 변화야 말로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다르마일지 모른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는 것 대신, 오히려 이 시점에 같이 살아가는 이웃사람들, 자연, 그리고 우주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공의 진리와 자비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인 사 말 씀

삼보전 귀의하옵고,

지난 불기 2550(2006)년 4월 20일(음, 3월 23일)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재)한국불교 법륜종 제5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일기불순에도 불구하고 먼길을 찾아와 주신 종정예하, 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께 삼배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지면으로나마 인사 올립니다.

(재) 한국불교 법륜종 제5대 총무원장 석고산 합장

■ 총무원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67번지
전화 041)734-5371-2

일주문



제6회 지훈상 국학부문 수상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은 <선문염송> <염송설화> 등 출간을 공로로 4월 20일 제6회 지훈상 국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006 포교전진대회서 법문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은 4월 27일 오후 7시 대전웨딩홀에서 열리는 '2006년도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전진법회'에서 법문한다.



파라미타 문화체험대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전지부장 장곡 스님은 4월 16일 공주 갑사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 함께하는 제6회 파라미타 문화체험대회'를 개최했다.



관음사 봄철 수계식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4월 15일 영남불교대학 옥불보전 대법당에서 500여명의 불자를 대상으로 봄철 수계식을 봉행했다.



부활절 기념미사에서 법문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4월 16일 10여명의 불자들과 함께 안양 중앙성당을 방문, 부활절 기념미사에 참석해 법문했다.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취임

前 승가원 장애아동요양시설 원장 지웅 스님은 4월 17일 대흥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으로 취임했다.



부처님오신날 맞이 경로잔치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은 4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강릉시 연곡면 복지회관에서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 '제7회 봉축 경로잔치'를 연다.



제1회 성남불교 만해축제

성남 봉국사 주지 효관 스님은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경내에서 제1회 성남불교 만해축제를 개최한다. (031)755-0329



청주불교방송에서 교계 포커스 진행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현대불교신문 대전충북지사장)은 4월 20일부터 청주불교방송에서 '혜철 스님과 함께하는 교계 포커스' 진행을 한다.



봉축 행사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4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 행사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혜국 스님 초청 봉축법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5월 2일 오후 5시 일산불교병원 대강당에서 조계종 선원장회의 의장 혜국 스님 초청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울산교사불자회 창립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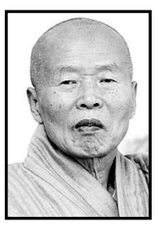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섭 회장은 4월 23일 울산 정토사에서 교사불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교사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대불련 부산동문회 제7대 회장

동아대 도시계획조경학부 오윤표 교수는 4월 2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대불련 부산동문회 제7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향천사 천불선원 선덕 대용 스님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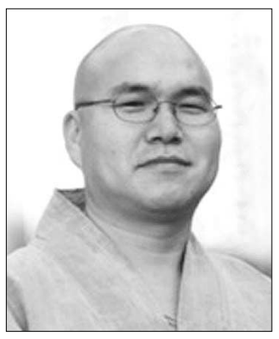
충남 예산 향천사 천불선원 선덕 향림당(香林堂) 대용(大用) 스님(사진)이 4월 19일 오전 6시 30분 향천사 염화실에서 세수 77세, 법랍 48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21일 향천사에서 엄수됐다.

대용 스님은 1929년 일본 경도에서 태어나, 43년 일본 복강현 향순심상고등소학교를 졸업하고 45년 서울 체신학교 우편과를 수료했으며, 1958년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특히 평생을 상좌를 한 명도 두지 않았으며 주지 소임 한 번 살지 않은 선객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한명우 기자**

"쉽고 편하면 더 즐겁죠"

부처님오신날 트로트음악회 여는 현진 스님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청주 관음사에서는 이색적인 음악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 음악회에 참석한 지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음악회는 일반적인 산사음악회와는 다른 '트로트 산사음악회'였다.

"모든 계층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생각하다가 트로트를 발견(?)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쉽게 접할 수 있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월 5일 오후 8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산사와 트로트의 이색만남-제 2회 트로트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는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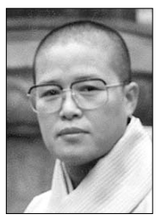
뛰어난 현대감각과 풍부한 포교경험을 갖춘 현진 스님이 추구하는 것은 '톡톡 튀면서도 대중적인 프로그램'. 관음사와 지역민들 사이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중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현진 스님은 트로트를 택했다. 그 판단은 적중했고, 작년 트로트 음악회는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인지 올해 트로트 음악회에 현진 스님이 갖는 기대감 역시 크다.

"트로트와 지역정서와 매치시키는 것도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트로트 가수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무대도 마련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기대합니다."

이날 트로트 음악회에는 진시몬과 박주희 등 초대가수 외에 강민정 석기영 이현민 신주나 유미 등 지역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를 꾸민다. 또 관음사 여성신행단체인 '관음회'가 출연 가수들과 함께 트로트를 합창하며, 관음사 군인법회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며 '꼭지점 댄스'로 흥을 돋울 예정이다. (043)256-6254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선문회 회장 육문 스님 유임



조계종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4대 회장에 육문 스님(은해사 백흥암 암주 · 사진)이 재임됐다.

선문회는 4월 16일 해인사 약수암 죽림선원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육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또 부회장에 승찬 · 일운, 기획실장에 성정, 총무에 탄형, 재무에 동호, 서기에 종각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20개 선원에서 47명의 회원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음력 1월 16~18일, 7월 16~18일이 지난 후 방부명단을 선문회 회장에게 팩스로 보내, 이중으로 방부들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육문 스님은 1962년 출가한 후 1970년 경북 양진암에서 수선 안거하는 등 24안거를 성만했으며, 백흥암 감원과 제11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선왕조실록 되찾기 국회의원 모임 결성



강혜숙, 김원웅, 노회찬 의원 등은 4월 20일 국회의사당 국회윤리위원장실에서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공동의장 월정사 주지 정념, 봉선사 주지 철안)의 활동 경과를 듣고 '조선왕조조실록되찾기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또 5월 3일경 일본 외무성과 동경대에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김두식 기자**

"중국서 직지 꼭 찾겠다"

직지탐험대 정덕형 소장



"직지를 찾기 위해 목은 이색이 쓴 직지 서문에 나오는 백운화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직지를 꼭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을 찾기 위해 민간 탐험대를 구성하는 직지문화연구소 정덕형(48 · 사진) 소장은 "백운화상이 스승 석옥청공선사를 만나 불조직지심체요절을 받아온 기록을 단초로 중국 절강성 호주, 하남성 낙양, 산서성 장치 지역을 탐사할 예정"이라며 "문헌 조사와 지명연구를 통해 직지 존재 가능성이 있는 3곳을 순례해 꼭 폴리지 않는 직지의 행방을 찾겠다"고 말한다.

정 소장은 5~6월 직지 매니아 10~20명을 모아 '직지 탐험대'를 구성하고 중국 3곳의 순례지에 도서관, 사찰, 고서점을 돌며 직지 원본의 소재를 추적한다.

순례를 마친 이후에는 여행기와 직지를 찾기 위한 방법을 적은 가칭 <직지 찾기 매뉴얼>을 출간할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청담문화센터 · 평생교육원 개원



청담학원(이사장 혜자) 부설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개관식이 4월 20일 평택 청담정보고등학교 정문 옆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청담학원 명예회장 혜성, 청교련 총재 현성 스님과 손학규 경기도지사, 송명호 평택시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개관식에서 혜자 스님은 "문화센터는 시민을 위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과 후 교육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원은 학교재단의 부지 1,000평 위에 경기도 교육청과 평택시청의 지원금 약 25억여 원을 받아 타원형 3층 건물에 300석 규모의 계단식 세미나실과 전시홀, 강의실 등을 신축했다.

평택=고영배 기자

양주 육지장사 10년불사 회향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가 10년간의 불사 끝에 4월 16일 준공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등, 신흥사 주지 오현 스님, 조계종전국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불교계 지도자와 신도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경전에서는 좁쌀만한 지장보살 한 분을 조성해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육지장사에서는 육만 분의 지장보살님을 조성할 것을 발원했다니 그 원력과 신심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이끌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육지장사는 지장기도를 통해 중생의 악업을 녹이고 현세의 청정한 삶을 창조해 내는 도량으로 가꾸겠다"며 "앞으로 기도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문화도량으로 가꿔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임연태 기자

화촉 대한불교진흥원 최명준 사무국장의 장남 재혁씨가 4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셀레나홀(前 아미가호텔)에서 김민정양과 결혼식을 올린다. (02) 825-7731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이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동국대 홍신선 교수가 시, 경기대 윤금초 교수가 시조, 소설가 조정래씨가 소설, 고려대 김인환 교수가 평론부문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창립 12주년 법회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는 4월 14일 국제신문 크리스탈 뷔페 별관에서 창립 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정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혜총 스님을 비롯해 150여 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2006년 우수프로그램 포상 및 자료집 발간 행사가 열렸다.

광명사 제9대 주지 갈웅 스님 취임법회



천태종 부산 광명사 제9대 주지 갈웅 스님 취임법회가 4월 14일 광명사 유치원 강당에서 봉행됐다. 법회에서 갈웅 스님은 "상월원각 대조사의 수행 종풍을 바탕으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충만한 도량,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수행처와 안식처의 역할을 고루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100주년 기념 홍보대사 위촉



동국대가 4월 20일 학교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재학생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에는 4학년 황보라, 이상원, 이중문, 전혜빈, 서재경, 서영희, 최정원 3학년 정다빈, 정다혜, 이윤미 2학년 한효주 1학년 윤소이, 박하선, 오햇님 학생 등이 위촉됐다.

성북구불교사암련 장학금 전달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호암)는 4월 19일 성북구청 대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 및 봉축점등식 행사를 개최했다.

서찬교 성북구청장과 장학회장 지오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성여고 1학년 양유리 학생 외 19명이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청주청원사암련 재소자 위문법회



청주청원사암연합회(회장 각의)는 4월 18일 재소자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충북예술인 연합회가 주관한 법회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불자 예술인의 공연을 즐겼다. 청주청원사암연합회 회장 각의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 부처님의 광명이 고루 비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국 충용사 수계법회



호국 충용사는 4월 16일 해국사 주지 보현 스님을 전계사로, 죽장사 주지 명효 스님을 갈마아사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00여 장병들이 참석한 법회에서 충용사측은 단주와 떡, 우유 등으로 수계자들을 위문했다. 육흥수 연대장은 충용사 불사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불교대학 제2기 입학식



보은 법주사 보은불교대학 제2기 입학식이 4월 12일 봉행됐다. 70여명이 등록한 이날 입학식에서 법주사 부주지 무상 스님은 "말로 입으로 뜻으로 짓는 십악을 참회하고 십선행하는 불자가 되겠다는 서원으로 회향하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자 세상보기

맹 난 자
수필가

'어긋난 부부'의 과보

며칠 전에 읽은 신문 기사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것은 나 역시 이 문제에서 한때 자유스러울 수 없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학개론> 어느 페이지에선가 남편의 외도는 곧바로 아내의 '단명보(短命報)'로 이어진다는 것을 읽고는 왠지 가슴이 두방망이 치던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때문인지 어머니는 오십도 못 다 채우고 어느 여름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얼마전 '조강지처 버린 죄로 뒤바뀐 인생'이란 제목의 기사는 그래서인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죄 중에 가족을 져버리는 일만큼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있을까? 모든 가족사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신문 기사의 A씨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 그는 조강지처와 자식을 버리고 새로 살림을 차렸다. 그 후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함께 살던 여자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았다.

20년 만에 그는 이혼한 아내와 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그의 아내는 위자료로 받은 땅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백억 원의 재산가가 되어 있었다. 아내가 혼자 힘으로 키운 두 자녀도 그 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노숙자를 방불케 하는 A씨는 이혼할 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땅을 넘겨주었으니 그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던 것이다.

"20년 전 이혼할 때 땅을 넘겨준 것은 제 정신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넘겨준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저 사람(부인)은 그 땅 가지고 많은 돈을 모았는데 이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런 몰염치한 투정을 지켜본 아내와 자식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나는 피해자측의 방청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다. 재판 결과는 뻔한 것이었으나 부장판사는 뻔한 결과를 그대로 선고하지 않았다.

"그래도 한때 인연을 맺었던 부부인데…. 무엇보다 싫든 좋든 방청석에 앉아 있는 두 자녀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부인께서 4000만 원 정도 주면 어떨까요. 다만 한 번에 목돈을 주면 원고가 다시 바람을 피워 탕진할지 모르니까 2년 동안 네 번으로 나눠서 1000만 원씩 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부장판사는 한참 동안 부인을 설득했고, 마침내 그녀도 그 부장판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조강지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때우며 함께 고생하던 아내는 예부터 특별한 죄가 없는 한 함부로 내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은 아닌가. 숙연(宿緣)이 어긋난 부부의 과보를 보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다.

후 팔십은 주나라 문왕의 왕사로서 보람 있는 생애를 보냈으나 전 팔십은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던 강태공. 남편을 버리고 개가한 그의 아내는 날품팔이로 취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왕사가 된 강태공의 마차와 마주쳤다.

그녀는 길을 막고 꿇어앉아서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다. 강태공은 옆에 있던 물병의 물을 쏟아 보인 뒤 '이와 같다'고 조용히 타일렀다. 그러나 몸에 지닌 쇠붙이를 떼어 그녀에게 모두 주고 가던 길을 유유히 떠났다고 한다.

좋고 나쁜 것은 모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누구도 인과(因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또 하나의 교훈을 나는 여기에서 읽는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특정분야의 포교에 자격증을 지닌 전문적인 포교사가 나서서 불법을 바탕으로 한 전문포교가 이룩되는 계기가 마련될 듯 하다.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심리사, 선지도사 등의 특정 인력을 일정한 제도 아래서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자격검증을 해 전문포교사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전문적인 영역에 일반적인 포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위에 열거한 영역 등에서는 특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과 배치가 시급한 현실에 비추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시의적절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이기에 그 출발의 시점에서부터 치밀한 계획과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기존의 포교사 제도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다 완비된 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기대되는 포교전문가 시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포교사 교육은 기본으로 되고 그 위에 전문적 능력을 부가한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만들어 포교사 전체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질 높은 인재의 양성은 선발의 초기부터 어떠한 수준의 인재들이 모여드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확실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은 기존의 포교사들에 대한 정책부터 다시 점검하여 포교사들의 활동영역과 권위를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고 배출될 전문포교사들의 활동무대를 종단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마련하고, 그들이 배출될 시점에 맞춘 인재의 수급계획이 함께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이러한 영역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그들이 새로운 역량을 지니고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일 또한 시급하다.

불심과 능력을 지닌 인재는 많다. 그들이 자신의 생을 걸고 뛰어들만하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무대를 만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의 전문포교사 양성계획이 조계종 종단의 인재불사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최초의 여성총리

다만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유행경〉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의 낳은 바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중국의 북경만보(北京晩報)가 4월 20일 TV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에 빗대 한명숙 총리를 '한국 정계의 대장금'이라고 칭찬했다. 신문은 드라마에서 총명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굴곡진 운명을 강인한 의지로 극복한 주인공 대장금과 한 총리의 인생 역정이 많이 닮았다고 전했다.

이렇듯 정계의 대장금이라는 말을 들으며 한국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한명숙 총리는 서열대로 줄지어 선 채 진행되던 취임식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앉아서 진행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첫 발을 떼었다.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함으로써 한국에서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 어때야 할까 새삼 생각해보게 된다. 이제 우바이의 역할은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 지도자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부처님은 "지도자는 불과 같이 만민을 위해 근심을 없애 주며 물과 같이 사방을 윤택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잡보장경>에서 말씀하셨다.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돌보겠다"고 선언한 한명숙 총리가 이 같은 부처님말씀대로만 한다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바새계경>에서는 여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극진한 마음, 게으르지 않음, 일을 하면 끝까지 해 마침, 빨리 해서 때를 잃지 않음, 항상 손님을 위하여 보살핌,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말을 부드럽고 순하게 함,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것도 부드러운 말로 가르침, 가르침을 받아들임, 능히 나쁜 일을 덮어줌 등은 여성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한명숙 총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새기기를 바란다.

■강지연(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느낌의 환상과 스트레스의 독(毒)



하루 30분이라도 명상하라

부처님은 중생이 갖는 3가지 독(毒)을 규정하셨는데 그것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라고 정의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것을 취하려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며, 불쾌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닥칠 때 일어나는 느낌, 그것을 밀쳐내고 공격하려하는 마음을 진심이라 하고,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는 느낌은 자기 안목의 잣대대로 판단해 버리는 마음을 치심, 즉 어리석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염수경(念受經)>에서는 느낌의 실체를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염수경>의 설파는 앞서 말한 탐진치 삼독에서 파생된 느낌이 중독된 사람들이 (衆生) 취하고자 하는 갈증이 조건이 되어 발생하는 결과가 결국 태어남과 늙음과 병듬과 죽음 등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스홉킨슨대학과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수년간에 걸쳐 공동으로 연구한 인간 노화현상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바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노화 가속화의 주원인은 스트레스가 거의 주범이라는 연구결과이다. 스트레스하면 우리는 너무나 간단히 지나칠 수 있는 말일수도 있다. 필자는 5년 전쯤에 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나역시 불교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가면서부터 그렇게 생각해오던터라 매우 중요한 발견의 연구결과라고 탄성을 지른바 있다.

명상을 한다거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엔돌핀이나, 멜라토닌 등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는 신체기능에 활성화 즉 세포에 활력을 주어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세포를 억제 내지는 소멸시키는 작용을 도와준다는 것이 연구결과의 핵심이다.

<염수경>의 한 대목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날 수행승들은 부처님을 뵈러 왔다. 그들은 공손히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아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존자시여 느낌(愛)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의 일어남은 무엇입니까? 느낌의 일어남에로 이끄는 길은 무엇입니까? 느낌의 그침은 무엇입니까?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느낌에 있어 달콤함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에 있어 위험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느낌에는 이 세가지 느낌이 있나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이다. 이들을 느낌이라 한다. 촉(觸)이 일어남으로써 느낌(愛)이 일어난다. 갈애(愛)가 곧 느낌의 일어남에로 이끄는 길이니라 촉(觸)이 그치면 느낌이 그친다. 8가지 성스러운 길이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이니,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다. 느낌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나니 이것이 느낌의 달콤함이다. 느낌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기 마련이니 이것이 느낌에 있어 위험함이다. 느낌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고, 끊어버리면 이것이 느낌에서 벗어남이다.

느낌의 환상을 따라 허겁지겁 달려가는 수없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걷고 또 걸어보지만 결코 거기에 이를 수 없는 곳 어느 선지식의 말씀이었던가! 하루가 24시간인데 9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4시간 놀고 그래도 3시간이 남으면 남는 이 시간을 1시간 그것도 어려우면 단 30분이라도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충고한다. 들숨 하는 숨을 날숨하지 못하면 내 생명은 끝장이다. 날숨 하는 숨을 들숨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끝나버릴 나의 인생이 아니던가? 이것은 인간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좌표요. 보배요. 참 행복에 이르는 문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일이리라.

황경환(초기불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현대' 만평 심 민 섭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醫通(의통)·신병(빙의·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 전수일 : 2006. 4. 28 (금요일) 14:00 - 18:00 (7회 과정) (예비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비법	빙의·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 만 치세요.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붓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아로 접속하세요!!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온, 오프를 동시에 공략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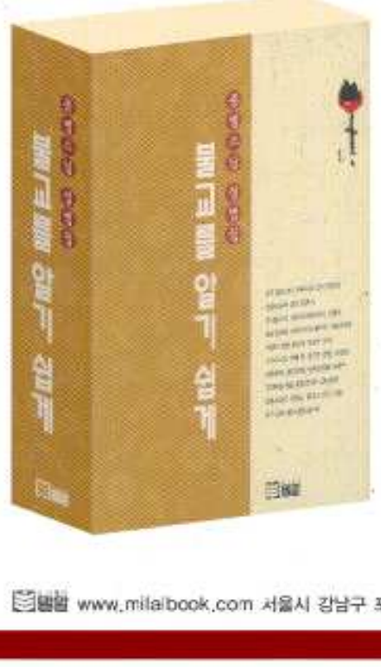
이제는 불교도 정보화 시대로 입문한지 오래입니다.
수많은 사찰과 스님, 신도들은 편리한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직도 지면광고에만 의존한다면 충분한 광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아직까지 지면에 익숙한 기존의 고객들을 배제한채 인터넷 광고만 할 수 있을까요?
애드부다피아는 국내최대의 구독자를 보유한 현대불교신문사가 운영함으로써 지면광고와 인터넷광고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면과 인터넷으로 같이 광고할 경우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면과 인터넷, 이제 애드부다피아의 문을 두드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한다 !!

불교광고계에선 이미 정평이 나있는 현대불교신문사의 광고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함께하는 애드부다피아는 보다 효과적인 광고표출을 위하여 귀하가 원하는 광고의 카피, 디자인, 컨텐츠를 직접 상담하고 설계함으로써 최고의 광고를 생산합니다.
일일이 어떻게 광고를 할지 고민할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애드부다피아는 귀하의 최고 광고컨설턴트입니다.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한국 불교계의 부루나
종범 큰스님의 육성녹음 설법 테이프!



불교를 알기 쉽게

설법에 있어 제일 가는 부처의 제자는 부루나존자이다.
종범 큰스님은 바로 한국의 부루나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고승이다.
한국불교에서 불교의 통시적 해설을 쉽고도 이해하기 편하게 설파한 종범 큰스님의 〈불교를 알기 쉽게〉는 불교입문서로써 그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반부에는 원시불교의 교리에서부터 선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정리하였으며, 후반부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법화경 등의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커다란 맥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갈증과 무상한 삶의 가치를 되짚고 싶어질 때, 이 책은 길을 찾는 사람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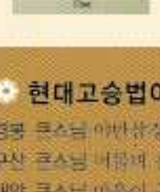
■ 테이프 12개(불교를 알기 쉽게 도서 포함) ■ 값 78,000원 ■ 낱개 별도판매



문을 나서지 않아도 풀밭이니라
경허선사로부터 이어지는 근대 선 불교. 그 전법계를 이어받은 청봉선사의 선과 수행을 명쾌하게 집약한 법어집.
■ 청봉스님 | 값 10,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고승 청담스님의 향기와 소리를 담아 현대인의 메마른 가슴에 법음의 단비를 전해준다.
■ 청담 큰스님 | 값 9,000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묵담스님은 '행하기 힘든 것을 행하고,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중도의 정신'이라고 설하신다.
■ 묵담 큰스님 / 값 7,500원

현대고승법어총서 개정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봉 큰스님 | 바보상인에 관한 모든 것 | 경산 큰스님 | 청산 큰스님 | 구산 큰스님 | 해암 큰스님 | 향화 큰스님 | 청화 큰스님 순으로 영문으로
■ 2006년 7월 출간 예정

밀알 www.milalbook.com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68-1 성지빌딩 3층 Tel : 02) 529 0140~5 Fax : 02) 579 2312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4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 575 호


결혼 60주년을 맞은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과 장기옥 보살. 서로 존경하고 남을 도우며 살아온 것이 60년을 행복하게 산 비결이다. 슬하에 딸 8명과 사위 손자 등 직계가족만 31명을 두었다.

향기도반의

결혼 60주년 …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주영윤·장기옥 부부

"평생 서로 존댓말 씁니다"

매년 생일잔치 고사 하고 그 비용 복지시설에 보시

행복의 비결은 상대방 이해, "눈빛만 봐도 이심전심"

근검절약한 돈으로 재단 만들어 불교인재 양성 앞장

지난해 우리 나라 결혼한 커플은 31만 6375쌍이고 이혼한 커플은 12만 8468쌍이다. 전체 기혼자 중 이혼건수로 보면 매년 100쌍 중 1.06쌍이 이혼하고 있다는 통계는 '성공한 결혼'이 그 만큼 어려운 시대임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60주년 회혼(回婚)을 맞은 행원문화재단 주영윤(83세, 법명 행원) 이사장과 장기옥(79세, 법명 보안장) 보살은 부부사랑의 모범이 된다.

옛날부터 인간의 삶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다섯가지 복이 말하여 진다. 오복(五福)중 장수하는 수(壽),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부(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강녕(康寧), 덕을 좋아하는 유호덕(攸好德),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그것인데 이 부부는 이 다섯가지 복을 타고 난 것일까.

18년간 살고있는 청담동 모 아파트 공원에서 만난 주 이사장 부부는 옷을 곱게 차려입은 뒤 화사하게 피어난 벚꽃나무 아래의 벤치에 다정하게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두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전을 독송한 뒤 노부부는 손을 잡고 청담공원을 산책한다. 저녁식사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니 자연스러울 수 밖에.

"천생연분이지요. 우리집이 워낙 대가족이라 집사람이 시집와서 고생많이 했어요. 한달이 멀다하고 계속되는 제사때 100여명의 친척이 좁은 집을 찾아와도 싫은 내색 않고 자상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줘서 이만큼 잘 살아왔어요. 아내가 며느리로 엄마로 어진 아내로 정말 헌신했어요. 나에게는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주 이사장이 따뜻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장기옥 보살은 "이 분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내게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자상하고 모범이 되어주었지요. 다만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다보니 임신한 기억이 많아요"라고 얘기한다.

지금은 북한 땅인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난 주 이사장 부부. 일본군 1기로 징집돼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기병(말타는 병사)으로 판정난 주 이사장. 어차피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내가 생과부 될 것 같아 20세가 넘어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1946년 결혼식 모습.

그러나 대동아전쟁 막바지라 만주벌판의 기병이 사라지면서 징집도 되지 않았다. 해방도 되고 그래서 당시로는 늦은 23세에 19세의 장보살을 만났다.

60년 결혼생활 동안 서로 존경하며 살았다. 지금까지 서로 존댓말을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노부부의 존경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지만 한일해운에 입사한 주 이사장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무기로 총무과장을 거쳐 한일시멘트 전무이사, 한일흥업 대표이사까지 승승장구했다. 한일시멘트에 있을 때에는 여섯개의 레미콘 공장을 설립했다.

당시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시주는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 이사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진했다.

그리고 가정도 행복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장손인 주 이사장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

딸을 여덟 낳자 주변 사람들이 씨받이를 권하고 조카를 양자로 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며.

불심이 돈독한 주 이사장 부부의 삶에선 향내음이 난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나누며 사는 것에 있어서 평생 뜻을 함께 해왔다.

주 이사장 부부의 나눔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들도 과감하게 자제하며 아껴서 나눠준다. 그래서 노부부의 삶에는 철저하게 근검 절약이 몸에 배여있다.

60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부부사랑의 열쇠도 근검절약이다.

주 이사장 부부는 그동안 매년 돌아오는 생일은 고사하고 회갑과 칠순잔치도 하지 않았다. 형제자매들은 고사하고라도 슬하에 딸 8명을 둬 사위에 손자 손녀 등 직계가족만 31명인 상황에서 기념일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이사장 부부는 매년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는 잔치를 한셈치고 그 비용을 모두 보육원과 양로원, 승가원, 연꽃마을등 복지시설에 보낸다. 이제는 자식들도 모두 손을 들었다. 손자 손녀들은 그런 외할아버지를 오히려 존경한다.

주 이사장이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도 자식들이 성화를 해서 며칠전에 작은집 식구들과 중국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어요."

결혼 60주년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한 경사가 아닌가. 남들은 사모관대하고 가마타고 회혼례를 다시 올리는 등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런데도 주 이사장 부부는 회혼을 맞아 가족과 식사한번 한 것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검약이 몸에 배었다.

자신들에게는 이렇게 인색하지만 주 이사장 부부는 밖에서 불자들을 만나는 일과 교단의 필요한 곳에 도움주는 일에는 아낌이 없다. 오히려 없어서 더 못 주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

주 이사장은 매년 4000만~5000만원을 중앙승가대 학인 장학금과 교수연구비및 불교 문화예술인 지원은 물론 소쩍새마을을 운영하는 승가원과 연꽃마을등 불교 복지시설에 보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저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마운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인스님을 비롯 불교를 위해 힘쓰는 분들과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972년 원찰인 서울 심원사에서 관응 스님(前 직지사 조실)에게 받은 '행원(行願)'이란 법명도 생각했다.

'사회환원' 결정을 내린 주 이사장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1972년 4만평의 임야를 매입해 힘겹게 조성한 경기도 용인의 밤나무농장을 미련없이 처분했다.

드디어 91년 2억원으로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장학금과 교수들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을 만들었다. 행원문화재단은 출연금을 매년 늘려와 현재 8억500만원이나 된다.

현재 주 이사장이 운영하는 아산 레미콘, 서전운수, 개풍시멘트 등에서 나온 이익금을 꾸준히 재단 출연금으로 보태고 있다.

주 이사장에게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을 물었다. "살다보면 의견이 다를 때도 싸울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60년을 살다보니 서로 눈빛만 봐도 이심전심이 된다"고 말했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TIBETAN MUSEUM 대원사티벳박물관

석가모니불 · 10대제자 등 '사리 세계순례 전시회'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의 사리 1천과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옵니다. 2001년 3월부터 북미 유럽등 세계 100여개 도시를 순례하고 마침내 대원사 티벳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트레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 사리 전시회는 부처님과 가섭 · 사리불 · 목련 · 아난다 등 부처님 10대 제자, 그리고 나가르주나(용수보살), 예세쵸겔 등 불교 성인들의 사리 1,000여과가 선보입니다. 이 사리 세계순례는 인도 쿠시나가르 미륵불상 조성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계속되며, 불상안 심장부위에 안치됩니다.

● 전시기간 : 4월 24일 ~ 5월 1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소 :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부처님과 10대 제자 등 불교성인들의 사리


2008년 사리가 봉안될 152m 미륵불상

■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티베트 '대승불교전통보존회'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트레야 프로젝트는 세계 불교의 구심점으로 부처님의 열반지인 인도 쿠시나가르에 152m의 세계 최대 미륵불상을 조성하고 주변에 불교유물 전시관, 도서관, 박물관, 시청각 극장, 공원 등의 부대시설 건립한다는 계획이며, 50층 높이에 이르는 불상 안에는 대웅전, 선방 등 수행공간이 마련됩니다.

■ 교통편 (행사기간 동안 매일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서울 : 용진관광 02)2279-1191~3
조계사앞 06:10 출발 → 을지로 4가 06:30 → 잠실 롯데월드 정문 07:00 → 티벳박물관 도착

부산 : 금강정진회 051)632-0383 / 011-833-0383
부산역 08:00 출발 → 티벳박물관 도착



■ 사리전시회 개막행사 : 4월 27일 오후 1시 (사리 전시회는 개막행사 이전인 24일부터 시작됩니다) ■ 연락처 : 대원사 061)852-1755 / 티벳박물관 061)852-3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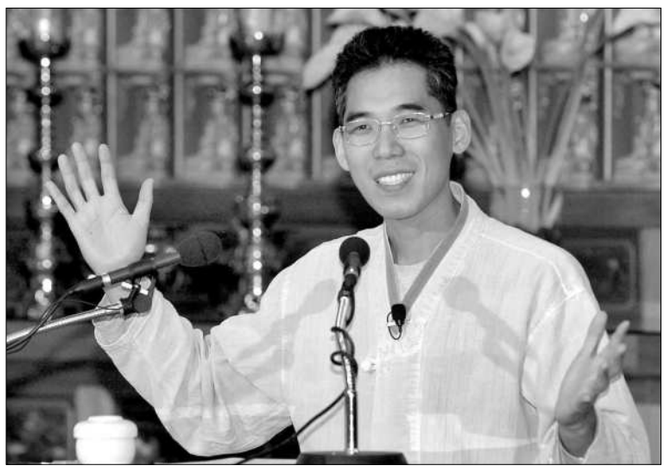
법에 의지해 진실하고 당당하게 산 수행자

특강-한암대종사의 수행관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4월 14일 계속된 '제2회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다섯 번째 강연에 나선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는 '한암 대종사의 수행관'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암 스님은 진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선지식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창조적 인생을 살았던 위인들 중 고독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고 전제하며 "한암 스님 역시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는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50세에 오대산에 입산했다"고 밝혔다.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다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동국대 김호성 교수는 4월 14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진행한 강연를 통해 "한암 스님은 법에 의지해 진실하고 당당하게 산 수행자"라고 평가했다.

1996년 제가 <방한암선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지만 이런 대중적인 자리에서 한암 스님 관련 강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한암 스님은 우리 불교역사에서도 굉장히 큰스님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후학들이 스님을 기리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작업을 잘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을 마련한 월정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한암 대종사의 수행관'입니다. 스님이 어떤 모습으로 수행에 임했고 또 후학들을 제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 나름대로 다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한암 스님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수행

한암 스님은 자기를 위한 수행과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사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수행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셨습니다. 이런 정진 끝에 한암 스님은 28세이던 1904년에 통도사 내원선원의 조실로 추대됐고, 34세이던 1910년에는 내원선원의 선승들을 해산하고 평안북도 맹산의 우두암에서 보림(保任)하던 중 마지막 깨침을 얻습니다.

한암 스님의 철저한 자기 수행과정은 통도사 경봉 스님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조사어록에 보면 중국의 암두 스님과 설봉 스님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명월흉금(明月胸襟)'이라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두가 할을 하면서 말하되,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문으로 좇아 들어오는 것은 집안의 보배가 아니니라."

설봉이 말하기를 "다음날 어찌해야 옳습니까?" 암두가 말하기를 "다음날 큰 교법을 펴뜨리고자 한다면 일일이 자기의 가슴(흉금)에서 흘러나와야 나와 더불어 하늘과 땅을 덮으리라."

설봉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합니다.

한암 스님은 이 구절을 경봉 스님에게 보내면서 진실한 자기수행의 결과가 흉금에서 나올 때까지 정진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진실한 삶의 자세가 중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 창조적 삶을 사셨던 분들치고 고독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암 스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정도로 고독을 즐겼습니다. 한암 스님은 50세이던 1925년에 서울 봉은사 조실 소임을 놓고 오대산으로 입산하셨는데요. 이때 스님이 남긴 말은 '고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는 않겠다."

이후 스님은 입적에 든 1951년까지 27년간 단 한 차례도 오대산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중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의 하나인 '무아(無我)'의 경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이곳 저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참여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암 스님과 같이 오직 수행을 위해 자기 자신을 훨씬히 감추면서 고독을 즐기는 모습도 이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암일발록>에는 한암 스님이 장도환이라는 사람에게 써 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마음 잠으로 감사하오.
먼 길 오셨는데 화창한 봄이구려.
세간법 출세간법 내 모두 모르고서,
심산에 오래 은거함이 부끄러울 뿐이오."

저는 이시의 세 번째 구와 네 번째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간사 출세간사 일 내 알바 아니니, 부끄러이 깊은 산에 오래 숨을 뿐이라오."

부끄러움의 대상은 없습니다. 오래 은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세간사 출세간사 모두 오불관언(吾不關焉,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한암 스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법에 의지하라"

<숫타니파타>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경구와 같이 한암 스님은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부처님이 간 길도 아니고 스승 경허 스님이 간 길도 아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스님은 또 법과 사람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국 근대 선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가 한암 스님의 스승입니다.

한국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지만 한암 스님은 달랐습니다.

한암 스님은 당신이 직접 쓰신 <선사경허화상행장>에 법과 사람을 구별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후대의 학인들이 화상(경허 스님)의 법화(法化)를 배우는 것은 옳으나 화상의 행리(行履)를 배우는 것은 불가하리니 사람들이 믿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을 의지한다고 함은 진정한 묘법을 의지한다 함이며, 스님의 행을 의지하지 않는다 함은 율의(律儀)와 불율의(不律義)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의지한다는 것은 스승으로 모시고 본받는 것이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득실시비(得失是非)를 보지 않는 것이니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필경에는 법도 능히 버리거늘 하물며 남의 득실시비리요."

법을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갖추어서 마음근원을 밝게 비춘다면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참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암 스님은 이 글을 통해 경허 스님의 법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후학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법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가자들.

이와 같이 한암 스님은 평소 당신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한 삶의 자세가 중요하고, 항상 자신과 남에게 당당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아닌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내용입니다.

한암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상원사를 소각하러 온 군인들에게 자신을 함께 태우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에 군인은 상원사의 문짝들만 뜯어내 마당에서 소각했다고 합니다. 평소 철저한 자기 수행과 정진이 없었다면 감히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끝까지 당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분이 바로 한암 스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당한 삶을 산다면 우리 생활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스스로가 행복하고 우리 주위 사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수행학림을 통해서 한암 스님의 법향(法香)을 맘껏 느끼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평창 월정사/정리=유철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수행학림 참가자들 소감

"한암 스님같은 대선지식 가르침 받고싶어요"

이번 수행학림에는 매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2박 3일의 전 일정에 동참하는 시민은 15명 안팎. 이들은 각자의 서원을 가슴에 품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수행학림에 매회 참가하고 있는 이영식(55 · 인천시 남구 학익동)씨는 "한암 스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직 재적 사찰도 없고 법명도 없는 초심자인 이씨는 "여러 차례 강의를 듣고 나니 한암 스님과 같은 대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수행학림 참가를 계기로 앞으로는 조금씩 수행의 바탕을 다지겠다"고 밝힌 이씨는 특히 "아상(我相)을 버리고 탐진치 삼독심을 버릴 수 있도록 남은 여생동안 정진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4월 17일부터 열리는 월정사 제8기 단기출가학교 입교를 앞두고 수행학림에 참가한 문인재(56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씨는 2기 단기출가학교를 졸업한 절친한 친구의 권유로 수행학림에 참가했다. 문씨는 "한암 스님은 평생을 드러나지 않게 수행하신 선지식이었다"며 "요즘 스님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직장을 옮기기 전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 수행학림에 참가했다는 황선준(26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씨는 "한암 스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수행학림을 계기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익요가연구원 소속 요가 지도자들과 함께 수행학림에 참가한 김민희(28)씨는 "성전 스님의 추천으로 왔는데, 스님과 교수님의 강의도 좋고 월정사 주변의 자연도 너무 좋다"며 담담하게 참가 소감을 밝혔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2550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제2회 경기북부 불교음악예술제
꽃으로 오신 임, 우리도 꽃처럼
초대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꽃과 호수의 자연 경관을 가진 고양시 어울림 대극장에서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와 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에서는
"제2회 경기북부 불교음악예술제"를 "꽃으로 오신 님, 우리도 꽃처럼"이라는 주제로 고양시, 남양주시 · 구리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5개시 불교연합합창단이 모여 관객과 출연진이 하나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부처님을 향한 꽃과 음성공양의 환희의 법석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도 명
사단법인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 정 운 문 합장
■ 일 시 : 불기 2550(2006)년 4월 27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장 소 : 고양어울림극장
■ 주 최 :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 / (사)삼보불교 음악협회
■ 주 관 : 고양시불교연합합창단 / (사)천수천안자원봉사단
■ 후 원 : 고양시, 남양주 · 구리시불교사암연합회, 남양주시, 구리시 / 동두천시불교사암연합회 · 동두천시 / 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 양주시 /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 · 의정부시
■ 문의전화 :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031) 969-0108 고양어울림극장 031) 960-9600

화엄산림-제31품~38품

통광 스님(쌍계사 강주)

고립적·독존적 존재란 하나도 없어

4월 15일 진행된 화엄산림에서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은 "화엄경 사상의 핵심은 법계연기(法界緣起)로 정리할 수 있다"며 "법계연기는 일체의 모든 것이 인연이 되고 제각기 구별이 있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무진하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무진연기(無盡緣起)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통광 스님은 또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오도를 했을 때 처음 삼칠일동안 〈화엄경〉을 설했다. 이것은 방편설이 아닌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광 스님의 법문을 정리 요약했다.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은 4월 15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의 법문을 통해 '〈화엄경〉 사상의 핵심은 법계연기'라고 강조했다.

이런 자리에서 사부대중을 뵙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 월정사와 한암 스님, 그리고 〈화엄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 조실을 내려 놓고 월정사에 들어오신 한암 스님은 1936년 조계종 초대 종정에 추대되고 금강산 유점사, 건봉사 오대산 월정사에 3대 본사 승려 수련소를 설치하고, 매년 각 사찰에서 수좌 10명씩 30명을 수련생으로 모집하여 〈범망경〉, 〈화엄경〉, 〈전등록〉을 강설하셨습니다.

> 세간을 초월해야
> 세간에 들어가서
> 중생교화하고
> 구제할 수 있다

한암 스님께서 강의하신 〈화엄경〉 강본은 통현장자가 80권 화엄경을 토대로 하여 40권 화엄론을 저술한 〈신 화엄경합론〉이었습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런 한암 스님의 원력은 제자인 탄허 스님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75년 무렵 월정사에서 있었던 탄허 스님의 화엄특강이 기억에 납습니다.

월정사가 바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행학림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론에 앞서 〈화엄경〉 의미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의 대강백 탄허 스님은 〈화엄경〉을 일심삼덕(一心三德)이 녹아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의 핵심인 일심(一心)에 법신(法身), 반야(般若), 해탈(解脫)의 삼덕이 바로 〈화엄경〉의 요지라고 밝히셨습니다.

불교의 목적도 그렇지만 〈화엄경〉을 설하던 목적 역시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온갖 것이 그대로 비로자나불이고 화엄세계라는 것이지요.

〈화엄경〉은 '초설화엄삼칠일(初說華嚴三七日)'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오도를 했을 때 처음 삼칠일동안 설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방편설이 아닌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화엄경〉 사상의 핵심은 법계연기(法界緣起)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계연기는 일체의 모든 것이 인연이 되고 제각기 구별이 있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무진하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무진연기(無盡緣起)라고도 합니다. 무진연기는 다시 이법계(理法界), 사법계(事法界),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사상의 핵심입니다.

이법계는 절대 진리, 사법계는 삼라만상의 현상을 말합니다. 이사무애법계는 진리와 현상이 서로 걸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사무애법계란 쉽게 말해서 겨자씨 한 알속에 우주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이 서로 거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화엄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화엄경〉을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보면 대방광불(大方廣佛)은 본지(本智)를 표(標)한 것이요, 화엄경(華嚴經)은 묘용(妙用)을 말한 것입니다. 본지(本智)는 평등불성(平等佛性)이고 묘행(妙行)은 본진덕용(本眞德用)입니다.

글자마다의 구체적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대(大)는 체성(體性)이 밖이 없이(無外) 커서 꿈틀거리는 벌레들과 어리석은 이들과 현명한 이들이 모두 참여하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體大). 방(方)은 상모(相貌)가 법계와 같아서 방정(方正)하고 평등(平等)하여 변천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相大). 광(廣)은 작용(作用)이 태허와 같아서 두루 하고 온갖 것을 포용하여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用大).

불(佛)은 체, 상, 용 본지(本智)를 깨달아 증득(證得)한 결과(結果)를, 화(華)는 만행인 꽃이니, 깨달음의 열매(果)에 대해 꽃을 말한 것입니다.

또 엄(嚴)은 만행인 꽃으로써 깨달음의 열매인 부처를 장엄하되 마음도 잊고 비춤도 없어서 장엄함과 장엄하지 않음도 없으니 복지행원(福智行願)과 온갖 덕이 원만하여 이에 십신 비로자나를 증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經)은 소전(所詮)의 법(法)을 관섭(貫攝)하여 일정한 체(體)가 되어서 만세(萬世)에 변역(變易)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화엄경〉을 해설한 청량징관 스님은 "비록 텅 비고 텅 비어 자취가 끊어졌으나 진리의 하늘에는 뭇 별들이 찬연히 빛나고, 맑고 맑아서 말을 붙일 수 없으나 가르침의 바다에는 그 물결 호한(浩瀚·한없이 넓은 모양)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징관 스님은 80권 화엄경을 7처 9회 39품으로 나누고, 신해행증(信解行證)으로써 화엄경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제31품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부터 38품 이세간품(離世間品) 까지입니다.

제31품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은 모든 부처님 세계의 수명에 대해 심왕보살이 말한 것으로 사바세계의 한 겁(劫)은 극락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되고 극락세계의 한 겁은 부처님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즉, 이 사바세계인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의 한 겁은 극락세계 '아미타불 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되고, 극락세계의 한 겁은 가사당 세계의 '금강견 부처님 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아승지 세계를 지나가서 마지막 세계의 한 겁은 승련화 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되며, 보현보살과 함께 수행하는 큰 보살들이 모두 그 가운데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품에서는 깨닫지 못한 자에게 한계를 지어서 여래의 수량무진을 알게 하므로 작은 것으로부터 많은 것, 짧은 것으로부터 긴 것을 나타내 마지막에는 10불의 수명이 무진함을 설한 것입니다.

제32품은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입니다. 말 그래도 팔방의 산과 바다에 모두 보살의 거처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한다는 말입니다.

동방에는 선인산이 있고 남방에는 승봉산, 서방에는 금강염산, 북방에는 향적산이 있으니 사방의 산 모두에 보살들이 그들의 권속과 함께 살면서 법을 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다도 이와 같습니다.

> 하나의 아름다움 가운데
> 많은 광명이 있어서
> 가없는 세계를
> 청정케 한다

제33품 불부사의품(佛不思議品)은 부처님의 과법(果法)과 지덕(智德)이 심광(深廣)하고 초월하여 식정(識情)의 사의(思議)로 미칠 바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身)·구(口)·지업(智業)을 설명한 내용으로 불부사의해탈품(佛不思議解脫品)이라고도 합니다. 이 품의 법주인 청련화 보살은 세존은 머무시는 곳이 한량이 없으며, 또 그지없는 청정한 몸과 걸림 없는 눈들의 열 가지 법이 있어 법계에 두루 하고, 또 열 가지 지혜, 열 가지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34품 십신상해품(十身相海品)에서 보현보살은 여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덕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래의 청수리에는 보배로 장엄한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 한량없는 광명의 그물이 있어 여러 가지 광명을 비춥니다.

여래의 눈 코 혀 입 이 어깨 가슴 손 발 발가락에도 97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양의 거룩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제35품 수호공덕품(隨好功德品)에서도 역시 티끌의 수와 같이 많은 상(相)을 따라서 티끌 수와 같이 많은 호(好)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은 모습이고 호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의 아름다움 가운데 많은 광명이 있어서 가없는 세계를 청정하게 하고, 무간 지옥에 들어갈 중죄에서 벗어나 공덕이 불가사의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금강경〉에는 32상 80종호가 있으며 〈화엄경〉에는 97상에 각각의 호(好)가 있습니다.

제36품 보현행품(普賢行品)은 보현보살의 평등한 인행(因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래는 교화를 받을 중생을 위하여 세상에 난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여러 다른 보살들을 여래와 같이 생각한다. 부처님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여 보살행을 좋아하며, 열 가지 법을 닦아서 열 가지 청정함을 구족한다. 그리고 열 가지 광대한 법을 갖추고 열 가지 두루한 곳에 들어가며, 열 가지 묘한 마음에 머물러서 열 가지 부처님 법의 교묘한 지혜를 얻으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평등하게 된다"고 보현보살은 강설합니다.

제37품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에서는 십신(十信)으로부터 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 닦아 여기에 이르러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와 자비의 행이 원만해지면 본지여래(本智如來)가 자성(自性)으로부터 좇아 일어나서 묘덕(妙德)이 원만히 갖추어 지게 됩니다.

처음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서 믿음을 내어 오위(五位)를 겪으며 나아가 닦아 11지(地)에 이르러 불과(佛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앞의 보현행품은 평등한 인(因)을 말한 것이고, 이번 품에서는 평등한 과(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래출현품을 보통 성기품(性起品), 즉 불성이 드러나는 품이라고도 합니다.

제38품은 이세간품(離世間品)입니다. 이 품은 말 그대로 세간을 초월해야 세간에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재동자가 발심을 해서 53선지식을 찾아가 도를 성취한다는 내용이 제39품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엄경〉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미 많은 법사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화엄경〉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화엄경〉에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쳐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 고립적이고 독존적인 존재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곧 일체요, 일체는 곧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도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부처님의 행만 닦으면 됩니다. 중생의 행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뜻을 가슴에 잘 새겨서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창 월정사/정리=유철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통 침술, 한약, 기공 대특강

본 활인정사내 『**동양의학방송국**』에서는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6. 5. 3 - 10. 31(6개월)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 오후5시)**
- 장 소 : 활인정사내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시 간	과 목	강 사	내 용
오전 10시-12시	전통 침술	덕운스님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오후 1시-3시	한약	박정아 한의학 석사	스스로 건강 지키는 한방차 (계절과 각종 질환에 먹는 한약차)
오후 3시-5시	웰빙 기공	소요 기공 연구가	웰빙 양생기공 (전통기공, 태극권, 명상 등등)

강사약력
- 덕운 스님 · 한국불교 태고종 대덕스님 · 중국 한의사 · 사단법인 한국서화작가회 초대작가
- 박정아 한약사 · 한의학 석사 · 의과학 박사 ·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연구원 ·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 이사
- 소요 기공연구가 ·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기공전공 · 한국 노동교육원 교수 역임 · 저서 [웰빙기공10분][노자의 길][장자의 길: 근간]

- 접수기간 : **4월 20일 - 5월 2일까지**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4만원 (불교인 50%할인)
- 문 의 : ☎ 02)3487-2311 / H·P 011-335-9351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성전 스님의 2006 산사의 풍경소리 | 나의 행자시절

특집 |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지난 1996년과 1997년에 이어 2006년 다시 시작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불자들의 선행개혁운동인 "청정운동"을 조명한다.
왜 다시 청정(淸淨)운동인가?
제1차 청정운동의 성과와 불교운동의 방향
2006 청정운동 이렇게 실천하자

특별기획 | 미국불교의 현장 속으로 3
한국불교는 미국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미주 전법(傳法) 40년이 지난 진환기의 한국불교가 미국 내 개척불교운동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현지 취재기
1. 미국 동·서부지역 주요 한국사찰 탐방
2. 미국식에 맞는 한국불교·미국 내 한국사찰 명부

종범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 6. 선의 기원과 간략한 역사

지상중계 | 비야나 과욱 사야도가 지도하는 호흡관 수행법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참회

열린불교, 열린경영 | ❷ 한마음선원 리포트

군법사 포교기 | 김원도 양구 노노부대 의선사, 백태현 법사

한호흡 쉬고 떠나는 여행 | 어느 노부부의 들꽃사랑 이야기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문화기획 | 소설가 김종욱이 쓰는 '바이칼에서 만나는 신화와 불교'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한국식수박물관

국제불교 산책 | 미국 하버드대학 앨비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큰맘 먹고 종교를 버려보자"

해외돋신 | 옥스퍼드에서 띄우는 편지
영국의 작은박물관, 옥스퍼드 두 박물관에서 문화의 힘을 느끼다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나른한 봄날을 위한 산야초 별식

건강에세이 | 간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치유법

억불시대 수행열전 | 조선시대 멋박 화선으로 어둠을 밝힌 이들

생활 속의 불교설화 | 명색(名色), 본질이면서 접례기인 그 오묘함에 대하여

고전읽기의 즐거움 | 외롭고 한가한 수행사, 법주사 고현(孤閑) 대사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❷ 서운의 옛다리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8> 화두 참구에 조심해야 할 열 가지 병

참선하는 문중에서 믿음과 원력을 바탕으로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은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알고 보면 온갖 의심이 오직 하나의 의심일 따름이다. 화두 하나만 제대로 타파하면 온갖 의심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그러니 화두를 들 때 화두 하나에만 마음을 모아야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주를 조금이라도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오고 가며 앉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화두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할 뿐이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제멋대로 이리저리 분별해서는 안 된다.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공부를 챙겨가다, 이치로도 알 수 없고 뜻으로도 알 수 없으며 아무 재미도 없다는 것을 알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경계가 올 때, 바로 그 자리가 사람의 목숨을 내던질 곳이요 화두 공부가 끝날 수 있는 자리이다. <선가귀감> 16장에서는 화두를 챙길 때 생기기 쉬운 병을 지적한다.

話頭 不得擧起處承當 不得思量卜度 又不得將迷待悟 就不可思量處 思量 心無所之 如老鼠入牛角 便見倒斷也 又 尋常 計較安排底 是識情 隨生死遷流底 是識情怕 怖悼惶底 是識情 今人 不知是病 只管在裡許 頭出頭沒

화두를 드는 자리에서 무엇을 알아차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 뜻으로 헤아려 짐작해서도 안 되며,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떤 깨달음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 생각하면, 마음 갈 곳 없는 것이 마치 늙은 쥐가 구부러진 쇠뿔 속에 들어가다 더 나아갈 곳이 없어 낭패를 당하는 것과 같다. 또 늘 이리저리 따지는 일은 중생의 알음알이고 삶과 죽음에 끌려 다니는 것도 중생의 알음알이며 두렵고 무서워 갈팡질팡 하는 일들도 중생의 알음알이일 따름인데, 요즈음 사람들이 이 병을 잘 알지 못하므로 다만 그 속에서 부질없이 나고 죽고 할 뿐이다.

이에 대해 서산 스님은 간화선을 참구할 때 조심해야 할 열 가지 병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오로지 화두만 참구하라고 말한다.

"화두 참구에 조심해야 할 열가지 병이 있다. 첫번째는 뜻으로 헤아려서 짐작하려는 병이다. 두번째는 일상생활의 경계에 집착, 이것이 진리라고 고집을 내세우는 병이다. 셋째는 말의 논리만 가지고 살 길을 찾는 병이다. 네번째는 글에서 어떤 내용을 끌어다 깨달음을 증명하려는 병이다. 다섯번째는 화두를 드는 자리에서 무엇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병이다.

여섯번째는 화두를 챙기지 않고 아무 생각없이 그럴싸하게 앉아 있기만 하는 병이다. 일곱번째는 유(有)나 무(無)의 알음알이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병이다. 여덟번째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병이다. 아홉번째는 어떤 도리로써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병이다. 열번째는 어리석게 깨달음을 기다리는 병이다. 이 열가지 병을 떠난 사람은 화두를 들 때 오로지 정신을 차려 다만 '이것이 뭐꼬?'를 의심할 뿐이다."

시비 분별은 모든 장애의 근원
심안 열고 화두 들면 병 사라져

<선요>에서 본 선객의 열 가지 병폐

그래도 공부에 진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두 참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해보아야 할 점을 고봉 스님은 <선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전생에 닦아놓은 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둘째,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셋째, 하루 공부하고 열흘 놀았던 것은 아닌가. 넷째, 근기가 시원찮아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가. 다섯째, 번뇌 망상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섯째, 고요한 경계에 걸려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일곱째, 쓸모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덟째, 시절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홉째, 화두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열째,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가귀감>이든 <선요>이든 선객에게 일어나는 모든 장애의 근원은 시비 분별에 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나'와 '경계'를 시비 분별하는 데에 있으니 알고 보면 중생의 생사도 시비 분별하는 마음에서 오는 자질구레한 것일 뿐이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헛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생각으로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 화두만 잘 챙긴다면 위에서 말한 모든 병폐들을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두를 들 때 화두에 마음이 집중되어 심안(心眼)이 열려야 한다. 경을 볼 때에는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경의 근본 뜻을 볼 수 있는 경안(經眼)이 열려야 한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에 몰두해 일 자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오고 가며 앉고 눕는 모든 삶에 마음이 집중돼 하나가 될 때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수행으로서, 살아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사시마지(巳時摩旨)

절에서 혹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스님이 오른 손에 제기를 정성스레 들고 법당으로 가는 모습을요. 흔히들 이를 '사시마지(巳時摩旨)'라고 하지요.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세 끼를 다 먹지만, 부처님은 평소 하루에 딱 한 번 오전에만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훗날 제자들도 그 뜻을 받들어 이 때에 맞춰 공양물을 올리게 됐지요.

그럼 왜 사시에 부처님께 쌀밥을 불기(佛器)에 담아 올리는 것을 마지라 했을까요? 사실 그 어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께 올리는 밥' '마지 밥'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손으로 만들어 올린다' 또는 '손으로 빈다'해 마지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는 글자 그대로 '맛있는 진지를 올리다'란 의미입니다. 즉 '정성스럽게 만든 공양을 올리니 제 뜻을 감읍해 주십시오'란 뜻이지요. 아마도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했던 부처님의 수행정신을 받들어 제일 먼저 공양을 올린다는 것이 사시마지의 참뜻이겠지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행복동 사람들

용서

배종훈 (bjh4372@hanmail.net)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9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9강 제 5장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서설

여래는 오지 않는다

<금강경> 하면 언필칭 떠오르는 사구게가 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가 그것이다. 앞의 4장의 이야기를 총괄 요약하는 이 한 마디는 불교조차 상(相)임을 정문에 일침으로 질러준다. 그 침 앞에 명현(瞑眩), 눈 앞이 아찔하다.

원문, 언해, 번역

(원문)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身相, 得見如來. 何以故. 如來所說身相, 卽非身相. 佛告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

(언해)

"수보리야! 뜻에 어떠뇨? 어루 신상(身相)으로 여래(如來)를 보랴 못 보랴?" "아니이다, 세존하! 신상으로 여래를 시러(능히) 뵙지 못하리니. 어찌어뇨? 여래 일르신 신상이 곧 신상이 아니니이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일르시되, "무릇 있는 상(相)이 다 이 허망(虛妄)이니, 만약 제상(諸相)의 상(相) 아닌 줄을 보면 곧 여래(如來)를 보리라."

(번역)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능히 육신의 모습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 여래를 뵙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붓다의 증거로) 말씀하신 육신의 표징은 객관적 사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붓다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그렇다!) 무릇 모든 표징은 다 실재하지 않는 환상이니, 만약, 일체의 표징이 순전히 의식의 구성물임을 깨달으면, 그때 여래를 보게 되리라."

진리의 환상도 버려라

5장의 제목은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이다. "객관적 사태(理)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4장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려준 바 있다. 붓다는 1) "보살은 모든 중생을 니르바나로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2) 그 보살의 삶은 무한히 주고 베푸는 것인데, 거기 아무런 자의식이나 보답에의 기대가 없다.

지금 여기서는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준다.

보살은 그런 자아의 환상도 없어야겠지만, 3) 더욱 "진리에의 환상도 없어야한다."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경배하는 진리의 화신, 여래는 육신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별히 위대한 인격의 표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불교가 도그마(dogma)가 아님을, 통념의 종교성과 같이 취급되기를 단적으로 거부하는 혁명적 선언이다. "성자는 없다!"

모든 종교는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종교의 배타성과 맹목성이 있다. 그런데 불교는 스스로를 절대화하기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위대해지기를 거부함으로써, 불교는 진정 누구보다 높은 위대한 종교가 되었다.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성자는 성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한다." 이 역설의 논제는 <금강경> 전체를 통해 거듭 거듭 반복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거듭 말하노니, "여래는 없다"

<금강경>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이 변주를 한 자리에 놓고 보기로 한다.

1) 제 13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 수보리여! 뜻에 어떠뇨. 어루 32상(相)으로 여래를 보리 못 하리?" "아니이다. 세존하! 32상으로 여래를 시러 뵙지 못 하시오리니, 어찌어뇨? 여래 이르신 32상이 곧 이 상 아니라. 이 이름이 32상이니이다…."

…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三十二相, 得見如來. 何以故. 如來說, 三十二相, 卽是非相, 是名三十二相.

2) 제 20장 이색이상분(離色離相分): "수보리야! 뜻에 어떠뇨? 부처를 어루 구족색신(具足色身)으로 보랴 못 보랴." "아니이다, 세존하! 여래를 구족색신으로 보시지 못 하리니. 어찌어뇨? 여래 이르신 구족색신이 곧 구족색신 아니라, 이 이름이 구족색신이시니이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뇨? 여래를 어루 제상(諸相) 가짐으로 보랴, 못 보랴?" "아니이다, 세존하! 여래를 구족제상으로 보시지 못 하리니. 어찌어뇨? 여래가 일르신 제상구족이 곧 구족이 아니라, 이 이름이 제상구족이시니이다."

須菩提, 於意云何. 佛可以具足色身見不. 不也, 世尊. 如來不應以具足色身見. 何以故. 如來說 具足色身, 卽非具足色身, 是名具足色身.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可以具足諸相見不. 不也, 世尊. 如來不應以具足諸相見. 何以故. 如來說諸相具足, 卽非具足. 是名諸相具足.



3) 제 26장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 "수보리야! 뜻에 어떠뇨? 어루 32상으로 여래를 보랴 못 보랴?" "수보리가 사뢰되, "그리, 그리합니다! 32상으로 여래를 뵈오리이다." 부처 가라사대, "(그렇지 않다,) 수보리야! 만일 32상으로 여래를 볼진댄, 전륜성왕이 곧 이 여래이로다." 수보리가 부처께 사뢰되, "세존하! 내 부처 일르신 뜻 알기론, 32상으로 여래를 뵈옵지 못하리로소이다." 그때 세존이 게를 일르시되, "만일 색(色)으로 나를 보며, 소리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邪)한 도를 행하는지라, 여래를 능히 보지 못하리라."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 觀如來不. 須菩提言, 如是如是. 以三十二相觀如來. 佛言, 須菩提, 若以三十二相觀如來者, 轉輪聖王, 則時如來. 須菩提白佛言, 世尊, 如我解佛所說義, 不應以三十二相觀如來. 爾時世尊而說偈言,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4) 제 29장 위의적정분(威儀寂靜分): "수보리야! 만일 사람이 일르되, '여래가 오며 가며 앉으며 눕느니라' 하면, 이 사람은 내 일르는 뜻을 알지 못하나니. 어찌어뇨? 여래는 부터 온 데 없으며 또 간 데 없을새, 이름이 여래라."

須菩提, 若有人言, 如來, 若來, 若去, 若坐, 若臥, 是人不解我所說義. 何以故. 如來者, 無所從來, 亦無所去. 故名如來.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제 13장의 '32상', 제 17장의 '인신장대', 제 20장의 '구족색신'은 다 같이 위대한 인물의 신체적 특징을 가리킨다. 붓다는 이들 표징으로 여래를 보려하지 말라고 당부해 마지 않는다.

나아가, 제 26장에서 붓다는 '형상과 음성으로 여래를 찾는 사람'은 삿된 이단이라고까지 경고한다. 제 29장에서는 이 모든 사태를 종합해서 말한다. "여래는 오지도 않았고, 또한 가지도 않았다!" 그동안 여래를 찾아 덤불을 헤치고 숲을 헤맸던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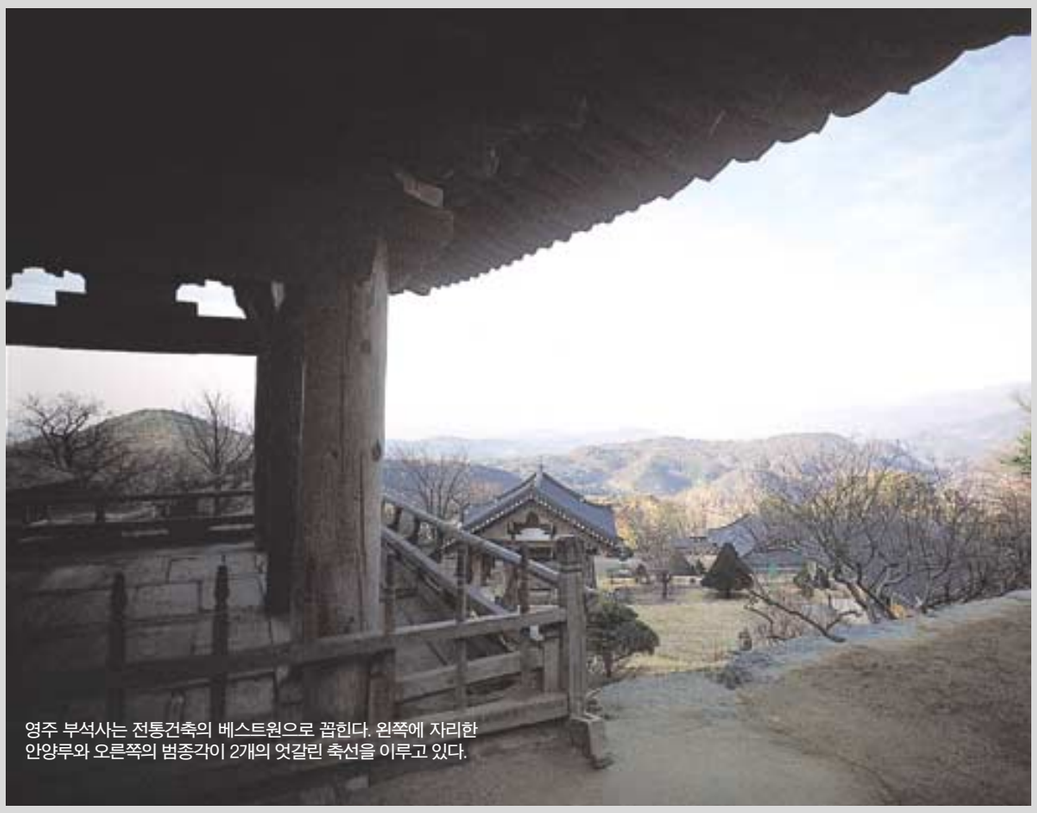
이제 어찌할거나. "붓다는 없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디 있는가. 경전에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니, 당장 "붓다는 설법한 적이 없다"는 꾸중이 돌아온다.

제 21장 비설소설분(非說所說分). 이 이야기를 선의 창시자 달마도 그대로 따라 했다. "확연무성(廓然無聖)!"

붓다도 없고 성스러움도 없다. 모든 발판과 의지처를 빼앗기고 그럼에도 남은 자리가 있을까. 그곳은 바로, '내 마음'이다.

내가 곧 붓다이고, 내 마음이 곧 금강경이다! 아니 그렇지 않고, 나는 붓다가 아니고, 내 마음은 금강경이 아니다!

대체, 누가 이 말을 믿겠는가. 경건한 불교도들 중 누가 "여래가 없다"는 말을 수긍하겠는가. 그 충격과 의혹이 다음 6장 정신희유분(正信稀有分)에서 제기된다. "세존하! 자못 중생이 이같은 말씀 장구(章句) 듣잡고, 실(實)한 신(信)을 낼 이 있으리이까, 못 하리이까?" 世尊, 頗有衆生, 得聞如是言說章句, 生實信不. ■한국학중앙연구원



영주 부석사는 전통건축의 베스트원으로 꼽힌다. 왼쪽에 자리한 안양루와 오른쪽의 범종각이 2개의 엇갈린 축선을 이루고 있다.

건축은 삶이고 역사다



김제 금산사.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 1·2·3
김봉렬 글 · 이인미 사진
돌베개 | 각 권 2만5000원

한국 전통건축에 숨어있는 과거정신 읽기

시대의 모습을 담는 그릇이요, 깨달음과 생활이 만든 환경이며, 인간의 정신이 대지 위에 새겨놓은 구축물인 건축. 역사를 통해서 건축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건축가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가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를 펴냈다.

저자는 한국의 전통건축에 대해 한마디로 "옛 사람들의 앎과 삶의 산실이며, 당시대에 충실하게 지어졌기에 영원할 수밖에 없는 고전(古典)"이라고 말한다.

그는 "앎은 깨달음이며, 삶이란 변화이고, 위대한 건축은 그 깨달음과 변화의 내용과 과정을 담고 있다"며 "영원한 건축은 그 깨달음을 전달해주어 또 다른 앎을 가능하게 하며, 항상 변화하면서 또 다른 삶을 얻게 한다"고 설명한다.

저자처럼 건축속에 숨어있는 과거의 정신을 읽어낸다는 것이 현재의 우리 삶과 건축에는 어떠한 의미를 줄까?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의 건축도 여전히 정신활동의 결집이며, 건축가란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공간과 형태로 표현해 내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재의 물음에 답을 준다고 한다.

즉 주어진 조건을 충실히 풀어가는 성실함,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고 즐거워 하는 건강함, 일상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실용성, 평범함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깨달음들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의 해답이자 의미라는 것이다.

한국 전통건축의 의미와 논점을 지닌 대표작과 주요 테마 25가지를 집대성한 주요 내용을 들춰 보자.

1권 '시대를 담는 그릇' 편에서는 역사적 관점 즉 시대성과 지역성이 부각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다. 먼저 '세계적인 유산의 또다른 이야기인 불교사와 석굴암' 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답게 최근까지 끊이지 않는 관심과 지식인 김대성과 신라의 국제성과 과학성이 만들어낸 석굴암과 불국사의 시대적 성취를 만난다.

또 '문화전환기의 건축' 으로 마곡사를 소개한다. 고려시대 원의 지배와 문화수입의 상징인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말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강등이 엿보이는 실패한 마곡사탑을 통해 문화전환기의 건축상을 읽는다.

'백제계 건축의 평지성, 미륵사와 금산사' 에서는 백제권의 미륵신앙과 그 이상향인 용화삼회의 세계를 구현한 대표사찰 미륵사와 금산사의 입지적 건축적 특성을 통해 백제인의 신앙과 건축정신을 만나본다.

'장인정신과 공예적 전통, 전북의 작은 사찰들' 에는 백제시대 전북지역 건축의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것이 17세기 조선에까지 이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통해 그 지역 건축인들의 장인정신과 공예적 전통을 밝힌다.

2권 '앎과 삶의 공간' 에서는 미륵대원을 둘러싼 좌절된 영웅들의 전설과 폐허에 남겨진 미완성의 사찰을 통해 전성기의 모습과 완성된 석굴사원에 대한 상상적 대리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 옛모습을 큰 변화없이 간직하고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의 고찰 선암사의 변화와 역사, 그리고 살아있는 수도공간을 면면히 살피고 있다. 이 장에는 폐허를 폐허답게 보존하기 위한 지혜와 혜안도 역설돼 있다.

3권 '이땅에 새겨진 정신' 에서는 한국 건축 전반에 흐르는 정신활동에 대한 궤적을 추적하고, 그 정신을 어떻게 체계화 조직화 되어 건축물이나 공간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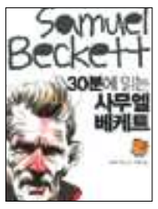
특히 '불교건축이론' 이라 평가받는 통도사와 '한국건축 베스트원' 이라 불리우는 부석사, '살아있는 목구조 박물관 봉정사' 에 주목한다.

김봉렬 교수는 "이책을 통해 건축인들에게는 전문적인 깨달음에 도움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한국문화 전반에 깔려있는 정신활동의 중요함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철저한 실험정신으로 살았던 작가 사무엘 베케트



30분에 읽는 사무엘 베케트 랜덤하우스중앙, 스티브쿠츠지음

사무엘 베케트는 우리에게 <고도를 기다리며>로 알려졌을뿐 그리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다. 연극도 그러했겠지만, 실상 그의 문장은 훨씬 어렵다. 사무엘을 소개하는 이 책은 그의 난해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난해함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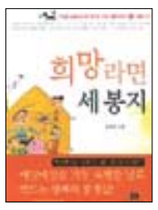
역시 글은 작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맛을 찾아야 하는가보다. 글에 작가의 삶과 경험이 배어있기 때문이겠지만, 사무엘과 같이 어려운 작가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은 알듯 하였다. '고도' 가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거기에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작가의 말은 그의 작품이 추구하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대변한다. 철저하게 실험적 정신으로 살았던 작가의 작품은 결국 모든 것을 독자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책과 함께 다시 사무엘의 책을 펴기로 하였지만, 음악적 특성, 상징성, 행간을 읽어야 하는 의미들을 염두에 두고라도 그의 글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녹녹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책이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작가에 대하여 이처럼 정리된 자료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마치 문학수업을 받는 것과 같은 책이다.

(김종선, booktopia.com)

절망의 나락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트니…



희망라면 세봉지 휴먼하우스, 김옥숙 지음

이 책은 그러한 좌절, 절망 또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희망을 일구어 내고 또한 희망을 바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

송곳에 찔려 실명을 당했으면서도 결국 그 송곳으로 점자를 만들어 낸 루이 브라이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게 됐다. 가난으로 인해 붕어빵을 구워야 하는 삶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붕어빵을 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담은 붕어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마음을 희망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림을 사랑하고 그리는 것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오른손이 잘린 사고를 당해 좌절했을 때, 구족화가의 편지를 받고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다시 마음먹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아직 절망하기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세를 배우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고 자신의 현재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귀중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madeby1, book.naver.com)

책속의 밑줄긋기



○…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진실은 꼭꼭 숨게 마련이다. 반드시 동조를 얻어야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신호를 내보낸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언제 어느 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편향된 생각에 희생이 되는 것이다.

정치가 부류는 대체로 신뢰받지 못한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필요로 한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설 곳을 잃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집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집단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는 저런 말을 한다. 말하는 사람이 모든 이의 마음에 들 요량으로 교묘하게 이랬다저랬다 입장을 바꾸면 진실은 있을 수 없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72쪽에서, 21세기북스, 웨인 다이어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연대칼라지붕공사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가입 복용100일후 발병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는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두통),(마비),(저림),(심한 현기증),(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 주원료 : 야생 머위 추출 액상과 생메실 추출즙 액상, 곡즙 추출혼합물

폴시노는 천연의 알카리성 식품으로 꾸준히 음용하면 산성화된 체질의 개선과 면역력 증강에도 유용하고, 이미 뇌졸증 전조증세를 경험하신 분은 더 늦기 전에 지속하여 음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본 요법은 제조과정 중에도 일체의 금속으로 된 기계나 기구가 쓰여지면 안되므로 흔히 일반 제조업에서 보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제조기계설비와 규모가 큰 공장설비로 제조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만으로 처리하여 생산 됩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지혜서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계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천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가귀감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묵산에 첫눈 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금강경 서울 법회가 5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법회입니다. ☎(02-522-0122

전국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 광주선원
선문염송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062-944-4088
• 부산선원
금강경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051-545-2460

www.zenparadise.com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바로보인



간화정로
월암 스님 지음
현대북스
1만8000원

행복에 이르는 선수행의 나침반

간화선에 대한 명철한 이해와 코끝시린 수행자의 삶을 통해 선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지침서가 발간됐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 스님은 최근 펴낸 <간화정로(看話正路)>에서 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깨달은 이후의 경지에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선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고통아닌 행복으로 돌려쓰는 깨어있고 열려 있는 삶 자체라고 말한다.

그래서 조사선의 핵심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내가 숨쉬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주인이 되어 해탈의 진실세계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동진출가하여 선수행으로 일관해온 월암 스님은 "도를 생각하는 마음 잠깐이라도 놓지 말라"고 경책한 은사 도문 스님과, 아들을 수행자의 길로 떠나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가야 하느냐"고 애기한 어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말을 채찍으로 삼아왔다.

그런만큼 간화선에 대해 몸소 느끼고 연구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수행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되어있다.

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간화정로>를 발간한 것은 스님이 중국유학시절 선종 조정 100여곳을 참방하고, 중국의 여러 선지식을 만나고, 백림선사 남화선사등에서 7안거를 성만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특히 대혜선사가 수행과 교화를 했던 천목산 경산사 능인선원의 폐허가 된 간화조정을 보고 간화선풍진작에 일조하리라 마음먹으며 해제철이면 틈틈이 써온 원고도 한몫했다.

그러던 2004년 덕숭총림 정혜사 능인선원에서 동안거 정진중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간화선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수좌 설정 스님의 말에 용기를 얻어 책을 엮게 된 것이다.

책의 구성은 1장 선종 수증론(초기선종, 남북종, 조사선), 2장 간화선의 성립배경(문자선과 폐풍, 무사선의 폐해, 묵조선과 묵조사선), 3장 간화선의 성립(공안참구의 연원, 간화의 성립), 4장 간화선의 이론과 수행(간화선 수행의 전제, 공안의 의미와 목적, 간화선의 특징, 화두참구, 간화선의 선병), 5장 현재 간화선풍에 대한 반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부록으로는 '무' '이 뭣고' 화두에 대한 월암 스님의 의견과 설명, 대혜종고선사 행장을 소개하고 있다.

월암 스님은 "가치관의 충돌과 혼돈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이 문명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많은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사람들에게 선수행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백제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낸

한계주씨

"역사탐방 하고나니 육도윤회한 기분"



"몇년동안 백제불교의 원류를 찾아 여러곳을 다녀보니 육도윤회(천상 아수라 인간 아귀 축생 지옥)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필가 한계주씨가 파키스탄과 실크로드 중국 등을 역사탐방한 뒤 최근 <백제불교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2004년 2월 우연히 불상을 처음 만들고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의 고향인 파키스탄의 쵸타라호르를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돈황 운강 용문석굴을 비롯 보정산과 오대산 석굴의 불상을 접하면서 온화하면서도 잔잔한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밖에도 '시드니 기행' '휠체어를 밀고 미국을 가다' '신라 천년의 미소' 등도 곁들어져 있다.

"처음에는 불자의 의무로 간다라지방을 방문하는 귀한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보고 듣고 한 것을 메모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한갓 여행자의 눈으로 다소 외람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행문 형태로 함께 여행다닌 40~50여명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인 만큼 한계주씨의 글은 여행을 하며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서술돼 있다.

특히 실크로드의 허물어지는 흙집앞에서 한때 집의 형태를 보였지만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 생멸이 둘이 아니라는 설명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재미가 없어서 불교서적은 읽지 않는다는 지인들로부터 불교를 새삼 다시보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운강석굴에서 만난 가섭의 미소를 통해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문한 내용까지 소개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들은 아름다움과 친교를 맺음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설명하며 타종교인들도 불교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한계주씨는 "이번 역사탐방을 하고 책을 엮으면서 불교미술도 공부하고 인도 및 중국불교사도 공부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역사는 우리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 후세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백제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한계주 지음
세존
1만2000원

8·15 해방 이후 한국불교사 조명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김광식 지음 | 불교시대사 | 1만8000원

격동의 시기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의 한국불교사를 집중 조명하는 <한국 현대불교사>가 발간됐다.

이 시기 불교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김광식 부천대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을 정리하여 묶은 이 책은 불교계가 현대사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1부 '해방공간과 불교'에서는 8·15 해방과 전국승려대회,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농지개혁과 불교계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2부 '조계종단의 재정비와 그 성격'에서는 조계종의 성립과 역사적 의의, 해인총림의 어제와 오늘, 근현대 불교와 승려대회, 근현대불교사에 나타난 폭력문제를 분석한다.

3부 '정화운동의 주역'은 청담, 성철, 서운, 월하, 탄허 스님의 교육과 불교개혁, 정화운동 등을 열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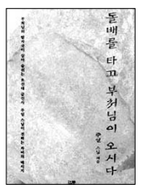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 **한국인의 염불수행과 원효 스님**(정목 스님, 하늘북)= 양산 정토원에서 염불수행을 하고 있는 정목 스님이 원효스님의 생애와 저술 그리고 정토사상, 신라 조선 고려시대 염불등 한국인의 염불수행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저자인 정목 스님은 "염불의 강물, 그 근원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부터 고이기 시작했다"며 "시대는 변해도 염불의 강물은 고뇌하는 민중의 염원을 안고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염불에 대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선'이라고 설명한다.



■ **돌배를 타고 부처님이 오시다**(주일 스님, 찬섬)=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가 고구려가 아닌 가야국을 통해 전해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김해 초선대 금선사 주지 주일 스님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부허황옥이 16세때 오빠인 장유화상등 20여명과 함께 돌배를 타고 가야국으로 오면서 파사석탑을 싣고 왔음을 설명한다. 또 가락국 2대왕인 거등왕이 선인들과 함께 조선대 금선사 바윗돌에 새겨진 기국석(돌로 만든 바둑판)에서 바둑을 두고 차를 마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무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9000원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명구 100가지

한생각 미혹하면 넓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서
위는 밝으나 아래는 어둡다.
한 생각 깨달으면 바람이 어두운 구름을 쓸어
상하가 훤칠하게 밝아진다.
더러움과 청정함이 일어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으며,
범부와 성인이 지어지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금강정오가해 中

이 글귀에 대해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은 최근 펴낸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문제의 열쇠는 우리들의 한 생각이다. 이 한 생각이 어두어지면 온 갖 악을 다 저지르고 분에 없는 욕심을 부린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 그 수단과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고 남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래서 세상이 부정과 부패와 억울한 일들로 얼룩져 있다.

만약 한 생각 선량한 마음을 일으켜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 만큼 세상은 또 밝아진다.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세상에도 선과 악이 반반이다. 그러므로 더러운 세상과 청정한 세상이 모두가 한마음의 작용이며, 성인과 범부의 삶도 또한 이 한 마음의 작용이다."

탄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강백으로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한 무비 스님이 뽑은 명구 100선은 이렇듯 불교의 핵심을 가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스님은 명구를 소개한 뒤 읽는 이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박한 해설도 덧붙였다.

이 책은 팔만사천 법문의 요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권할 만하다.

스님은 "이 작은 책을 거울 삼아 혼탁한 마음을 비춰본다면 어느새 지혜와 해탈, 대자유, 대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 닷이다** 시공사, 지수 스님, 9500원
- **자기를 속이지 말라** 열림원, 정찬주, 9800원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300가지** 민족사, 석성우외, 6000원
- **산사에서 만든 차** 정리출판사, 이정애, 3만3000원
- **생활속의 예불문** 효림, 김현준, 6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

불교 최초의 죽음학 해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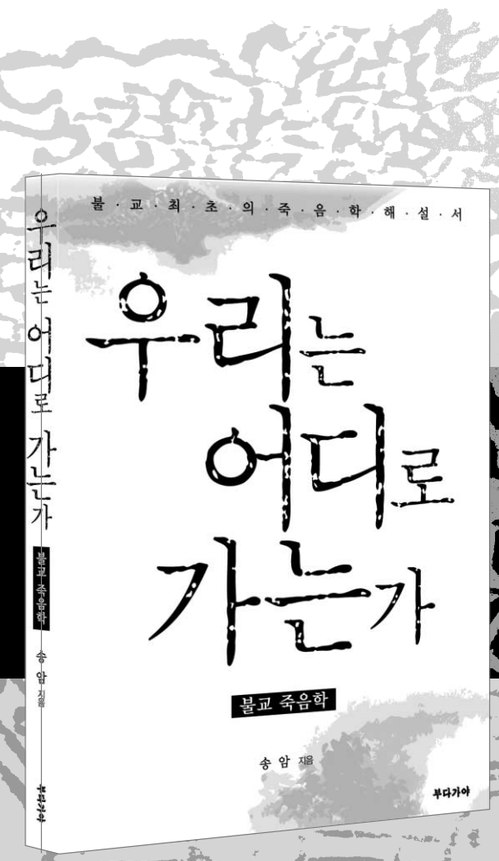
저자의 죽음과 관련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사실감있게 쓰여진 이 책은 죽음의 정의와 사상, 죽음과 법의 관계, 다양한 죽음 이야기, 죽음과 관련한 영가봉송의 제반 불교의식 등이 저자의 솔직하고 재미난 문체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불교 죽음학

송 암 지음 / 신국판 / 정가 12,000원

이 책은 임종과 관련한 직종의 종사자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실증적 참고서가 되리라 자부한다.
아울러 누구나 체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부디 이 책이 죽음에 대한 진솔한 상담자의 역할을 다하여 죽은 자에게는 인로왕보살이 되고
산 자에게는 삶이 보다 여유롭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소리 음악 무용 통해 질병 치유

명상치유 공연예술 및 심포지엄 개최

5월 2~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예술공연장서



5월 2~4일 'APPAN-명상치유 공연예술축제'에 선보이는 공연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매방 '승무', 이선옥 '선무', 인도네시아 '전통의식무', 중국의 '타이완 오페라'.

세계 무형문화재 공연도

명상의 심신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공연예술로 선보인다면?

소리와 음악, 무용을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공연이 마련된다.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네트워크 'APPAN(Asia Pacific Performing Arts Network, 이하 에이팬)'이 준비한 'APPAN-명상치유 공연예술 축제와 심포지엄'이 바로 그것이다.

에이팬 한국본부(회장 이선옥)와 조계종 총무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이기도 한 이번 축제에서는 인도의 구티야탐, 일본의 노, 티벳의 전통불교의식음악, 캄보디아의 업샬라, 중국의 북경 오페라,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식무, 한국의 선무도와 선무 · 범패 작법 · 가야금병창 · 승무 · 설위설경 · 비나리 · 판소리 등을 선보인다.

2일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명상과 치유공연예술'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에이팬 산타 국제회장, 전현수 박사, 전세일 박사 등이 명상과 공연예술의 치유력에 대한 기조논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명상과 치유공연예술'에 관한 심포지엄1에서는 '힌두 사원 전통 의식무용과 음악' '일본 전통 궁증극 노'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전통의식무' '범패 작법' '티베트 전통 불교의식음악'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다.

2일 오후 3시~5시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도의 '쿠티야탐', 한국의 전예주씨가 선보이는 판소리 '심청가', 일본의 전통 궁중극 '노', 한국의 동희 스님이 선보이는 '범패작법무', 텐진 짐파 스님이 선보이는 티베트 불교의식음악, 인도네시아 전통의식무, 한국 이광수씨의 비나리가 첫 번째 공연을 장식한다.

같은 날 저녁 7시~9시에는 '쿠티야탐' '노' '티베트 전통 불교의식음악' '인도네시아 전통의식무' 중국의 '타이완 오페라', 캄보디아의 궁중무용 '업샬라', 인도의 전통 무용, 한국의 선무용과 선무도가 공연된다.

3일 오전 9시부터는 각국의 명상과 치유공연예술에 관한 심포지엄Ⅱ가 열린다. 여기서는 캄보디아 '업살라' 중국 오페라, 승무, 가야금, 선무도, 설위설경(設位設經), 비나리, 판소리, 춤명상 등을 조명한다. 특히 이승후 박사가 '선무의 한의학적 고찰'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3일 오후 3시~5시 공연에는 한국 조부언 선생이 선보이는 설위설경, 캄보디아 '업샬라' 선무도 등이 무대에 오른다. 주목받는 순서는 故 성금련(인간문화재)선생이 작곡한 '가야금병창-법성게'의 초연 무대이다.

마지막 공연은 3일 저녁 7시에 각국을 대표하는 '쿠티야탐' '노' '티베트 불교의식음악' '선무용과 선무도' 등이 장식한다.

이번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선옥 회장은 "앞으로 불교계 대학에서 선무치유무용과가 개설돼 그 곳에서 걸림 없이 선무의 치료효과를 규명하고 선무를 전수하고 싶다"며 "불교 교리를 기반으로 한 선무치유 효과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내 일생의 꿈"이라고 밝혔다.

에이팬은 아시아 27개국 유네스코 위원국에 설문조사를 내보내서 추천을 받아 유네스코 NGO로 만들어 진 단체이다. 현대인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각종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명상'을 제안하고 공연으로 정신세계와 명상을 표현하고 있다. (02)391-6502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김인숙 '구슬정원' 展, 29일까지



자연산호, 골동 비취 병.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이 산호 비취 조개 진주 등으로 직접 만든 장신구를 선보인다.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4월 24~29일 개최되는 '구슬정원'에서 비취, 산호, 진주, 옥 등으로 알록 달록 화려함을 자랑하는 구슬꽃이 관객들을 반긴다.

이번 전시회는 김인숙 원장이 2003년 제1회 구슬목걸이 이야기, 2005년 5월 구슬꽃 이야기에 이어 세 번째 여는 구슬 전시회이다.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지난 20여 년간 김 원장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비취, 진주, 산호, 호박, 칠보 구슬로 만들었다. 김인숙 원장은 1회 전시회의 수익금을 재가연대 · 우리는 선우 등의 불교계 단체들에, 2회 전시회의 수익금을 여성불교 발전을 위해 희사한 바 있다. (02)2238-7666

강지연 기자

불교문예출판부 '봉축시집' 펴내

불교문예출판부가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시집>을 펴냈다.

봉축 시집이라는 특성에 맞게 <불교문예> 상임고문인 오현 스님의 시 '사랑'에서부터 청화 스님의 '연꽃이 보낸 물결' 수완 스님의 '좌탈입망' 원담 스님의 '꽃은 져도' 효림 스님의 '빨래' 혜관 스님의 '오월' 등을 스님들의 시를 비롯해 오세영 시인의 '꿈' 나태주 시인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은봉 시인의 '연탄재' 공광규 시인의 '흙집 사리' 등이 실렸다.

특집 코너로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의 봉축 소시집을 실어 소소한 재미를 제공한다.

조계종 문화부에서 지원받아 만들어진 이번 <봉축시집>은 무가지로 배포된다. (02)923-3112

강지연 기자

수완 스님 詩 음반으로 제작

"스쳐 지나는 세월의 잔영만큼 나의 삶 나의 노래는 긴 그림자 드리우네. 아직도 얼만큼 시간의 잔을 비워야 할지 영겁에도 변하지 않을 내 터전의 숨결을 여린 가슴으로 다독이는 오늘은 제비꽃." -오늘은 제비꽃-

수완 스님(현대불교문인협회 회장)의 시 10편이 노래로 변신했다. 수완 스님의 시와 작곡가 진우(시노래풍경 회장)의 곡이 만나 하모니를 이룬 '오늘은 제비꽃' CD가 나왔다.

이번 음반에는 타이틀 곡 '오늘은 제비꽃'을 비롯해 '포행길에서 만남' '낙엽, 그리고 바람' '미궁2' '촛불을 세워뒀오' '길이 되어 흐르는 강' '우리가 하나일 때' '불면' '일출' '천도' 등 10곡이 담겼다. 노래는 작곡가 진우와 김명준씨가 불렀다.

강지연 기자



봉황도

금박과 전통문양의 화려한 조화

단청장 정성길 개인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월 12~18일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기능보유자 정성길씨가 5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기와에 금박으로 전통문양을 그려 넣은 작품인 '연꽃' '달마도' '승무' '12지'를 비롯해 단청문양 위에 청룡이나 봉황을 그린 '거북금초청룡도' '봉황도' 등도 이색적이다. 6세기 말 문양을 화려한 채색으로 되살린 '6세기 말'이나 '수월관음도' '연화머리초' '사신도청룡'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단청에서부터 고구려 단청문양, 고색단청, 삼베에 고분금박처리법 등 다양한 단청기법을 소개한다. (032)868-5898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계간 <불교평론>
2006년 봄호(통권 2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 6년간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특집
바람직한 불경 번역과 현대적 소통모델 찾기
번역은 아무나 하나 ---------- 박성배
한글대장경 역경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박종린
리즈 데이비스와 빨리경전협회의 성과 -------- 황순일

기획연재
불교인을 위한 그리스도교 이야기 ---------- 오강남
기고 :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와 불교 -- 정용도

기획
사회 양극화문제에 대한 불교적 처방 없나 ---------- 정천구
천성산 살리기 그리고 비판적 성찰 ---------- 이정호
황우석 사태로 본 불교윤리의 대사회적 대응전략 재고 ------- 허남결

논 단
궁극적 실재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물리학적 관점 ---------- 김성구
떠오르는 장례문화 수목장, 문제점은 없는가 ---------- 조동섭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관리부 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에 1만원씩 이체됩니다.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입금후 전화 확인 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 038-25-0008-365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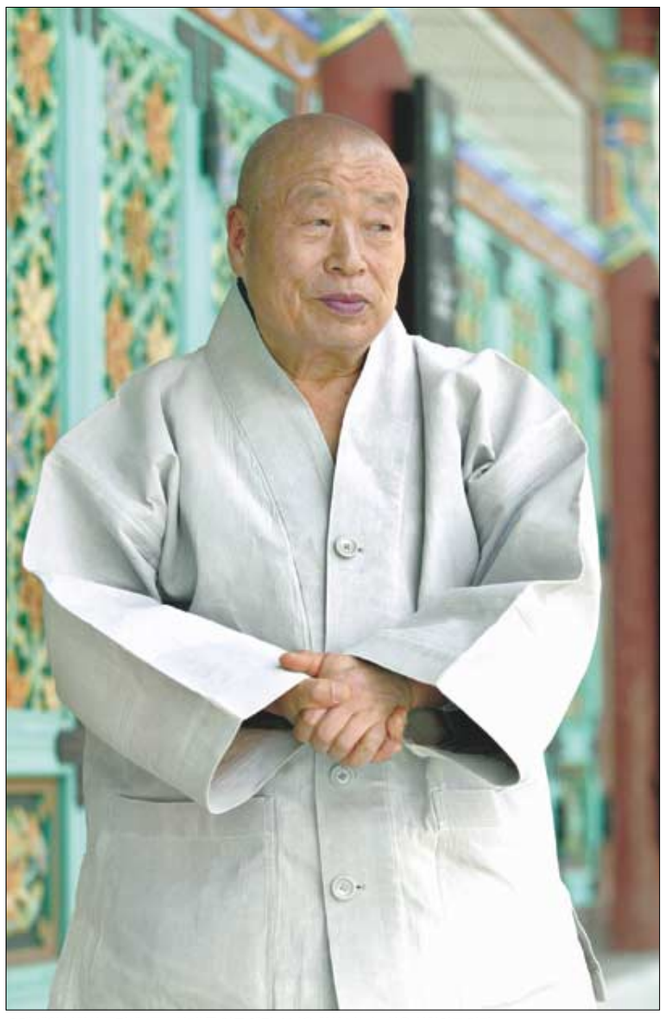
■ 불교평론 구독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1~2 / 팩스 02)737-0697



“산에 봄잔치 가득하지요?”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혜정 스님 (서울 문수사 주지)


오랜 세월 북한산 중턱에 ‘문수성지’를 일군 혜정 스님은 항상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시간이라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지런 하다고 해도 흐르는 시간의 부지런함을 당할 수는 없지.”

몇년전 혜정 스님을 뵈러 북한산을 올랐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했었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스님을 찾아가는 산길은 변함이 없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분홍의 옷을 입은 진달래가 산을 오르는 이들을 반긴다.

터벅터벅 가파른 산길을 걷는 등산객들은 거친 호흡을 잊은 듯 웃음이 만발하다.

서울 구기동을 출발한지 한 시간여, 거의 정상에 이르러서야 문수사 경내에 들어섰다. 흰빈 땀에 젖고 난 뒤였다. 서울시내를 발 아래 둔 문수사에 오르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5년여가 지났을 뿐인데 문수사는 참 많이도 변했다. <고려사>에 등장하는 문수사의 모습도 이러했을까. 수많은 영험설화를 갖고 있는 문수영굴(文殊靈窟)은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다. 대웅전, 나한전, 삼성각 등 전각들은 가파른 암벽을 절묘하게 이용해 들어섰다. 그러면서도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산과 하나가 된 문수사를 보는 등산객들은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등산객들과 스스럼없이 차담

문수사를 찾은 등산객들은 처마 밑에 잠시 짐을 풀어놓았다. 산을 오른 뒤 느끼는 벅찬 충만을 만끽하는 중일 것이다. 문명의 이기에 익숙해져버린 사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기도를 마치고 법당을 나서는 혜정 스님과 맞닥뜨렸다. 인사할 틈도 없이 대뜸 묻는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한 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다고 답하자, 스님은 무심한 표정으로 ‘봉(棒) 없는 봉(棒)’을 내려친다.

“고생했어. 쉬었다 내려가.”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막무가내 찾아온 달갑지 않은 손에게 내린 ‘벌칙’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주변에서 쉬고 있는 등산객을 보고는 금새 미소를 머금고 먼저 말을 건넨다.

“산에 봄 잔치가 가득하지요? 저토록 소리없이 제 할 일을 해 나가는 산이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차 한 잔 같이 마실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등산객들과 차담을 나누는 일은 스님의 가장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다. 산중 기도사찰에 주석하는 스님이 개발한 비장의 포교법이다. 산도 봄도 세상사도 스님의 법담을 피해갈 순 없다. 북한산을 자주 찾는 이들은 문수사를 꼭 거쳐 간다.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맑힐 수 있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이웃에 꾸준히 불서 보시

혜정 스님은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인심이 후한 탓이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문수사 공양간은 늘 북적거린다. 물을 얻어 마시러 왔다가 밥까지 덤으로 먹고 가는 이들의 얼굴엔 흐뭇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스님의 하루는 뭇중생이 깨어나기 전인 새벽 3시 도량석과 예불로 시작됐다. 이어지는 나라와 중생을 위한 관음기도는 한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끝이 났다. 세간보다 일찍 동이 트는 산허리지만, 문수사를 껴안은 북한산은 아직도 어둠을 벗지 못했다.

볼일이 있어 외출해도 혜정 스님은 예불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머물고 있는 자리가 곧 법당이다. 여행을 하거나 법문을 하고 돌아오는 중이라도 적당한 장소를 찾아 예불과 기도를 올린다.

스님은 책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매번 불서를 보시한다. 산을 내려가서 하는 일 중에 불서를 고르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매월 불서 구입 비용만도 70여만원에 달할 정도다. 그러고도 스님은 책을 보시한다는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온 얘기다.

그래서일까. 스님은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보시와 무소유의 당부를 빼놓지 않는다. 이날 찾아온 김수장 변호사에게도 무소유의 즐거움을 강조했다.

문수사 사적기 만드는데 온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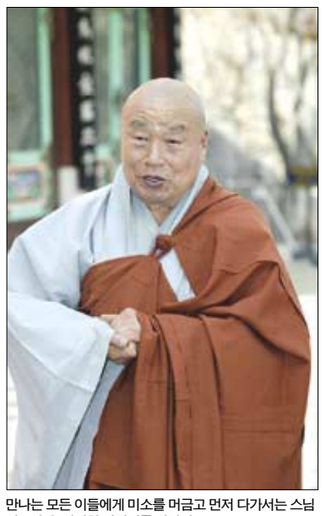
“구하는 바가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역사서적을 뒤져 <고려사>에 등장하는 문수사 관련 기록을 찾아냈던 스님은 요즘 사적기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 고려시대 탄연국사가 창건하고 조계종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가 주석했던 도량인데도 어엿한 사적기 하나 남아있지 않은 탓이다. 산중생활 틈틈이 자료를 모으는 스님의 노력은 곧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스님은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예불을 올린다.


등산객에게 늘 풀어주는 법문을 들려주는 일은 스님의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미소를 머금고 먼저 다가서는 스님의 모습은 인자한 아버지를 닮았다.

문수사 기도성지로 일궈

혜정 스님은 문경 봉암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혜정 스님은 1958년 합천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문경 봉암사, 마산 성주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은사 청담 스님으로부터 인욕의 가르침을 받았다.

1983년부터 북한산 중턱에 있는 서울 문수사에 머물며 문수사를 중창해 우리나라 3대 문수성지로 사격을 갖추어 놓았다. 스님은 평소 책을 좋아하고, 어려운 이들이나 사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자비보살로 유명하다. 또한 자가용이 없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큼 검소한 수행자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



'나'란 생각까지 놔야 '인욕'



누구에게나 보시와 무소유의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혜정 스님.

혜정 스님의 가르침

나의 산방(山房)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책 몇 권과 텅 빈 공간 뿐이지요. 그러면서도 산방은 꽉 찬 곳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빛으로 충만해 있고, 그 빛은 색깔이 없으며, 색깔이 없으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사유(思惟) 없이 어찌 존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성을 많이 내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적에 강원에서 공부할 때 "한 번 진심을 내면 뱀의 몸을 받는다(一起嗔心受蛇報)"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온 터였지요.

금강산 외금강 신계사 부근에 돈도암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구니스님들이 살고 있었어요. 홍도(弘道)라는 스님이 이 곳에 당도해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모래 위에 온 몸뚱이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진심을 내지 말라는 경구였는데, "나는 진심을 한 번 낸 죄의 대가로 지금 뱀의 몸을 받았으니 내 글을 적어다가 계잠(戒箴)을 삼아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경책의 글이었습니다.

幸逢佛法得人身(행봉불법득인신)
多劫修行近成佛(다겁수행근성불)
以尾成書露眞情(이미성서로진정)
願師書寫壁上(원사서사태벽상)
欲起嗔心擧眼看(욕기진심거안간)

뜻은 품었으나 말로 능히 못하노니
꼬리로나마 글을 써 진정을 말합니다
원컨대 스님께서 이 글을 벽에 걸어
화가 날 때마다 쳐다보소서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화는 내지 말아야겠다. 진심은 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자비심과 보리심을 발해야 하거늘, 하물며 화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저의 은사인 청담 스님은 제자들에게 인과를 철저히 믿고 인욕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화가 나겠지요? 이마저도 청담 스님은 맞을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때린 것이니 인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松風吹榻眼中柴(송풍취탑안중시)
一起嗔心受蛇報(일기진심수사보)

다행히 사람몸 받아 불법의 행운 만나서
다겁에 수행하여 성불에 가까웠어라
솔바람이 불어와 눈에 티가 들어가서
한 번 성을 냈더니 뱀의 몸을 받았네

寧碎我身作微塵(녕쇄아신작미진)
誓不平生一起嗔(서불평생일기진)
願師還鄕闍浮提(원사환향염부제)
說我形容戒後人(설아형용계후인)

차라리 내 몸을 가루로 만들지라도
맹세코 평생에 진심 한 번 내지 않으리니
원컨대 스님께서 염부제 돌아가시거든
나의 몰골을 말해서 뒷사람을 경계케 해주오

홍도 스님의 일화가 어느 연대의 일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러한 회화적 걸작으로 후세를 경각시킨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含情口不能言語(함정구불능언어)

성냄은 어리석은 일
남 탓 말고 나를 봐야

자신이 지은 인과의 업은 스스로 풀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일을 남의 탓을 하기 보다는 자신이 지은 인과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하세요. 그렇다고 억지로 일어나는 감정을 참는 것이 인욕은 아닙니다. 나라는 생각까지 다 놓아버려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National'로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 일본 마쓰시다 전기의 설립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1894~1989)는 마쓰시다전기를 일군 기업가이기도 하지만 흠뻑한 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마쓰시다는 아버지의 계속된 사업실패로 초등학교도 미처 졸업하지 못하고 생업현장에 뛰어들 만큼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쓰시다전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마쓰시다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가정환경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그동안 부유한 생활과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니, 아버지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후 그의 아들은 마쓰시다전기가 아닌 다른 기업에 취직을 했고, 마쓰시다는 회사와 사재를 모두 직원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이런 기업가, 이런 불자가 되어야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2>



효과있게 법문 듣는 법

초심자를 위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저 역시도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기에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매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은 내 머릿속에 들어와 보기라도 했는지 내가 그토록 궁금해 하던 내용들을 아주 족집게처럼 집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떨 때는 지금 저 선생님의 강의는 오직 나를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다음번 강의가 기다려지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저 덤덤하게 법문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가르침을 듣는 중생들은 '지금 부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법문을 설하고 계신다'라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일 테지요. 그렇지만 법문이나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뭔가 궁금하거나 묻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과연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엷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보다 나은 이에게 묻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저 잠에만 빠져 정진할 뜻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사람에게 큰 지혜를 이루게 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치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잠을 탐하지 않고 정진할 뜻을 가지는 것이다."(증일아함경 10권)

나보다 나은 이에게 이치 묻기를 좋아하고, 잠자는 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졸지 말고 자꾸 물어보라는 말이 됩니다.

서양의 학자도 질문에는 일곱 가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질문의 7가지 힘> 도로시 리즈 지음) (주1)

아함경과 같은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숨하게 질문과 대답이 오갑니다. 묻고 대답하고 되묻고 대답하고…. 같은 내용을 몇 번이나 문답으로 주고받은 뒤에는 밖에 나가서 전혀 딴소리를 하는 바람에 부처님이 그 제자를 불러들여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는 일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질문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부처님 앞으로 모여 앉아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부처님, 제가 아까 좌선을 하다가 이런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서 낮 동안 궁금했던 점을 풀어놓은 뒤에 부처님의 설명이 베풀어지면 소중히 받아 지닌 뒤에 또 다음날 종일 그 대답을 곰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일으키고 대답을 생각하고 다시 스승이나 선배에게 질문을 토해내고 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성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집착과 번뇌를 버리는 일'과 같은 것은 그렇게 곰곰 깊이 생각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질문을 해야 답이 찾아지고 길이 보이는 법
궁금한 게 뭔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요즘 시중에는 참 많은 법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인들은 법문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방에서 홍수처럼 콸콸 쏟아지고 있는 스님들의 법문과 불교학자들의 강의를 조금도 어려움 없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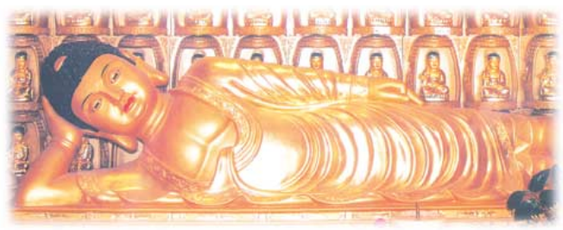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불교를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지, 딱 한 마디로 불교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울상을 짓는 분이 많습니다. 그건 각자의 가슴속에 물음표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이 무얼 궁금해 하는지 먼저 그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야 답이 찾아지고, 길이 보입니다. 질문을 안고 법회에 참석하는 순간 스님의 법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해 열려진 피안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주1) <생산적 책읽기 50> 안상현 지음, 북포스, 55쪽에서 재인용하였음.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법비오는곳 동해사에 기도오세요
(기도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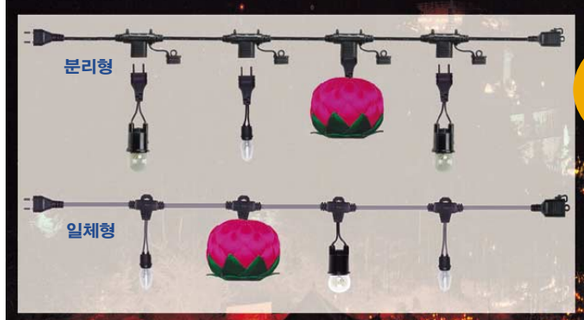


▶ 낙산사 10분 거리
휴휴암 15분 거리
불탑사 10분 거리 소요

매년 양력 10월~11월20일까지 밤,낮없이 부처님 사리탑 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충만해 있는곳.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성취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주지스님이 직접 기도 및 축원발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예약전화 : 033)672-2900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볼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컬라멘트가 6배 (특 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견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전문점 茶음료 집에서도 즐겨요

'녹차 음료' 직접 만들어 보세요

'녹차 열풍'이 커피전문점에까지 불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자바시티가 '티 머신'을 도입해 찻잎을 진공 압축해 우려내는 '에스프레소 티' 16종을 선보인데 이어 스타벅스도 녹차와 우유를 혼합한 그린티 라떼를 출시해 불과 20일 만에 10만여 잔을 팔아치웠다. 우롱차와 작설차 등 우리 입맛에 맞는 25종의 차를 판매하고 있는 커피빈도 허브티와 과일티 등을 출시해 고객 입맛 잡기에 나섰다. 이러한 다양한 차 음료들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번거롭고 한편으론 고리타분한 '차'의 이미지를 '개성'과 '웰빙'으로 재포장했기 때문이다.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만날 수 있는 차 음료 가운데 대표적인 녹차라떼 녹차쉐이크 등은 집에서 만들어 마시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집에서 간단하게 차 음료를 즐겨보자.

최근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들
개성 살린 차음료 앞다퉈 출시





녹차라떼.

▷ 녹차라떼

재료: 우유 200㎖, 가루녹차, 설탕 혹은 꿀 약간

1. 우유에 가루녹차를 섞은 다음 중탕으로 데운다.
2. 우유가 따뜻하게 데워지면 컵에 붓는다.
3. 가루녹차를 넣고 섞는다. 이때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꿀을 약간 첨가한다.

▷ 녹차쉐이크

재료: 가루차 1작은술, 따뜻한 물 1/4컵, 우유 200cc, 달걀 1개, 인삼가루 1작은술, 꿀 적당량

1. 가루차에 따뜻한 물을 부어 거품이 일도록 저은 다음 꿀을 섞는다. 가루차 대신 녹차 1작은술을 분쇄기에 갈아서 넣어도 된다.
2. 믹서에 우유, 달걀, 인삼가루, 풀어둔 가루차, 얼음을 넣고 섞는다.

▷ 가루차아이스크림

재료: 바닐라 아이스크림 1컵, 가루차 1작은술, 딸기 3개

1. 딸기는 씻어서 3등분 한다.
2.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약간 녹인 다음 가루차를 섞어 냉동실에 넣는다.
3. 10분 정도 얼린 후 꺼내 한 번 긁어서 섞어준다. 그런 다음 냉동실에 넣었다가 20분 정도 얼려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가루차를 살짝 뿌려 낸다. 딸기나 키위 등의 과일을 곁들이면 좋다.

▷ 녹차레몬에이드

재료: 잎녹차 20g, 레몬 1개, 설탕 시럽 2큰술, 각얼음 5개

1. 잎녹차에 80℃의 물 3컵을 부어 우려낸 후 식힌다.
2. 레몬은 반으로 갈라 1/2은 즙을 내고 나머지는 얇게 자른다.
3. 레몬즙에 설탕 시럽을 넣고 섞은 후 녹차 우린 물과 섞는다.
4. 각얼음을 넣고 레몬을 얇게 저며 얹는다. 이때 녹차를 우려낸 물을 얼린 얼음을 사용해도 좋다.

▷ 홍차라떼

재료: 홍차 4큰술, 우유 200㎖, 바닐라파우더 4큰술

1. 홍차를 진하게 머그잔 2/3 정도의 뜨거운 물에 우려낸다.
2. 바닐라파우더 4큰술을 넣고 섞는다.
3.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넣고 위에 우유거품을 얹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이동규의 '이라보 찻사발' 대상

문경새재 전국 찻사발 공모전

경북 문경시가 개최한 '2006 문경새재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대상에 이동규씨의 '이라보(伊羅保) 찻사발'이 선정됐다.

문경시는 지난해에 비해 15% 가량 증가한 163점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이씨의 작품을 대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라보 찻사발은 거친 모래가 많고 철분이 많아 황색 또는 갈색을 띠며 거친 질감을 갖는 찻사발의 한 종류를 말한다. 이씨는 도예작가 이정환씨의 조카로 12년째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다.

한편 금상에는 윤창민씨, 은상에는 오순택 · 김경수씨, 동상에는 송선현 · 구진인 · 한대응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7일 '문경 한국전통찻사발 축제' 폐막식 때 열릴 예정이다.(054)550-6395



이동규씨 작품 '이라보 찻사발'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5. 현대 보이차의 정의

보이차의 명성이 1990년대 해외에서 떠오르자 생산지인 중국 운남에서도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참여 아래 학자들이 움직였고 보이차의 역사, 과학들이 속속 밝혀진 것이 20세기 말이었다.

21세기에 들어와 '짝퉁 보이차'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보이차의 명칭에 대한 왜곡 또는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2002중국보이차국제학술연토회(2002中國普洱茶國際學術硏討會)'에서 각국 차 전문가들이 모여 "보이차는 세 가지 선결 조건들이 뒤따라야만 '보이차'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

3)쇄청모차(曬青毛茶)

보이차의 1차 공정은 녹차와 같다. 단 건조방법은 일광건조를 통해 말린 쇄청차(曬青茶)이어야 한다. 보이차의 원료인 쇄청모차(曬青毛茶)는 다른 녹차와는 달리 함수량이 일반 표준보다 높아 약 9~12%에 달한다. 쇄청모차는 장시간의 햇볕을 이용한 건조로 인해 녹차의 클로로필(엽록소) 성분 중의 마그네슘 이온이 떨어져 페오피틴으로 변하게 되어 엽색이 어두워지기도 한다.

또한 10% 이상의 높은 함수량은 산화 효소들이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결과가 초래되어 보이차의 후발효(後醱酵) 중 성분변화가 일어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운남 이외 지역서 만든 차 짝퉁으로 분류
햇볕에 건조해야만 바른 맛 음미 가능

즉 보이차에 관한 지역, 원료 그리고 가공법에 관한 정의다.

1) 운남지역(雲南地域)

보이차의 찻잎 원료는 반드시 운남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만 한다. 보이차의 주요 산지는 오늘날 서쌍판납(西雙版納)과 사모지구(思茅地區)에 있으며 특히 란창강(瀾滄江) 유역이 그 중심지이다.

서쌍판납의 차밭은 란창강(瀾滄江) 양쪽의 고산구릉(高山丘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은 찻잎 속의 화학물질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보이차의 역사과 정통의 맥이 바로 운남지역에서 비롯되는 것을 시사한다.

2) 운남대엽종(雲南大葉種)

운남차과학연구소(雲南茶科學硏究所)에서 운남대엽종과 소엽종의 내용물의 함량에 대해 비교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대엽종에서의 차침출물(茶浸出物)은 소엽종보다 3%가 높으며, 특히 폴리페놀(Polyphenol)은 소엽종보다 5~7%, 카테킨(catechins)의 측정은 소엽종보다 30~60%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대엽종으로 만든 보이차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묵은 향기가 배어날 수 있는 원인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곧 찻잎이 산화되지 않도록 단시간 내에 건조품으로 만들어낸 초청법(炒青法)이나 홍청법(烘青法)에서 얻어질 수 없는 효과이기에 보이차의 건조는 필히 햇볕을 통해야만 진정한 보이차 맛을 얻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쇄청차는 엄밀히 말해 다른 녹차와는 달리 찻잎의 상당부분이 산화되어 있는 녹차이다. 물론 쇄청모차는 직접 우려 마실 수도 있으나, 녹차로서의 상품가치가 별로 없기에 주로 정제 후 재가공하여 1차적으로 미생물을 통해 만든 숙차(熟茶)를 만들거나 혹은 재차 압제하여 숙병(熟餠)으로 만들다.

또는 쇄청차를 원료로 하여 곧 바로 긴압차인 청병(靑餠)을 만들어 저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론은 소엽종 찻잎 원료로는 보이차를 만들 수 없으며, 운남 이외 지역의 찻잎으로 만든 보이차는 역시 '짝퉁 보이차'로 분류되는 것이다.

특히 건조부분에 있어 햇볕 아닌 방법으로 찻잎을 건조할 경우 보이차의 후발효 작용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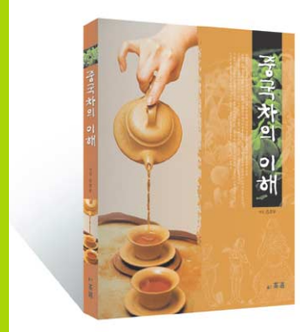
이에 보이차의 건조는 필히 햇볕을 통해야만 훗날 바른 보이차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것이다.

■ 한서대학교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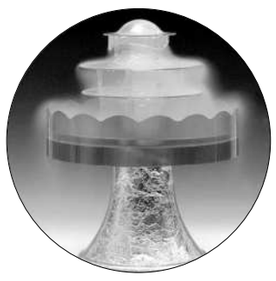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포르니' -폭포수공기정화가습기


유기농 녹차당면


태국관에서 선보인 부처님손모양 물건걸이


친환경 숯 · 옥 등으로 만든 바닥재


어린이 교통안전 손수건

숯 침대 ·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 친환경 타일

생활 아이디어 '반짝'

여성발명품 박람회 가보니…

여성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에 걸맞게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발명가들의 상품들이 눈길을 끈다.

4월 19~22일 코엑스 1층 태평양홀 4실에서 열린 여성발명품 박람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에는 3개월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떡 등 먹을거리에서부터 아이를 편하게 업을 수 있는 포대기, 친환경적 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발명품이 선보였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주최하고 (사)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한미영,www.inventor.or.kr)가 주관하는 '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는 여성발명품의 판로개척 및 경쟁력 향상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켜 여성발명인의 사업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 7년째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가구 · 건설장비관 △식품 · 건강용품관 △미용 · 패션잡화관 △생활용품관 △해외관 △여대생 발명관 △발명지원관 등 총 113개 부스에 92개 업체의 여성발명품들이 전시됐다. 숯을 활용한 침대 소파 의자, 스팀청소기,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환경친화적인 인테리어용품, 소형공기청정기, 발아현미고추장 등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웰빙 가정용품들이 출품돼 판로를 개척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된 해외관은 필리핀 일본 태국 등의 3개국에서 부스를 차렸다. 필리핀여성발명협회, 필리핀발명협회, 태국 중소기업청 등이 공식 참가했다.


동덕여대 디자인연구센터에서 선보인 '엄마가 골라주는 우리아이 가구'. 침대는 잠자리이자 놀이공간이고 색상과 숫자, 동물모양을 배울 수 있는 학습터이기도 하다.

박람회 기간에는 제12회 여성발명우수사례 작품 발표회도 열렸다.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기순환 건조방식을 선택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가 있다. 50도의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 최대 8시간 안에 악취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완벽하게 건조시킨다.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소장 윤숙자)가 선보인 기능성 떡은 실온에서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건강에 좋은 기능성 재료와 한약재를 첨가해 먹기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면서 오래 보관되는 특별한 떡이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아이사랑 안전 교육기자재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 시각 효과를 꾀했다. 말하는 기자재이기에 아이들의 관심을 보다 오래 끌 수 있다. 거기에 신나는 CM송을 넣어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을 개발했다.

이외에도 농촌 환경 보호용 빈농약병 수거함, 국내 최초 함몰유두교정기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생활 속의 불편한 점을 여성들이 직접 개선해 발명한 상품들은 한국여성발명협회로부터 개발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획득까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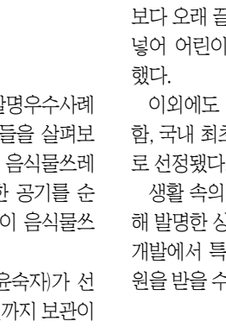
강지연 기자

"누구나 발명가 될 수 있어요"

interview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여성들은 발명을 해도 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시기회를 드리고자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를 개최한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은 박람회 개최 의의를 이렇게 밝힌다. 홍보의 기회와 더불어 박람회를 통해 발명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고 널리 알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여성들이 발명하는 것은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다"는 한 회장은 "올해에는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대회'와 '발명 창의교실' 등을 국고를 지원받아 무료로 개설했더니 참가 신청자가 몰려 벌써 마감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며 "관심은 많지만 방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독실한 불자로 길상사 회주 법정 스님에게 '환희행'이라는 법명을 받기도 한 한 회장은 불교와의 인연을 이렇게 고백한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미션스쿨을 나왔는데도 책 속에서 발견한 불교 속에 온통 빠져 들었어요. 그러다가 대도행 보살을 만나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하면서 뼛속까지 불자가 돼버렸죠. 마음에 항상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름의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영 회장은 "한글계몽운동을 했듯 발명계몽교육을 하고 싶고, 여성발명센터와 여성발명품 상설전시장 등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지연 기자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6〉

야콘 스파게티



지난 가을인 듯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가끔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등에 사시는 도반들을 만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날은 충북 진천에 가게 됐습니다. 그저 도반님들과 모여 된장을 담글 콩을 보러 가게 된 것인데, 이곳에서 너무나 신비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도반들과 이른 저녁을 먹고 주변 경치 구경에 나섰는데 주변에 작은 암자가 있다고 해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우선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고 잠시 참선을 한 후 나와 절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조그맣고 아늑한 암자였습니다.

그곳에 작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곁에 펌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라 신기해하고 있는데, 그 곁에는 연근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연근이 왜 이리 많지?'라는 생각에 한 번 만져보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연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창 우리끼리 토론을 벌이다 그 정체가 너무 궁금해 스님 뵙기를 청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따뜻한 방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우리가 궁금해 하던 그것을 한 개 깎아 오셔서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콘 냉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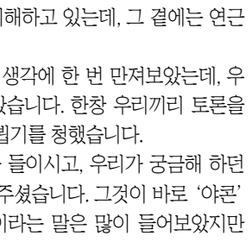
스님께서는 "야콘은 쫄깃한 맛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입 안에서 사르르 녹아 넘어간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내 주신 차 역시 야콘차였는데, 그 맛이 아주 부드럽고 입 안에 머무는 향이 정말 은은하고 좋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건강식으로 야콘을 죽이나 차, 나물로 만들어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날 스님께 야콘을 몇 개 얻어와 이런저런 음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날 스님께서 야콘을 챙겨 주시며 "외모가 예쁘다고 맛이 좋거나 영양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못생기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식물이지만 우리에게 맛과 영양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찌 처음 보는 우리에게 이렇듯 따뜻한 가르침과 행복을 안겨주시는지. 전 산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온 듯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만드는 법

〈야콘 스파게티 재료〉 야콘 분말차 1작은술, 스파게티면 1줌, 청색피망 1/2개, 빨강피망 1/2개, 죽염 약간
녹차기름 약간, 흰후추 약간



① 피망은 길이로 채 썰어 녹차기름에 살짝 볶아준다.
② 야콘차는 물과 1:1로 섞어 풀어준다.
③ 스파게티면은 뜨거운 물에 삶은 후 녹차기름에 볶는다.
④ 볶아진 스파게티 면에 만들어 놓은 야콘차 물을 넣어 볶아주고 나머지 야채를 넣어 볶아준다.
⑤ 죽염과 후추로 간을 한다.

▶다음 주에는 딸기 냉스프와 야콘 찹쌀케이크를 만들어 봅니다.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영천 보현산 충 효 사
경주 마석산 용 문 사
죽장 명봉산 무 학 사
포항 해도동 염 불 원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

회주 원감 해 공

신 도 일 동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번지
TEL054)338-8196,1152/FAX054)338-6006

지장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충 효 사

제15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많으신 분을 발굴하여 시상 및 지원하고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 과 불자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재단으로 아래와 같이 제15회 행원문화상을 시상코자 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시 상 내 용		인원	상 금
역경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하신 분	2명	각 500만원
예 술 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 신 분 (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2. 시 상 일
2006 년 9월 22일 금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 1 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 1 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 1 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② 접수 마감 : 2006년 6월 30일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5. 수상자 발표
2006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번, fax 02)521-9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부탄영화 '나그네와 마술사'

4월 28일 서울 필름포럼에서 개봉

길에서 시작 마무리 연기도리 잔잔하게



길 떠나는 나그네 '돈덥'(왼쪽)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남'. 사진 맨 위는 키엔체 노르부 감독.

스님 출신 키엔체 노르부 감독 작품
각종 영화제서 인정, 부탄 현지 촬영
액자형 로드무비 … 환상적 영상미
"불교정신 통해 해로운것 없애고자"

2003년 토론토 영화제 경쟁작, 2003년 베니스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2004년 아시안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발 시인 감독상 수상, 2004년 도빌 아시아 영화제 관객상 수상.

부탄에서 날아온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가 지닌 매력은 이렇게 각종 영화제에서 인정받았다. 환상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나그네와 마술사'는, '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스님 출신 키엔체 노르부 감독이 7년 만에 선보이는 액자형 로드무비다.

부탄판 '조신의 꿈'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이야기가 스님을 통해 소개되는 것이 이색적이다.

2002년 가을 제작된 '나그네와 마술사'는 키엔체 노르부 감독의 고향 부탄에서 처음 제작된 영화다. 이 영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스탭과 배우는 108명. 오스트리아 독일 인도 캐나다 미국 등 다국적군으로 구성됐다.

영화제작과정도 한 편의 영화였다. 영화에 동참할 배우와 스탭은 옛 라마승이 고안했다는 전통 예언 방식 '모(Mo)'를 통해 결정했다. 부탄의 전통문화를 고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노르부 감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탄에서의 촬영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모든 장비를 해외에서 조달했고 필름 현상과 편집 등 후반 작업도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영화 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영화 제작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부탄에서 키엔체 노르부 감독이 만들어낸 '나그네와 마술사'는 그 자체로 이미 마법이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가운데 전문 배우들도 없었다. 방송국 PD, 중학생, 부탄학교의 조사원 등이 캐스팅돼 어색한 듯 소박한 연기를 선보였다. 영화가 촬영될 무렵 다양한 지방 방언 가운데 국민의 1/4 이상이 사용하는 '쫑카'가 부탄 공식 언어로 채택돼 배우들이 새로운 언어구사를 하느라 고생하기도 했다.

영화를 제작하지 않을 때는 불교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각지에 수련센터와 수련학교를 세우는데 앞장서 온 노르부 감독은 "불교정신을 통해 해로운 것을 없애고자 '푸자스(pujas)'라고 알려진 특별한 종교의식을 영화 제작 전반에 걸쳐 했다"고 밝힐 만큼 불교와 영화를 교묘하게 접목시켜 왔다.

4월 28일 서울 필름포럼에서 개봉하는 '나그네와 마술사'를 살짝 훔쳐보자.

시골마을 공무원으로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아가는 '돈덥'은 매일 미국으로 가는 방법만 생각한다. 그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지루한 일상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다.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는 것을 즐기는 돈덥에게 전통놀이를 하며 천천히 자연에 순응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답답함의 극치이다.

매일 매일 애타는 기다림 끝에 날아온 친구의 편지는 그에게 미국으로 갈 길을 알려준다. 당장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 대도시로 떠나는 돈덥. 이때부터 영화는 천연 그대로 남아있는 부탄의 자연을 아름답게 비춰낸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 대, 두 대 지나갈까 말까한 차들, 버스는 놓치고 히치하이킹은 실패하고 그렇게 떠나는 길에서 말없는 사과장수와 얘기보따리 스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된다.

몸 달아 하는 돈덥을 위해 마술사 얘기보따리를 펼쳐 보이는 스님. 스님의 얘기를 들으며 이틀 밤을 거리에서 머무는 동안 종이장사 부녀도 합류한다.

미국 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한 돈덥. 스님의 얘기에도, 종이장사의 착한 딸에게도, 마음이 흔들려버린 그는 과연 미국에 갈 수 있을까?

길에서 시작해 길에서 마무리하는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 환상적인 이야기 구조 속에 어느 사이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와 연기에 빠진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포교 프로그램 대폭 확대 … 뉴스 강화

– 불교방송 5월 1일부터 봄 개편 –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이 5월 1일자로 2006년 봄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봄 개편은 주요 청취 시간대에 포교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주5일 근무에 맞춰 웰빙 선 산사체험 등을 프로그램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였다. 한 방향으로 들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신설 프로그램은 '건강한 아침'(월~금 08:30) '함께 부르는 찬불가'(월~토 10:55) '가요스케치 양혜승입니다'(토 · 일 07:05) 등이다. '다시 듣고 싶은 노래' '마음으로 듣는 음악' '영화 음악실' 등은 시간을 늘렸다.

'라디오법회'는 일요일에만 방송하던 것을 개편 후부터 토 · 일 양일에 걸쳐 집중 방송한다. '룸비니 동산'(토 18:00) '음악의 마을'(월~일 14:05) '낭만 라디오'(월~일 16:10)등은 시간대를 옮겼다.

전체 프로그램의 60% 정도를 포교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해오던 아침저널은 보도부에서 넘겨받아 뉴스를 대폭 강화했다. '양창욱 기자의 외교가 산책' '윤용근 기자의 생활경제' '전경윤 기자의 경제수첩' 등 기자들이 직접 출연해 해설 논평하는 코너들도 새로 도입했다.

정부 부처의 제작 참여도 이끌어 냈다. 소방방재청 상황실 심미자 소방장이 전해주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영림 연구위원의 '열린 신문고' 등이 그것이다.

인사이드 뉴스를 신설해 취재 뒷얘기도 방송한다. 인사이드 뉴스는 인터넷에도 집중적으로 올려 다음 야후 등에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매일 10분 분량의 BBS TV 뉴스를 제작할 복안도 가지고 있다.

강지연 기자

禪 웰빙 산사체험 등 마련
해설 논평 기자들이 직접
'라디오법회' 土 · 日에 집중

사진동우회 심상 '님의 미소' 展



영주 기흥동 마애삼존불상, 송길자 作.

올해 17주년을 맞는 사진동우회 심상(회장 원혜영)이 벼랑 끝에 새겨진 부처님의 미소를 '훔쳤다'.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구비진 들판을 헤매 다니며 심곡에 숨어 있는 부처님의 미소를 찾아온 시간들을 '님의 미소'라는 이름으로 도심 한 복판에 풀어헤쳤다.

4월 22~27일 부천시청 로비 아트센터(032-320-2456)를 시작으로 5월 4~5일 석왕사 전시실(032-663-7771), 22~27일 서울 싸이드림 포토 갤러리(02-2266-5923)에서 펼쳐지는 열일곱 번째 작품전은 마애불을 주제로 했다. 원혜영 회장을 비롯해 원종기 김종옥 전종산 등 회원들과 고문 안장헌씨, 영담 스님(석왕사 주지) 등 15명이 담아낸 마애불의 미소를 만날 수 있다.

강지연 기자

보리, 방송모니터 요원 모집

(사)보리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생명생태주의 시각에서 본 방송'을 주제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부처님의 생명생태사상을 기초로 한 방송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방송행태에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송모니터링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 모니터링 교육은 △5월 2일- '생명 생태사상' '방송과 동물권' △3일- '환경생태운동과 방송' '매체에 대한 이해와 방송환경변화' △9일- '생명생태주의 모니터링 실습' '모니터 보고서 쓰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02)745-5811

강지연 기자

영천 만불사 산사음악회 개최



지난해 만불사에서 열린 달맞이 산사음악회에서 촛불 기원하는 참가자들.

영천 만불사(주지 학성)가 여섯 번째 산사음악회를 마련한다. 4월 29일 저녁 7시 만불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이번 산사음악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으로 영혼에 평안을 안겨주는 음악회로 마련된다.

산사와 명상음악의 만남으로 꾸며지는 이번 산사음악회는 시명 스님(울산극락사 주지 · 불교성악회 지도법사)의 '크나큰 진리', 범능 스님의 '푸른 학으로', 정율 스님(부르나 솔리스트 앙상블 단장)의 '향을 사뤄 몸을 태워', 지연 스님(선우사 주지)의 '대광명' 등 고운 선율을 들려준다. 가수 주병선씨는 '칠갑산'을, 소프라노 김현숙씨는 '부처 몸을 이루세'를 선보인다. 1600-0101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 | 불 | 로 | 전 | 하 | 는 | 자 | 비 | 광 | 명

찬 덕 연 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팔각봉축접등(제동행렬용 가능)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제 575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4월 26일(음력 3월 29일) 수요일

부처님의 광명이 온누리를 비춘다!

삶이 고(苦)가 아닌 이유

문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왕림하심이 고통에 헤매이는 중생들에게 쵤창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엄연히 끊임없는 생노병사가 있기에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은 고통의 굴레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님, 봄날의 따사로움처럼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삶이 고가 아닌 희망임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일러주십시오.

답 고가 아니라는 것은요, 항상 얘기하지만 고정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떼어 놓는데,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는데 무슨 거기에 고가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갈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생활을 하는 데 찰나찰나 화해서 자꾸 이것 보면 이것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고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고가 있는 거지 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보도 없고요.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팔자가 있어서, 운명이 있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 할 때 고는 없습니다.

그 '없습니다' 하는 건, 얼른 쉽게 말해서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생각을 잘못해서 고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되고 잘되는 것

> 고(苦)는
>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 있는 것이지
> 고는 없습니다

뿐입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게 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걸 아실 수 있다면 공한 걸 알 수 있고 공한 걸 안다면 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나와 참나를 모릅니다. 나와 나를 모른다는 것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콤비가 돼서 돌아가야 하는데 항상 나라는 육신 때문에 콤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내가 했다, 내가 벌었다, 내가 망했다' 이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함이 없습니다. 함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를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내 몸뚱이는 생명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말씀하시기를 "네 몸이 허허바다에 떠 있는 배라면 그 배 안에 탄 승객은 네 몸 안의 생명들이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들은 중생으로 비유를 했고 뱃사공은 선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것과 같이 인생을 한 철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심부름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내 몸 안에도 생명과 모습과 의식들이 천차만별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물 한 컵이라도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거 될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한 개체인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계와 물질계가 콤비가 돼서 여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여하게 돌아갈 수 있으려면 나와 내가 둘이 아니어야 되죠. 둘이 아니게 되면 스스로 여여하고, 여여한 줄 안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알며, 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안다면 걸림 없이 들이고 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이 몸을 받고 나왔다면 내 나무는 내 뿌리부터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 뿌리를 의존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뿌리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자불(自佛)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은 있지만 근본은 누구나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 만생과 더불어 일체제불의 마음도 직결돼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고가 없다고 한 말이 어떠한 뜻인지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이 고정된 게 있는가 하고요. 듣는 것도 고정되게 듣지 못하고 만남도 고정되지 않고 또는 움죽거리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투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한생각에 찰나 전으로 돌아가고 찰나 후로 돌아가고 현실에 공해서 돌아가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한 게 따로 있습니까? 함이 없이 여러분은 여여하게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그렇게 되질 못해서 그게 콤비가 안되죠.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콤비가 돼서 여여하게 이끌어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네 마음부터 알라. 본래 네 마음은 부처니라. 부처의 근본은 체가 없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이 없다면 무효고 또 육신은, 정신계를 무효로 본다면 물질계는 정신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다." 하셨습니다.

우린 공기주머니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이렇게 하면 벌써 몸뚱이부터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지 말고 체가 없다는 거부터 생각하세요. 체가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체가 없으니까 이 마음 저 마음 막 그냥 쓰잖아요.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거, 모두가 공했어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여기 올라올 때도 발자국 짊어지고 오지 않았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죠? 한 발짝 들여 놓으니깐 그 앞서 걸어온 발자국은 다 없어졌잖아요, 과거로.

그러니 지금 현실에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이 겁니다.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생각을 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가, 그렇지 못하고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끄달리면 그 팔자나 운명이 주어지는 거죠. 팔자도 없고 운명도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내가 쉬지 않고 삶은 고가 없다고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늙어 죽도록, 또 자녀들을 낳아서 기른다 해도 이 도리를 가르쳐준다면 보배를 넘겨준 것과 같은 이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너무너무 전자에 끄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로 해서 자기네들 보디가드는 자기한테 있습니다.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얼른 쉽게 말하자면, 원자라고 비유한다면 원자에서는 입자가 나가서 다 조절하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처리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처리해서 들이고 말입니다. 제각기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니깐 그걸 부려먹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자기, 위대한 자기지만 친근하게 앉아서 '너만이 지켜 주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둘이 아니게 해라이 소리예요. 모두 자기네들의 전자에 살던 조상이, 과거의 그 조상이 자기 모습을 또 형성시키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를 이렇게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는 거니까요.

관하면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문 스님께서 일러 주신 마음 도리를 나름대로 실천하며 간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와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니 큰 불안감이 들고 앞날에 대한 걱정까지 겹쳐서 편안하지 못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하는 걸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이 중생에게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부처님의 광명이 온 누리를 비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광명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그 재료가 여러분한테 다 충족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바탕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라는 것은 병이 아니라 공부하라는 재료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아이구, 내가 이 어지러움병이 생겼으니까 가서 보약이라도 지어먹고 이럭해야겠다.' 그러고 바깥으로 떠도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으로 '허허, 이 공장이 많은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무슨 무슨 나라라고 그러지만 이 몸 안에서는, 이 몸 안에 있는 중생들은 전부 그걸 세계라고 합니다. 아, 나라가 좀 많습니까? 위나라 대장나라 소장나라 식도나라 이장나라 간장나라 방광나라 콩팥나라,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데 합쳐서 지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내면이나 외부, 유생 무생, 무(無)의 법, 유(有)의 법 모두 그 한마음으로 된 것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생이 천차만별이니까 말입니다.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게 한마음으로 된 하나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의 개별적인 주인공으로만 알지 마시고 그 생각을 넓게 해서 포괄적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한마음의 주인공만이 모든 이 안의 모든 공장들을, 나라들을 지배하니까 내가 생각이 이렇게 난다면 그 생각하기 이전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법신들이 거기서 전부 통신을 합니다. 이것이 레이다망이라고 해도 되지만 불가에서는 누진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판단력과 들이고 내는 작업과 통신력, 이것을 누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누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 3미터 안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보신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아하, 내가 병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어떡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로구나. 아이구, 그것도 거기서 나온 거로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하는 동안에 바로 그 어지러움증은 없어질 겁니다. 왜? 속지 않으니까! 그냥 바둥바둥하고 속아서 애쓰면 재미있거든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기는 놈은 더 무섭죠. 왜. 그러니 그거를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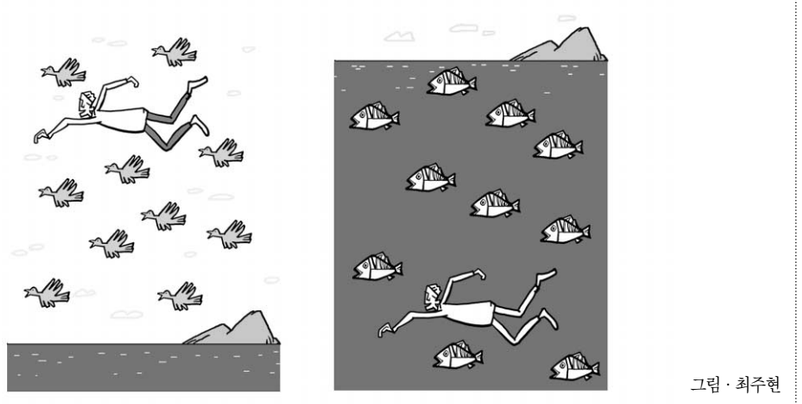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에서 모두 창조하나요?

문 스님께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심성과학 아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마음에서 창조를 하는 겁니까?

답 그렇죠.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이것은 허용이 안되니까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보는 것도 보고, 동시에 보고 듣고 말하고 몸을 움죽거리고 이러죠. 근데 그 마음이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살라고 그 많은 말들을, 그 많은 생각들을 다 자유롭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생각지 못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마음 빼놓고 뭐가 있을까요?

상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중세계, 하세계 이렇게 삼 세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차원이 얕아지고 차원이 아주 저 밑으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모습도 그렇게 나오죠,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각자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누가 그거를 말해 주기 이전에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누가 대신 잠을 자 주고, 누가 대신 먹어 주고, 누가 대신 똥을 눠 주고, 누가 아파 주고, 누가 죽어 주고, 누가 깨닫게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다 있다고 얘기했죠? 그건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 한 발 떼어놓으면
> 한 발 없어지는데
> 무슨 거기에 고가 붙을
> 자리가 있겠는가

살면서 항상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도 생명체들이 잔뜩 들어 있는데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불어 같이 먹었죠.

그래서 먹으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내게 또 작용을 해 줘요.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서 하지 에누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면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건전하고, 즉 말하자면 둥글게 좀 밝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입력이 된 거니까 그대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난 이것 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요것은 할 수 있는데 요것은 할 수 없다.' 이런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마음도 말도 생각도 자유스럽게 줬는데, 고등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쓰라고 했는데도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걸 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움죽거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내 이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자기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진짜 너만이 이 몸이 푸르게 살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너만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고, 아프면 의사도 돼 줄 수 있다' 라고 관하라는 것은 오직 자기 이 몸이 싹이라면 자기 뿌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 인간하고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새하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꽃하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소를 건지는 데는 내가 소가 돼야, 내가 소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소를 건질 수 있다고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30면으로 계속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29면에서 계속

'소로 태어났으니까 소의 고기는 사람들이 먹어서 약으로 쓰고, 소의 영혼은 건져서 인간으로 형성시킨다' 이거죠. 가지각색으로 천차만별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고 한꺼번에 알 수는 없으니까 차차 하나씩 알아 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같아

문 스님, 다른 어떤 사람이 나쁜 생각과 나쁜 에너지를 갖다 계속해서 내뿜으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계속되니까 몸도 좀 아프고 계속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답 그것은 사람의 사량이에요. 사량에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영령이라는, 체가 없는 내 마음은 이 허공과 같아서, 즉 말하자면 그쪽의 마음내는 것도 영이고 내 마음 가진 것도 영이에요. 영에다 영을 넣으면 몇이 되나요? 수많은 영을 영에다 집어넣어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떠한 말을 했든지 어떠한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정신력을 빼앗아 간다 해도 그건 못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 자기의 주처가 완전히 섰다면 절대로 빼앗아 가고 빼앗아 올 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물질이라면 되는데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형상이 없는 나한테, 모든 거를 공에다가, 즉 말하자면 공심에다가 모든 거를 놓고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한다면 그게 그대로 무효가 돼 버려요. 그건 자기가 생각에 그렇게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본다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 주세요!

문 보통 절에 가면 절을 하라, 주력을 하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스님께서는 근본이 있으니까 근본에다가 모든 걸 몰락 놓고 믿고 거기 다 연결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들어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하는 거하고요, 앉아서 참선하는 거 하고요, 그런 거를 갖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답 우정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앉아 있고 싶고 그럴 땐 앉아 있고, 서서 어디 가야겠다 그러면 서서 가고, 잠자고 싶다 그러면 잠자고, 그렇게 그냥 똥 누고 싶다 그러면 똥 누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고 이러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며 그대로 삶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행복하게 살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누가 먹여 주고 살아 주는 사람도 없고, 잠을 자 주는 것도 없고, 또는 대신 아파 주는 것도 없고, 대신 죽어 주는 것도 없어요. 단, 내 힘으로써 내가 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밀고 나가는 게 법이에요, 그냥. 그게 공법이에요.

이 사람 몸 하나에 모든 모습과 생명 의식들이 하나 잔뜩 들어 있어요. 잔뜩 들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인공!' 하면 자기 뿌리를 말할 수도 있고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장! 너만이 이 배를 다 끌고 다닐 수 있어. 너만이 지켜 줄 수 있어. 너만이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아프면 의사가 돼 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거기다가, 뭐든 거기서 다 나와요. 이것은 실천이면서도 진리고 진리이면서도 삶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자체에요.

항상 생각을 둥글고 밝게 하세요
그렇게 입력을 하면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참선은 이렇게 한다,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그거를 방편으로 쓰는 것뿐이지 그렇게만 배워서 그것만 해야 한다면 자기를 깨치기는 몇백 년 가도 깨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치고 못 깨치는 건 마음 한 번 먹기에 달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관하면 어디를 통하느냐. 대뇌를 통하고 사대로 통하고, 그래서 이건 심성의 학도 되고 심성과학도 되고 심성천체물리학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들어가면 벌써 사대로 통신이 되고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입력이 되면 입력된 대로 나오게 돼 있고, 전자에 입력된 건 없어지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자에 악하게 사람을 죽였으니깐 이 업이, 죄가 많겠지.' 하는 것도 이 요량에 달려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나올 때에 바로 그것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할 때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 내가 입력한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입력한 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불성 자체 근본만 있는 줄 안다면, 정신계의 자기가 있는 줄 안다면 여여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또는 자유자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것은 참 껄껄 웃고 정말 즐길 수 있고 영원한 그 자유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악하게 마음이 나갈 때

문 저는 일이 잘 안됐든지 할 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참 많이 생기고 남이 저를 괴롭힐 때 그 상대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좀 작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운전수한테 '차를 잘 끌고 다니게 하고 위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넣어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평소에 관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를 끌고 다니는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깐 차를 부숴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운전수요, 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넣어 가지고 다녀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바로 운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서더라도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닌데 이 생명의 근본도 둘이 아니요, 마음을 내기 이전도 둘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을 밝게 해서 그저 한마음이 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말겨 보세요. 그리고 증오심을 버리시고요. 그런 것도 거기다 맡기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알지도 못하고 자기 사량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망하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시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사량으로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를 잘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또 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모든 것은 당신만이, 의합하게 같이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은 데서 살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에 그 사람 가슴에 불이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댁의 마음과 아주 또 맞아져서 나중엔 사과를 하고 더 절친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이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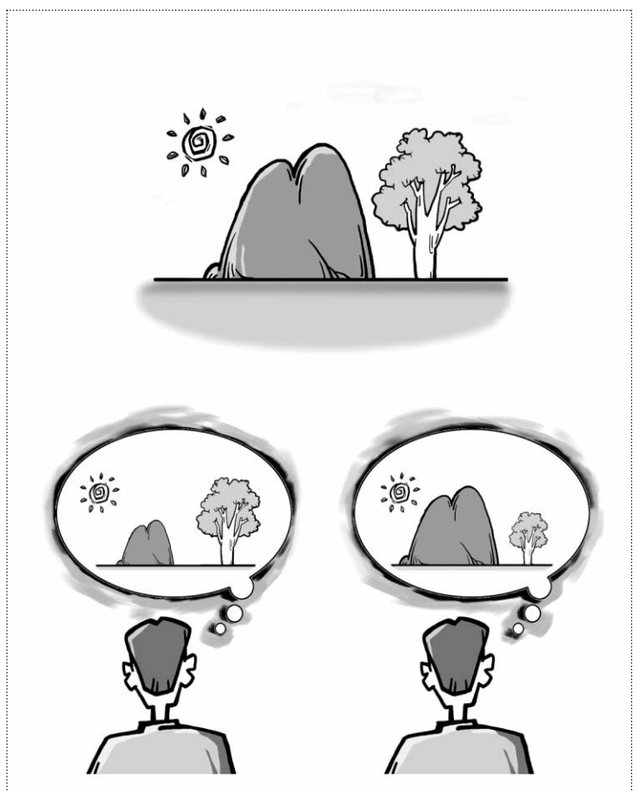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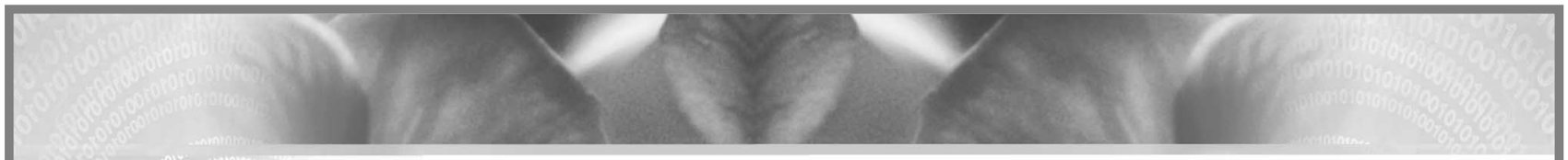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5월 1일 BBS 불교방송이 바뀝니다

1. 포교프로그램 주요 시간대 배치 ⇨ 방송의 중심엔 불교
2. 음악과 함께하는 스님의 법문 ⇨ 편안한 방송
3. 건강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 ⇨ 주 5일제 맞춤 방송
4. 시사프로그램의 현장화 ⇨ 아침저널, 일선기자가 기획 · 제작 · 출연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대구94.5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

내 마음속의 불교 (하)

변종원 (대전시 서구 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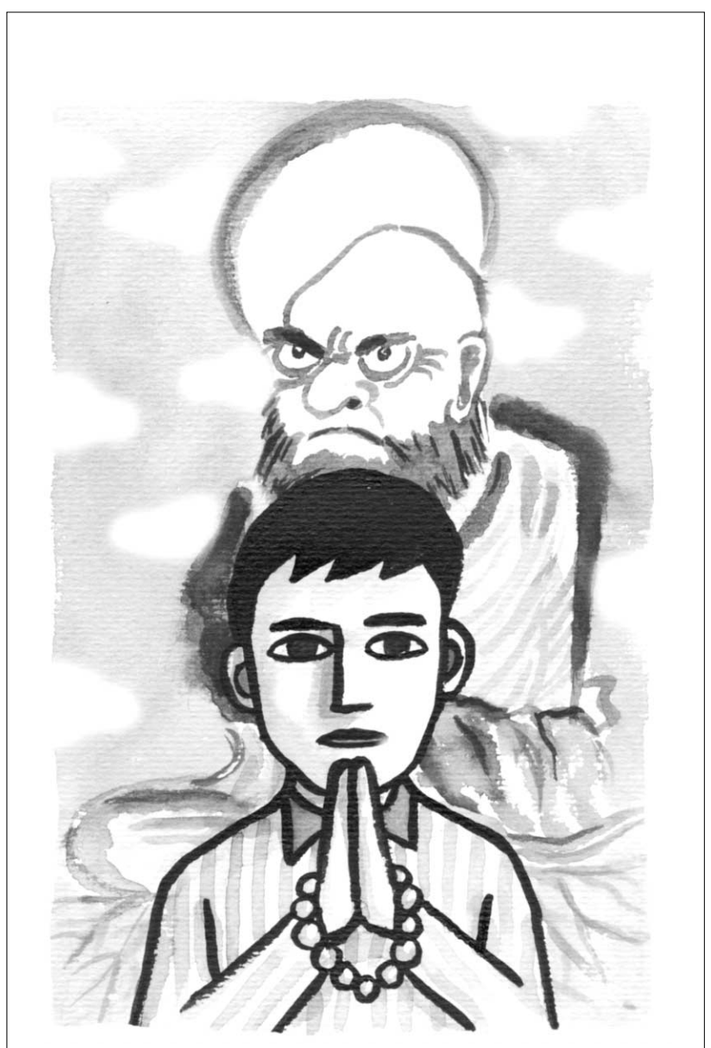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만 배! 이것은 108배라는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자기 자신의 낮춤이고 반성이며, 미래에 대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만 배를 하기 위해 여러 번의 108배를 시작했을 때, 튼튼한 체력이 아니었던 나의 몸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속의 갈등만을 자아냈었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만 배에 얽매여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만 배를 하기 전과 한 후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까? 법당을 찾았을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3배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등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108배 속에서 그 의문은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굽히고 등을 구부리며 몸에 땀을 흘리면서 하나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등산 전과 후에 갖는 느낌에서 오는 의문점을 등산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듯이 말입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경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개의 중간 목표와 수많은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작은 목표 하나하나의 성취는 중간 목표 달성에 힘이 되고, 중간 목표의 성취는 큰 목표에 다가서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의 마음속 큰 버팀목(목표)이 되어줄 불교에 있어서 만 배는 큰 목표에 대한 작은 목표의 첫 성공적이 된 셈이었지요.

국군수도통합병원과 의왕사에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중대로 복귀한 후, 일주일에 한 번 중대에서 종교행사가 이루어질 때면, 나는 중대원들에게 불교에 관한 작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했던가요? 나의 생각과 말은 이전보다 넓고 깊어진 상태로,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부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경 구절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은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풀어가며 풍성한 대화를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불교행사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인해, 중대 종교행사 중에서 가장 잘 진행되어 중대장님은 목탁을 구해 오셔서 우리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군 제대하는 날,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낫게 해준 의왕사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먼저 법당으로 들어가, 만 배를 할 당시 한 법우가 선물한 염주를 꺼내들고, 부처님을 향해 108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사님과 군종병을 만나 감사와 중대 복귀 후의 생활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의왕사에는 나와 같은 심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으며 그분들은 나에게 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정신적인 힘과 의욕을 주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제대 후, 나는 중국유학을 가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1999년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에서 4개월간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침7시부터 오후6까지 근무, 그리고 나는 짧은 시간에 돈을 더 벌기위해 야간 근무 할 일이 생기면 자원해 일주일에 2~3일씩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일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과 몸이 움직이지 않아 마비가 된 줄 알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계속돼서 일어날 땐 누운 상태로 먼저 눈으로 몸을 내려다보며, 손발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마비된 양손을 들어 서로 비빈 후 풀어지면 그 손으로 몸을 주무르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손과 몸에 항상 와 닿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염주였습니다. 현장 일을 할 때는 몸에 지닐 수 없지만 잠자기 전 항상 손목과 목에 차며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함과 바르고 강인한 정신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 건설현장과 학원에서의 일을 통해 마련된 비용으로 그렇게 바라던 1년간의 중국유학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직장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을 향해 큰 포부를 안고 시작했던 중국에서의 직장생활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쳤습니다. 연로해가는 부모님과 가정을 꾸리는 것 등을 생각하니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여러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공무원 준비. 기존에 몇 년간 준비하고 해왔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했던 마음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더 많이 남았기에 그리고 공무원을 하더라도 중국어는 꼭 능력을 살려서 발휘를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중국어에 대한 열정은 마음속 한 쪽으로 접어두었습니다.

막노동·유학생활 이어 '공무원' 도전
복잡한 생각 조바심 달래려 고시원 생활
마음 안정 뒤 공부에 매진해 '시험 합격'

늦게까지 했던 공부, 짧은 직장생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취업시험 준비, 높은 경쟁률, 적지 않은 나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부모님 건강 등 나의 머릿속에는 어느새 조바심이 일기 시작해 학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의 번잡한 생각을 접고 들어간 곳이 보은 속리산에 자리 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비좁은 책상과 책장, 이불, 옷 등 모든 것을 다 갖춘 나의 작고도 큰 공간. 누구의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엔 내일을 생각하는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했고 나를 안정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가져온 짐을 풀어서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라디오도 핸드폰도 아니었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연결된 작은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염주! 어딘가를 가면 항상 품고 다니던 염주! 만 배를 같이 했던 그것!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염주는 효력을 다했는지 나의 큰 방과 뻥 뚫린 마음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사기 위해 대전 집에 들려 심심해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경상남도 고성 청광화백의 달마대사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급한 나는 곧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사온 책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봐서 지나쳤던 그 달마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에겐 그 때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렵게 그 그림을 구해 고시원으로 돌아와 방안의 벽 3곳과 방문에 붙였습니다. 모든 악귀들과 잡념이 내 방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달라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어느 때보다 안정되었고 잡념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긴 예전과는 달리 공부의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이후, 나는 합격했습니다. 현재 나는 가족들과 함께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을 가꾸고 있습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한국산 6년근 인삼 9증 9포한
약 왕 사
名品紅蔘
(명 품 홍 삼)

"홍삼액기스 판매"
"자 죽염 판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약왕사 주지 정명 합장
■제조원 : 약왕사 (왕솔농산)
전 화 054)371-6665
팩 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약왕사)

팔공산 동화사
비로암 하안거 대중모집
모집대상
신심있는불자 선착순 10명
모집기간
불기 2550년 5월 10일(음 4월 13일)
출입자 재도 결제 받습니다.
문 의 처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비로암)
TEL : 053)982-0223
053)983-2248
제9교구본사 동화사 비 로 암
감원 수련 합장

부처님 오신날!
찬탄 · 감사 · 공경의 성스러운 삼천배
58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청견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 2006년 4월 29일 (토요일) 저녁 9시
2006년 4월 30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 청견스님 011-9088-9449
⊙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6. 5. 1
월 · 화 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강화도의 역사적 풍상과 함께 해온 정족산 소나무는 활엽수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자연천이에 맡겨둔다면 소나무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소나무 숲 진달래 우리 민족성 닮아

강화는 속리산에서 올라온 한남정맥이 서해를 건너 방울 튄 섬이다. 그 섬의 동남쪽에 자리한 정족산(鼎足山)은 해발 222m로, 마니산의 한 줄기가 북동쪽으로 뻗어 솟구친 세 봉우리의 산이다. 산의 모양새가 발이 셋 달린 가마솥(鼎)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정족산 품안에 자리한 전등사(傳燈寺)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381년 아도화상이 진종사(眞宗寺)라는 이름으로 초창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일부에서는 후대의 윤색이라고 하지만, 아도가 신라 땅인 선산 모레네집에 기숙하면서 불법을 전하고 도리사를 창건한 것을 보면 이해가 간다.

삼랑산성 4개 성문이 산문 역할

전등사는 산문이 따로 없다. 정족산 능선을 이은 삼랑산성(三郞山城)의 성문들이 산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정족산성이라고도 하는 삼랑산성의 둘레는 총 2,914m로, 4개의 성문이 전등사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나있다.

동문으로 가는 차도 주변에는 키 큰 소나무들이 잡목숲에 우뚝우뚝 자리해 있고, 그 아래로 진달래가 때맞춰 만발이다. 관목인 진달래는 소나무와 궁합이 잘 맞아 정족산 곳곳에서 소나무와 함께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내건 연등과 썩 잘 어울린다.

외국인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꽃으로 무궁화보다 진달래를 더 쉽게 떠올리는 이들이 있다. 놀랍게도 진달래의 영어이름이 'Korean rosebay'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위에 강하고, 싹이 잘 트고, 토질을 가리지 않는 것은 꼭 우리의 민족성을 닮았다.

동문길과 남문길이 만나는 곳에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수령이 각각 5백~6백년 되는 이 나무들에 애틋한 전설이 있다.

조선 말, 관아에서 해마다 전등사에다 은행을 따다가 공출토록 했는데, 해가 갈 수록 공출을 요구하는 양이 늘어났다. 이에 추송대사가 은행이 열리지 않으면 공출의 고통도 없으리라 하고는 도술을 부려 은행이 열리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즉, 암나무를 숫나무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 후부터 전등사에 대한 공출 탄압도 그쳤다고 한다.

암나무가 수나무로 변하는 일은 생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이야기는 나무가 인간을 위해 도움을 베풀고, 또 인간은 그러한 나무를 귀중하게 보호해 온 우리의 전통을 잘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조루 앞에는 큼지막한 주엽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어른 키 높이에서 두 줄기로 갈라져서 높이가 10m 가까이 자랐다. 주엽나무는 낙엽활엽수 교목으로, 줄기와 가지에 길고 예리한 가시가 나 있다.

전등사의 주엽나무는 가시가 성글어서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나무도 늙으면 남을 해치는 가시를 떨구어내는 법이다.

대웅보전 나부상 길상 · 벽사 상징

현재의 전등사 모습은 <조선사찰 31본산 사진첩>(1929년)에 담겨진 옛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대웅전과 대조루 등 몇 동의 전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새로 들어선 것들이다.

그러나 횡적인 가람배치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전각들을 좌우로 정렬 시켜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다. 오른쪽에서부터 대웅보전, 향로전, 약사전, 명부전이 같은 석단에 자리하고, 그 아랫 공간에는 적묵당, 종각, 종루, 대조루, 종무소, 요사채 등이 자리하고 있다.

대웅보전 네 군데 귀공포에는 나부(裸婦)의 상이 조각돼 있다. 이 나부상에는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와 마을 주모 사이에 얽힌 전설이 있지만, 그건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이들의 우스개 소리일 것이다. 이 상은 길상과 벽사를 상징하는 원숭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주사 대웅보전 앞의 원숭이상, 선암사의 원숭이 석주, 강화 선원사 절터에서 발굴된 원숭이상 등 절집에는 원숭이와 관련된 조각이 여러 곳에 남아있다.

대조루는 멀리 바닷물의 들고남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대조루에서 굽어보면 한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강화해협 염하(鹽河)가 멀리 내려다 보인다.

그러나, 좀더 불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루에도 팔만사천번씩 파도 치는 무상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조루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풍나무로 추정되는 단풍나무가 있다. 관목처럼 줄기 아래쪽부터 부챗살처럼 줄기들이 뻗어나가서 마치 느티나무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몇 그루의 단풍나무가 한자리에 엉켜서 자란 것임을 알 수 있다.

종루 옆에 그늘이 좋은 느티나무가 있고, 나무 의자가 빙 둘러 있어서 탐방객들이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한다. 앉아서도 경내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절묘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끊임없는 관광객 발길로 식생 빈약

정족산은 산체가 작고, 주변의 산들과 이어지지 않은 독산이다. 그리고,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사철 끊어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식생이 빈약하다.

4월 중순이면 아직 봄꽃이 이르긴 하지만, 꽃을 피운 정족산의 초본은 열 손가락 남짓하다. 제비꽃 종류와 개별꽃, 현호색 들이다.

우리나라의 제비꽃 무리는 모두 48종이나 되며, 모두 여러해살이 풀이다. 이들을 색깔로 나누면 흰색, 노란색, 보라색, 자주색 등이다. 줄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도 나눈다. 전등사 주변에는 졸방제비꽃, 알록제비꽃, 털제비꽃, 남산제비꽃 등이 관찰되었다.

정족산은 늙은 소나무와 젊은 활엽수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혼효림이다. 비목은 동문과 남문 사이의 숲에 작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비목은 녹나무과에 속하는 난대성 낙엽교목으로, 전등사 비목은 남한에서는 가장 북쪽에서 자라는 것이다.

소사나무 종류 가운데 키가 크고 열매가 굵은 것을 왕소사나무라고 한다. 전국에 흔하지 않은 왕소사나무가 남문에서 서문 사이 구간의 숲에 자리하고 있다. 키가 무려 15m나 되고, 가슴 높이 줄기 지름이 60cm에 가까운 노거수이다. 현재 수령이 160년으로 추정되며, 보호수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솔씨 자연발아 이뤄지지 않아 고민

정족산의 소나무들은 재질이 우수하지는 않지만, 강화도의 역사적 풍상과 함께 해온 나무이다.

군락으로는 대웅보전 뒤편과 남문 밖 주차장께 솔숲이 인상적이다. 대웅보전 뒷숲을 수행의 숲이라고 한다면 남문 밖 솔숲은 탐방객들을 위한 휴식의 숲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족산 소나무는 전성시대가 지났다. 활엽수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문에서 달맞이고개 구간에만 솔씨가 떨어져서 자란 어린 치수들이 보일 뿐, 거의 전역에서 자연발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자연천이(遷移)에 맡겨 둘 것인지, 아니면 식재라도 해서 소나무 산으로 계속 가꾸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정족산의 포유류로는 탐문 결과 고라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생태계로 보면 고라니가 정족산에서 살아남기란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남문 안쪽에 수양버들이 지키고 있는 큰 연못 하나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 생태연못으로 다시 조성해서 정족산의 비오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8) 강화 정족산 전등사



강화 전등사 전경.



전등사 대웅보전 느티나무.



개별꽃은 꽃모양이 별처럼 생겨 얻은 이름이다.

애틋한 전설을 간직한 전등사 은행나무.

www.shmall.net



달마의 氣

건강과 행운의 징표를 그대에게 선물합니다.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1588-3278



新春大福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달마란 예부터 병귀(病鬼)나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맥을 차단하고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마 목걸이, 귀고리를 착용하여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세요. 반드시 행운이 당신곁에 함께 합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01호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